

국립국어원 2013-01-50

발간등록번호
--------

11-1371028-000498-01
----------------------

#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담당 연구원

이대성

공동 연구원

양수경, 강보선, 이수연



담당 연구원	이 대 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공동 연구원	양 수 경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강 보 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이 수 연 (덕성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국 문 초 록

그동안 남북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어문 규범이나 어휘론 비교에 집중되어 왔다. 남북의 언어 현실과 이질화 정도를 분명하고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규범과 어휘론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어문 규범을 따르거나 생경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보다는 서로의 언어 태도로 인한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태도에는 대부분 언어적 표현이 수반된다. 한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바른 언어적 태도가 바로 언어예절이다. 언어예절은 상호 신뢰 형성의 전제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갈등 해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언어예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남북 언어의 소통, 나아가서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남북은 서로 대립적인 사회체제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유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되는 언어예절에서 분단 이후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마땅한 언어예절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어예절을 호칭·지칭어, 높임법, 인사말 등으로 나누어 남북 언어예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한 사회의 언어예절은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표준적인 언어예절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의 언어예절은 <표준언어예절>을 따랐고 북한의 언어예절은 <우리말례절법>, <조선말례절법>, <언어생활론>, <우리 생활과 언어> 등을 참고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국어 교과서, 소설 말뭉치와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북한 규범서의 언어예절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남북 언어예절 비교 시 남북의 호칭·지칭어, 인사말은 <표준언어예절>의 체제를 기준으로 상호 비교하였으며, 남북의 높임법은 문법적 차원과 어휘적 차원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모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언어예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연구사업비로 수행하였다.

## 일 러 두 기

1. 이 보고서는 남한의 표준 언어예절과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언어예절을 비교한 것이다.
2. 남한의 언어예절은 국립국어원(2011)에서 발간한 <표준언어예절>을 따랐다.
3. 이 보고서에서 참고한 규범서의 약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표준언어예절> → <표례>
  - <조선말례절법> → <조례>
  - <언어생활론> → <언생>
  - <우리생활과 언어> → <우생>
  - <우리말례절법> → <우례>
4. 북한의 규범서, 소설, 영상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띄어쓰기만 남한식으로 바꾸고 다른 것은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만 북한 자료에서 명백한 오류로 보이는 표현은 바르게 고쳐 인용하였다.
5. 북한 규범서의 본문에 기술된 ‘김일성’, ‘김정일’ 관련 표현은 ‘최고 지도자 일가’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인용하였다.
6. ‘경어법’, ‘대우법’, ‘높임법’ 등의 용어를 ‘높임법’으로 통일하였다.
7. 기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① ‘< >’는 책 또는 사전을 표시한다.  
(예) <표례>, <조선말대사전>
  - ② ‘[ ]’는 대화 상황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예)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8. ‘인사말’의 경우, <표준언어예절>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북한 규범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에 제시하였다.





# 차 례

<b>I. 연구 과제의 개요</b> .....	<b>1</b>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과제 추진 일정 .....	2
3. 선행 연구 검토 .....	11
<b>II. 가정에서의 남북 호칭·지칭 비교</b> .....	<b>17</b>
1. 부모와 자녀 사이 .....	18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	21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	23
4.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	25
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	29
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	37
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	41
8.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하여 .....	44
9. 숙질 사이 .....	44
10. 사촌에 대하여 .....	49
11. 사돈 사이 .....	50
<b>III. 사회에서의 남북 호칭·지칭 비교</b> .....	<b>53</b>
1. 북한의 사회관계 호칭·지칭 유형 .....	53
2.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	59
3. 지인에 대하여 .....	73
4. 직원과 손님 사이 .....	81
5. 학교생활 .....	84
6. 기타 특이 사항 .....	90

<b>IV. 남북 높임법 비교</b>	<b>97</b>
1. 문법적 차원	97
2. 어휘 차원	114
3. 경어 사용의 남북 비교	122
<b>V. 일상생활의 남북 인사말 비교</b>	<b>127</b>
1. 아침, 저녁의 인사말	127
2.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	133
3. 전화 예절	159
4. 소개할 때	175
<b>VI. 특정한 때의 남북 인사말 비교</b>	<b>181</b>
1. 연말연시	181
2. 생일 축하	186
3. 축하, 위로	191
4. 문상	202
5. 건배할 때	205
<b>VII. 요약 및 제언</b>	<b>207</b>
1. 남북 호칭·지칭	207
2. 남북 높임법	210
3. 남북 인사말	212
<b>참고 문헌</b>	<b>215</b>
<b>참고 자료</b>	<b>219</b>

## 표 차 례

표 1. 아버지에 대한 호칭·지칭 .....	18
표 2. 어머니에 대한 호칭·지칭 .....	19
표 3. 자녀에 대한 호칭 .....	20
표 4.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지칭 .....	21
표 5.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지칭 .....	22
표 6. 며느리에 대한 호칭·지칭 .....	22
표 7. 장인에 대한 호칭·지칭 .....	23
표 8. 장모에 대한 호칭·지칭 .....	24
표 9. 사위에 대한 호칭 .....	25
표 10.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	25
표 11.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	26
표 12. 형에 대한 호칭·지칭 .....	29
표 13.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	29
표 14. 남동생에 대한 호칭·지칭-남자 .....	30
표 15.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남자 .....	30
표 16. 누나에 대한 호칭·지칭 .....	31
표 17.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	32
표 18. 여동생에 대한 호칭-남자 .....	33
표 19.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남자 .....	33
표 20. 오빠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	33
표 21.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	34
표 22. 남동생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	34
표 23.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	35
표 24.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	35
표 25. 여동생에 대한 호칭-여자 .....	36
표 26.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여자 .....	36
표 27.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지칭 .....	37
표 28. 남편의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	37
표 29. 남편의 아우에 대한 호칭·지칭 .....	38
표 30. 남편 아우의 아내에 대한 호칭 .....	39
표 31.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지칭 .....	40
표 32.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지칭 .....	40
표 33.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	41
표 34.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 .....	41
표 35. 아내의 남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 .....	42

표 36. 아내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 .....	42
표 37. 아내의 여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43
표 38.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	44
표 39.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지칭 .....	44
표 40.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	45
표 41.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	45
표 42.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	46
표 43. 아버지 누이에 대한 호칭 .....	46
표 44. 아버지 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	47
표 45. 어머니의 자매에 대한 호칭 .....	47
표 46. 어머니 자매의 남편에 대한 호칭 .....	47
표 47.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	48
표 48.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	48
표 49. 아버지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	49
표 50. 어머니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	49
표 51.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	50
표 52.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	50
표 53.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	51
표 54.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및 지칭 .....	59
표 55. 상사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	68
표 56.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	70
표 57.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	71
표 58.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	73
표 59.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	74
표 60. 남편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	75
표 61. 아내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	76
표 62.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	77
표 63. 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 .....	78
표 64.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	79
표 65.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	80
표 66.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 .....	81
표 67.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에 대한 호칭·지칭 .....	83
표 68. 정순기(2005)에서의 높임법 등급 체계 .....	98
표 69. 김동찬(2002)에서의 높임법 등급 체계 .....	98
표 70. <남한> 아침 인사 .....	127
표 71. <북한> 아침 인사 .....	128
표 72. <남한> 저녁 인사 .....	132
표 73. <북한> 저녁 인사 .....	133
표 74. <남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	133
표 75. <북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	134
표 76. <남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	137

표 77. <북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	138
표 78. <북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기관) .....	142
표 79. <남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사회) .....	147
표 80. <북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사회) .....	148
표 81. <남한>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	159
표 82. <북한>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	160
표 83. <남한>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하는 말 .....	163
표 84. <북한>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하는 말 .....	163
표 85. <남한>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	165
표 86. <북한>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	165
표 87. <남한>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	166
표 88. <북한>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	166
표 89. <남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	167
표 90. <북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	167
표 91. <남한> 직장에서 전화로 자기를 밝힐 때 하는 말 .....	170
표 92. <북한> 직장에서 전화로 자기를 밝힐 때 하는 말 .....	170
표 93. <남한> 통화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	172
표 94. <북한> 통화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	172
표 95. <남한>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하는 말 .....	172
표 96. <북한>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하는 말 .....	172
표 97. <남한>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	173
표 98. <북한>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	173
표 99. <남한> 자신을 소개하는 말 .....	175
표 100. <북한> 자신을 소개하는 말 .....	176
표 101. <남한>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순서 .....	178
표 102. <남한> 연말연시 인사말 .....	181
표 103. <북한> 연말연시 인사말 .....	181
표 104. <남한> 생일 축하 인사말 .....	186
표 105. <북한> 생일 축하 인사말 .....	187
표 106. <남한> 결혼 축하 인사말 .....	191
표 107. <북한> 결혼 축하 인사말 .....	191
표 108. <남한> 출산 축하 인사말 .....	193
표 109. <북한> 출산 축하 인사말 .....	193
표 110. <남한> 문병할 때 하는 말 .....	194
표 111. <북한> 문병할 때 하는 말 .....	195
표 112. <남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 .....	197
표 113. <북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 .....	197
표 114. <남한> 문상 인사말 .....	202
표 115. <북한> 문상 인사말 .....	202
표 116. <남한> 건배할 때 하는 말 .....	205
표 117. <북한> 건배할 때 하는 말 .....	206



# I. 연구 과제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언어예절은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적 지식이다. 언어예절 문제는 향후 남북의 언어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언어예절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남북의 언어예절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국립국어원의 연구 사업으로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이 있으나 여기서 다룬 북한의 호칭·지칭어는 1·4후퇴 전후 월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현재 북한의 언어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화법해설(국립국어연구원, 1992)>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현재 남한의 <표준언어예절>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연구 범위를 친족 호칭·지칭어로만 한정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사용되는 호칭·지칭어, 인사말, 높임법을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 과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급적 최근의 북한 언어예절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 범위도 인사말, 높임법을 포함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 과제의 목적은 북한어 및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언어예절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규범적인 언어예절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간행된 언어예절 규범서, 언어학 전문서적, 잡지, 학술지, 교과서 등을 통해서 규범적인 언어

예절을 파악한다. 북한의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파악되는 언어예절 실태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추가 및 보충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북한 특유의 언어예절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 언어예절의 목표와 성격을 밝히고 체제의 특성에 따른 북한 특유의 언어예절이 있다면 조사하도록 한다.

셋째, 남북의 언어예절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때 남한의 언어예절은 <표준언어예절(국립국어원, 2011)>을 기본으로 한다.

## 2. 과제 추진 일정

### 1) 사업 추진 기간

2013년 4월 ~ 11월 (8개월)

### 2) 주요 일정

선 행 연 구 검 토	1.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대상 자료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범주 설정 (남북한 호칭·지칭, 높임법, 인사말)</li> <li>• 남북 언어예절에 관한 기존 연구물 검토</li> <li>• 북한 언어예절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대상 자료 선별</li> </ul>
----------------------------	--------------------------	---



문 헌 자 료 분 석	2. 북한 규범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된 북한 규범서 분석</li> <li>• 분석된 자료를 &lt;표준언어예절&gt;과 1차 비교</li> </ul>
	3. 규범서 외의 문헌 자료 분석 (소설, 잡지, 학술지, 교과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비교 자료에서 밝혀지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북한 소설, 학술지 및 잡지, 교과서를 분석</li> </ul>





동영상 자료 분석	4. 북한 동영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서를 비롯한 북한 문헌 자료 분석 이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북한의 동영상 자료를 분석</li> <li>• 분석된 자료를 &lt;표준언어예절&gt;과 2차 비교</li> </ul>
↓		
말뭉치 자료 확인	5.<겨레말큰사전> 말뭉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비교 자료에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lt;겨레말큰사전&gt;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li> </ul>
↓		
최종 보고 서 작성	6. 남북 언어 예절 비교 최종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단계의 연구를 종합한 남북 언어예절 비교 최종 보고서 작성</li> </ul>

### (1) 1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대상 자료 선별

- ① 남북 언어예절에 관한 기존 연구물 검토를 통한 연구 필요성 및 목표 확인
- ② 북한 언어예절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대상 자료 선별: 북한 언어예절 관련 자료 중 호칭·지칭, 높임법, 인사말에 관한 규범이 언급되어 있는 4개 자료를 선별함
- ㉠ 분석 대상 북한 규범서 목록

김동수(1983), <조선말레절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이정용(2005), <언어생활론>,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0), <우리 생활과 언어> (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1), <우리말 레절법> (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2) 2단계: 북한 규범서 분석**

- ① 북한 규범서 내용을 호칭·지칭, 높임법, 인사말의 세 주제별로 분석하여 남한의 <표준언어예절>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비교표를 작성
- ② 비교표 내용과 <표준언어예절>을 토대로 1차 원고 작성

**(3) 3단계: 규범서 외의 문헌 자료 분석(북한 소설, 학술지 및 잡지, 교과서)**

- ① 북한 소설
  - ㉠ 소설 선정 기준: 북한의 현대 언어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의 작품 중 2000년도 이후에 발표된 작품
  - ㉡ 분석 대상 북한 소설 목록

번호	저자	발표연도	제목	발표지 또는 출판사
1	강귀미	2000	마지막 배우수업	조선문학
2	강선규	2000	교정의 룰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3	경석우	2004	아버지의 마차	금성청년출판사
4	권정웅	2000	동지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
5	김교섭	2000	누이의 목소리	조선문학
6	김길환	2000	빛나는 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7	김명길	2000	5시간 40분	조선문학
8	김정길	2000	그의 소원	조선문학
9	김창수	2000	차번호 “만-하나”	조선문학
10	김홍철	2000	꽃강냉이	조선문학
11	김홍익	2000	한생의 초여름에	조선문학
12	량호신	2000	그들이 택한 길	조선문학
13	량호신	2000	사랑과 증오	조선문학
14	류도희	2000	원 한 번제	조선문학
15	리경명	2000	첫 소대장	조선문학
16	리금철	2000	기준	조선문학

번호	저자	발표연도	제목	발표지 또는 출판사
17	리라순	2001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
18	리명	2002	망부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	리성식	2000	아지랑이 피는 들	조선문학
20	리정옥	2003	뇌성나무	조선문학
21	리준식	2000	통일의 길	평양출판사
22	림병순	2000	꺼지지 않는 메아리	조선문학
23	림재성	2000	나루가의 밤 이야기	조선문학
24	림화원	2000	오후 5시	조선문학
25	변월녀	2001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6	석남진	2002	비결	문학예술출판사
27	석유균	2001	별-하나	조선문학
28	송병준	2000	푸른 잎	조선문학
29	안금성	2000	요영구 풍경화	조선문학
30	약월	2000	학대받는 사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31	양의선	2000	푸른 사랑	조선문학
32	양해모	2000	결석대표	조선문학
33	오광철	2000	높은 요구	조선문학
34	유현	2000	복무	조선문학
35	윤경찬	2000	언제	조선문학
36	장기성	2000	자전거	조선문학
37	전인광	2000	평양의 눈보라	조선문학
38	조인영	2000	대오가 떠날 무렵	조선문학
39	차승철	2000	초석	조선문학
40	최성진	2000	지워지지 않는 글	조선문학
41	최양수	2000	이상한 목소리	조선문학
42	한정아	2001	여섯 번째 버드나무	조선문학
43	현승남	2000	미래에 살자	조선문학

② 북한 학술지 및 잡지

㉠ 북한 학술지 및 잡지 선정 기준: 북한의 언어 규범 및 언어 현실에 관해 다룬 것으로 2000년도 이후에 발표된 논문 및 기사

㉡ 분석 대상 학술지 및 잡지 목록

고경순(2012),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체모에 맞는 언어 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데서 녀성들이 지켜야 할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3호(250).

길영수(2011), 「부름말을 옳게 사용하려면」, 『문화어학습』, 2호(245).

김광철(201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1호(248).

김철(2012), 「학생들이 지켜야 할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4호(251).

김철만(2011), 「존경어의 분류를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언어 레절 풍습」, 『문화어학습』, 2호(245).

리옥경(2010), 「소학교 학생들이 언어레절을 바로 지키도록 하자면」, 『교원선전수첩』, 1호(388).

리용남(2012), 「레절 관계 표현의 측면에서 본 우리말의 우수성」, 『문화어학습』, 1호(248).

리정봉(2011), 「문안 인사말을 잘 하려면」, 『문화어학습』, 4호(247).

리현석(2011), 「조선어 부름말 표현 수단의 다양성과 풍부성」, 『문화어학습』, 1호(244).

본사기자(2012),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전화레절을 잘 지키자」, 『조선녀성』, 650호.

본사기자(2013),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가정을 방문할 때의 레절」, 『조선녀성』, 656호.

송윤금(2011), 「식당에서 지켜야 할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4호(247).

송윤금(2011), 「언어 생활 지도에서 교원의 역할」, 『문화어학습』, 2호(245).

안영철(2011), 「부부 사이의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1호(244).

엄정혜(2011), 「축하할 때와 위로할 때의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2호(245).

엄정혜(2011), 「사례의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어학습』, 4호(247).

저자정보없음(2010), 「(언어레절상식) 말을 주고받을 때 삼가해야 할 12가지」, 『인민교육』, 4호(641).

저자정보없음(2011), 「(상식) 부부사이의 언어레절」, 『조선문학』, 768호.

저자정보없음(2011),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존경과 친근감을 나타는 부름말」, 『천리마』, 630호.

저자정보없음(2011), 「레절과 관련한 성구, 속담」, 『교원선전수첩』, 4호(395).

저자정보없음(2012), 「길거리에서의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1호(248).

저자정보없음(2012), 「각이한 상황에서의 부름말」, 『문화어학습』, 2호(249).

저자정보없음(2012), 「각이한 대상들과의 언어 레절」, 『문화어학습』, 2호(249).

저자정보없음(2012), 「전화례절을 바로 지키자」, 『천리마』, 639호.  
 저자정보없음(2012),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전화례절」, 『천리마』, 643호.  
 정광철(2012), 「인사말을 바로 하려면」, 『문화어학습』, 3호(250).  
 정태순(2010),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언어 생활의 몇 가지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어문학)』, 56-4(443).  
 허영무(2012), 「례의범절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문법적 수단」, 『문화어학습』, 4호(251).

③ 북한 교과서

㉠ 북한 교과서 선정 기준: 북한의 교과서 중 생활 언어예절 반영 비율이 높은 국어과 교과서로 자료 수집 당시의 최신판

㉡ 분석 대상 북한 교과서 목록

국어 고등중학교 3(2002),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1(2008),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2(2009),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3(2009),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중학교 1(2004),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중학교 2(2003), 교육도서출판사.  
 문학 고등중학교 6(2002), 교육도서출판사.  
 문학 중학교 5(2003), 교육도서출판사.

(4) 4단계: 북한 동영상 분석

① 동영상 자료 선정 절차

㉠ ‘MBC 통일전망대’의 ‘북한 영화 속으로’, ‘영화 속 북한’, ‘영화로 만나는 북한’ 코너에 소개된 동영상 중 언어예절 분석이 가능한 작품 위주로 1차 목록 설정

㉞ 1차 목록과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인 2차 목록을 검토하여 최종 분석 자료 선정

② 동영상 자료 선정 기준

㉟ 내용: 아동 영화, 기록 영화, 과학 영화는 언어예절 분석에 부적절할 것으로 보고 제외함. 군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제외하되 일상생활의 모습도 함께 다루거나 언어예절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분석 대상에 포함

㊀ 제작연도 또는 방영연도

- 2000년도 이후에 제작되었고 언어예절 분석이 가능한 작품
- 제작 연도는 미상이나 2000년도 이후 텔레비전에 방영되었고 실생활 언어예절을 담고 있는 작품

③ 분석 대상 북한 동영상 목록

- 제작연도(방영연도) 및 분류 기준은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검색’에 따름
- 분류어에서 ‘텔레비죤’, ‘텔레비전’ 등의 용어 차이는 ‘텔레비죤’으로 통일

번호	제목	제작연도 (방영연도)	분류
1	소년 탐구자들	2013	텔레비죤극
2	꿈을 속삭이는 소리 1부	2012	텔레비죤극
3	자기를 바치라 1부	2012	텔레비죤극
4	철이 아버지였군요	미상(2012)	토막극
5	금요일에 있던 일	미상(2011)	예술영화
6	눈 속에 핀 꽃	2011	예술영화
7	다시 만납시다	2011	예술영화
8	미결건은 없다	2011	예술영화
9	분조의 주인	2011	예술영화
10	소원	2011	예술영화
11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	2011	청소년영화
12	인민이 너를 아는가	2011	예술영화
13	버릇 탓인가	미상(2011)	청소년영화

번호	제목	제작연도 (방영연도)	분류
14	우리 여자 축구팀 1부	2011	텔레비존극
15	설 풍경	2010	예술영화
16	성장의 과도	2010	예술영화
17	해빛 밝아라 1-2부	2010	예술영화
18	행복의 수레바퀴	2010	예술영화
19	산올림	2010	경희극
20	말만 하다가	미상(2010)	청소년 영화
21	그 처녀의 이름	2010	텔레비존극
22	백두의 붓나무	2009	예술영화
23	시대가 주는 이름	2009	예술영화
24	삐죽새가 노래하는 곳 1부	2009	텔레비존극
25	사랑의 샘 1부	2009	텔레비존연속극
26	아지미	2009	드라마
27	저 하늘의 연	2008	예술영화
28	불길 1부	2008	텔레비존극
29	행복은 어디에 1부	미상(2009)	텔레비존연속극
30	어느 한 여성 직장에서	2008	조선예술영화
31	우리의 집	미상(2008)	텔레비존토막극
32	축하합니다	미상(2009)	텔레비존토막극
33	평양 날과람	2006	예술영화
34	생활의 거울: 병은 네가 걸렸어	2006	텔레비존토막극
35	손주며느리 오는 날	2006	텔레비존토막극
36	수업은 계속된다 1부	2006	텔레비존연속극
37	청년들을 자랑하라 1부	2003	예술영화
38	1번수 1부	2003	텔레비존극
39	새 령마루에로	2005	예술영화
40	선미 어머니	2006	텔레비존토막극
41	먼산의 노을	2004	예술영화
42	새로 온 처녀 인수원 1부	2004	텔레비존극
43	사랑의 거리	2003	예술영화
44	한 녀학생의 일기	2006	예술영화
45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2006	텔레비존토막극
46	내 고향의 바다	2005	예술영화
47	충북	2005	예술영화

번호	제목	제작연도 (방영연도)	분류
48	따뜻한 우리 집 1부	2005	텔레비죤극
49	존엄	2004	예술영화
50	우리의 향기	2003	예술영화
51	구봉령일가	2002	예술영화
52	불빛	2002	예술영화
53	살바를 잡아라 1부	2002	텔레비죤극
54	고향산천 1-2부	2002	텔레비죤극
55	세대의 임무	2002	예술영화
56	길을 비켜라	2001	예술영화
57	복 받은 대지에서	2010	예술영화
58	2학년생들 1부	2002	텔레비죤소설극
59	엄마를 깨우지 말아 1부	2002	텔레비죤극
60	금진강 1부	2002	예술영화
61	가정 1부	2001	예술영화
62	소방대원들 1부	2003	텔레비죤연속극
63	첨단선 1부	2002	텔레비죤극
64	높이 나는 새	미상(2003)	예술영화
65	고향의 편지	2002	예술영화
66	복무의 길	2001	예술영화

④ 분석된 자료와 1차 비교 자료를 토대로 <표준언어예절>과 2차 비교 원고 작성

**(5) 5단계: <겨레말큰사전> 말뭉치 분석**

1~4단계 종합 분석 자료인 2차 비교 자료에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겨레말큰사전>의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추가 검토

**(6) 6단계: 남북 언어예절 비교 최종 보고서 작성**

1~5단계의 연구를 종합하여 남북 언어예절 비교 최종 보고서 작성



### 3. 선행 연구 검토

#### 1) 남북 호칭·지칭어

북한 호칭·지칭어를 다룬 연구로 국립국어연구원(1995), 임철성(1997), 조오현(2005), 임철성(2009)이 있으며, 북한 언어예절 안에서 호칭·지칭어를 다룬 연구로는 이옥련(1997), 장은하(1997), 이은영(2002) 등이 있다. 북한어에 대한 자료는 이 중 이옥련(1997), 장은하(1997), 이은영(2002), 조오현(2005)은 북한의 대표적 언어예절 규범서인 <조선말례절법>(김동수, 1983)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규범을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국립국어연구원(1995)은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의 친족 호칭·지칭어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임철성(1997), 임철성(2009)은 남북한 문헌 자료와 함께 북한 영화, 드라마, 회화 교육 영상 등 실제 언어 사용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차례로 각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그 의의와 한계를 간략히 기술하겠다.

국립국어연구원(1995)에서는 서울과 평양을 포함하는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의 사용 실태를 표준화법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표준화법은 <표준화법해설>(국립국어연구원, 1992)에 따랐고 북한 지역은 평양,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 1·4후퇴 전후에 월남한 65세 이상 실향민 12명과 평양 출신 탈북민 2명에게 조사하였다.

표준화법, 서울, 평양의 친족 호칭·지칭어 차이는 전체적인 지역 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그 차이는 남북의 차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 사이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표준화법과 큰 차이를 보이는 평양의 호칭·지칭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엄마’는 사용하지만 ‘아빠’는 쓰지 않는다.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도 하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른다. 남편을 부를 때 ‘세대주’라는 말을 쓴다. 비칭의 의미 없이 평칭으로 ‘마누라’라는 말을 자주 쓴다. ‘임자’는 남한에서는 노년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가 연하의 타인 남자를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 동생의 아내에 대하여 ‘제수씨’가 아닌 ‘제수’라고 한다. 또 ‘누나’에 대하여 ‘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님’은 잘 쓰이지 않는다.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구분하

지 않고 대체로 ‘매부’ 한 가지로 말한다.

이 연구는 친족 호칭·지칭만을 다루어 사회생활에서의 호칭·지칭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 1·4후퇴 전후 월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현재 북한의 언어 실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남한의 표준화법은 <표준화법해설>(국립국어연구원, 1992)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현재 남한의 <표준언어예절>(국립국어원, 2011)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옥련(1997)은 <우리말의 예절>(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1992)과 <조례>를 텍스트로 삼아 남북한의 언어예절을 비교하였다. 각 책의 발간 취지, 구성, 언어예절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데, 기준 항목에 대해 남북한의 언어예절을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책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각각 기술하는 방식을 따랐다. 장은하(1997)는 <조례>와 <조선말화술>(리상벽, 1975)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예절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두 연구는 먼저 북한의 언어관이 남한과 다를 것을 지적한다. 즉, 언어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힘 있는 무기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호칭·지칭어에 관한 내용은 주로 <조례>의 ‘객체 대우법’의 어휘적 수단,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예절’에 실린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임철성(1997)은 남북한 문헌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영화, 드라마, 회화 교육 영상 자료(북한 제작 영화 2편, 드라마 1편, 조총련 제작 조선어 회화 교육 영상 2편) 등을 포함시켜 남북 호칭·지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호칭·지칭어의 특징을 봉건 잔재의 탈피, 집단적 성격, 극단적 존칭과 적개심 고취, 방언의 규범화라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호칭·지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집단적 성격을 띤다. 이는 ① ‘동무’, ‘동지’의 일상화, ② ‘분조장, 위원장, 반장’ 등의 집단 직위 호칭·지칭의 일상화, ③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집단 관계의 호칭·지칭에 원용하여 사용, 이렇게 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김일성 부자와 ‘계급적 원쑤’에 대한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 가족의 호칭·지칭은 극존칭을 사용하며 반드시 ‘-님’을 붙인다. 반면 ‘계급적 원쑤’로 분류되는 일본제국주의자, 미국제국주의자, 남조선괴뢰도당, 지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극도의 증오심과 적개심의 대상으로 표현되는데, 대부분 접미사 ‘놈’이 붙는다.

넷째, 방언 표현이 규범화되었다. 문화어 규범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 방언의 호칭·지칭이 상당 부분 규범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규범어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사전이나 언어예절 규범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북한 호칭·지칭어 연구 방법론을 탈피해 영상 자료와 방언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제 호칭·지칭 사용을 확인함으로써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 단순히 북한 호칭·지칭어 체계의 기술,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연관시켜 언어 현상의 해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지적처럼 분석 영상 자료가 그 양과 종류 면에서 한정되어 다양한 실제 호칭·지칭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오현(2005)에서는 남북의 규범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 호칭어를 비교하였다. 친족 관계 호칭어는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국립국어연구원, 1995)을, 사회적 관계 호칭어는 <국어문화학교>의 언어예절 부분과 <조례>의 사회적 부름말 부분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북 호칭의 가장 큰 차이로 지적한 것은 남한에서 가장 일반적 호칭인 의존명사 ‘씨’와 접미사 ‘-님’이 북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씨’가 자본주의적 사회제도의 반인민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직장이나 일반 사회, 공공장소에서의 호칭어를 남북한 간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철성(2009)은 임철성(1997)의 분석 자료에 영화 5편, 드라마 2편, 북한 소설 및 북한 방언 연구 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북한 호칭·지칭어의 특성을 밝히고 이 질화된 남북 화법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북한 영상 및 방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특히 지방)의 호칭·지칭어는 ‘동무’ 표현의 일상화, 김일성 부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이외에는 예전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이은영(2002)은 분단 이후의 남북의 언어예절(높임법, 호칭·지칭어)을 남한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통합 방안을 논의한 연구이다. 북한의 언어예절은 역시 주로 <조례>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북한의 언어예절 규범은 언어 형식만 다루지 않고 일상생활의 어떤 장면에서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되는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즉 북한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모든 방면에서의 올바른 언어예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북한 호칭·지칭어 연구, 남북한 호칭·지칭어 비교 연구들을 살펴볼 때 기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 호칭·지칭어 연구 자체가 양적으로 많지 않다. 북한 호칭·지칭어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호칭·지칭 비교 연구는 불가능하므로 북한 호칭·지칭어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호칭·지칭어 연구가 주로 문헌 자료, 그것도 규범서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그마저 1983년에 간행된 북한 규범서 <조례>에 편중되어 있다. 문헌 자료로 최신 규범서, 더 다양한 규범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나 학술잡지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말뭉치, 북한 방언 자료, 북한이탈주민 설문 및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규범이 아닌 언어 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사회생활(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되는 호칭·지칭어를 더욱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무’, ‘동지’, ‘아바이’ 등 남한 주민들에게는 생경한 북한 호칭·지칭어의 의미, 사용 유형, 유형별 용법 차이를 조사해야 한다.

## 2) 남북 높임법

그동안 남북한 높임법 비교는 북한의 높임법을 문법적 체계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권재일(2006:168)에서는 리근영(1985), 김동찬(2002), 정순기·리금일(2001), 정순기(2005)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높임법이 남한 문법과 다른 점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 문법	북한 문법
주체높임법	존경범주
1. 주체높임어미	1. 존칭토
2. 높임의 주격조사	-
3. 주체높임동사	-
4. 높임명사 등	-

객체높임법	(설정하지 않음)
1. 높임의 부사격조사	-
2. 객체높임동사	-
3. 높임명사 등	-
청자높임법	말차림범주
1. 종결어미	1. 계칭도
<6등급>	<6등급>
(설정하지 않음)	겸양(범주)
-	1. 겸양토

한편, 고영근(1993)에서는 북한의 높임법 등급이 ‘계칭’, ‘말차림’ 등으로 어떻게 유형화되어 왔는가를 시기별로 논하고 있으며, 북한의 높임법 등급이 겹으로는 3등급이 되어 남쪽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높임”에는 합쇼체 밖에 ‘요’통합형이 있고 “같음”에는 하오체 밖에 하게체와 ‘요’통합가능형이 있다는 점에서 남쪽과 언어사실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임홍빈(1997)에서는 북한의 문법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중 일부로 북한 문법서에서 ‘존경토’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정재영(1991)에서는 북한의 문법서를 참고하여 북한의 높임법 체계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높임법 체계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앞서 예를 든 연구들 외에도 북한의 높임법을 다룬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대체로 북한의 문법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높임법 체계를 분석한 뒤 이를 남한과 비교한 것이 대중을 이룬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남북의 문법을 체계 측면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언어예절의 관점에서 남북의 높임법 중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예컨대 권재일(2006)에서는 북한 문법서에서 객체 높임법을 문법적 범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객체 높임법을 드러내는 문법적 혹은 어휘적 장치들이 남북에서 어떻게 언어예절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 3) 남북 인사말

국어 인사말에 대한 연구는 인사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로부터 한국어 화자의 인사말 사용 실태를 연구하고 외국의 인사말과 비교,

대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1992)에서는 인사말에 대한 언어예절 규범을 제시하였고, 국립국어원(2011)은 이후 이 내용을 국민 사용 실태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황병순(1999)에서는 국어 인사말을 정의하고 기존 인사말 연구의 세부 분류 내용과 분류 기준을 비판하며 ‘일상의 인사말’, ‘특정 상황의 인사말’의 범주 아래 총 6개의 인사말 종류를 설정, 제시하였다. 또한 인사말의 표현 내용과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국어 인사말의 특성을 밝혔다.

서현석(2009)에서는 인사말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친교의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과, 칭찬, 감사 등을 표하는 말도 인사말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인사말 사용 양상을 설문 조사하여 젊은 세대가 ‘해요체’의 인사말, 명령형의 인사말, 외국어나 전자 통신 언어에서 비롯된 인사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서정수(1998)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의 인사말을 16개의 인사말 범주로 나누어 대조 연구하였다. 인사말 범주별 각 언어의 인사말을 제시하고 가능한 경우 인사말의 유래를 밝혔으며 인사말과 관련한 문화적 요소와 인사말 사용 차이로 인한 오해 가능 요소들도 언급하였다.

문금현(2009)에서는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1991)을 기반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이고 고정적인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인사말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인사 표현이 중국어, 일본어 중 특히 일본어와 비슷한 점이 많으며 영어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밝혔다.

지금까지 국어 인사말 연구는 인사말의 의미와 범주를 정립하고 세부 상황을 설정하는 것, 상황에 따른 전형적인 인사말을 제시하는 것, 한국인의 인사말 사용과 한국어, 외국어 인사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남한어와 북한어의 인사말을 범주별로 체계화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인사말이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한어와 북한어의 인사말을 비교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 인사말이 가진 차이점과 유사점을 앞으로 양자 간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Ⅱ. 가정에서의 남북 호칭·지칭 비교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을 조사한 국립국어연구원(1995)에서는 표준화법, 서울, 평양의 호칭·지칭은 전반적인 지역 차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이가 작은 편이며, 남북 차이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한과 구별되는 북한의 친족 호칭·지칭 특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봉건 잔재 사상을 반영하는 부류<sup>1)</su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방언으로 간주되었던 호칭·지칭<sup>2)</sup>을 문화어로 받아들여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임철성, 1997).

이 장에서는 <표례>의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의 항목을 기준으로 남북 친족 호칭·지칭을 비교하여 기술하겠다. 단, 비교표에서 지칭어가 누락된 항목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생>과 <언생>을 제외한 북한 규범서에서는 지칭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표례>는 지칭어도 누구 앞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별해 제시하고 있으나 <우생>은 ‘남의 어른에게’, ‘남의 앞에서 이를 때는’ 같은 표현으로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어 세세한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 비교표의 남한 지칭어로는 <표례>의 ‘그 밖의 사람에게’에 해당하는 지칭어를 대응시켰다. 또한 <표례>의 일상적으로 접촉 빈도가 낮은 먼 친척 관계는 제외하여 조사하였음을 밝힌다.

---

1) ① ‘숙부’, ‘숙모’ 등 한문 투 호칭·지칭

② ‘서방님’, ‘아가씨’, ‘도련님’ 등 양반과 평민의 계급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호칭·지칭

③ ‘작은댁’,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등 낮은 문화와 관련된 호칭·지칭

2) ‘가시아버지’(장인), ‘가시어머니’(장모), ‘삼촌어머니’(고모) 등

## 1. 부모와 자녀 사이

### 1) 아버지

표 1. 아버지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님
지칭 <sup>3)</sup>	(아들이) 아버지, ○○[자녀] 할아버지,  (딸이) 아버지,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	(남의 어른에게) 저의 아버지, 저의 부친

남한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아빠’이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아버지’를 쓰는 것이 표준이다.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빠’라고 할 수도 있다.

<우례>에 따르면 북한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학교에 다닐 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 자라서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칭을 기술해 놓은 또 다른 규범서 <우생>에는 ‘아버지’, ‘아버님’만이 올라있을 뿐 ‘아빠’는 언급이 없다. 더구나 <우생>에서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꼭 존대해야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 ‘아빠’의 사용 여부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 연령대에서도 ‘아빠’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나 ‘아버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남한에서 ‘아빠’를 늦은 나이까지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3)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남한 지칭어는 <표례>의 ‘그 밖의 사람에게’에 해당하는 지칭어임.



- [3세의 딸이 아빠에게] 아빠, 어디까지 왔나?4) (소설, 그의 소원)
- [아들에게] 생일? 호호...오늘은 아빠도 엄마도 흥철이도 생일이지. 우리 집 생일이란다. (소설, 망부암)
- [4~5세의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달라. (영상, 다시 만납시다)
- [유치원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삼촌 엄마 \*\* 있어?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 [아들이] 아버지 생일이냐? (소설, 망부암)
- [유치원 여자아이가 증조할아버지에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 [엄마가 7~8세의 딸에게] 은순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고 얘기해라.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 2) 어머니

표 2. 어머니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엄마, 어머니님
지칭	(아들이) 어머니, ○○[자녀] 할머니  (딸이) 어머니,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니	(남의 어른에게) 저의 어머니, 저의 모친

남한에서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니’, ‘엄마’이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어머니’를 쓰는 것이 표준이다.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엄마’라고 할 수도 있다.

<우레>에 따르면 북한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엄마’라고 부르고 학교에 다닐 때부터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 자라서는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아빠’와 마찬가지로 <우생>에서는 ‘엄마’는 언급이

4) 본래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큰따옴표를 생략함(이하 동일).

없으며 ‘어머니’, ‘어머님’으로 부르며 꼭 존대해야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아빠’의 경우와 달리 소설과 영상 자료 분석 결과, 탁아소나 유치원 아이들은 ‘엄마’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영상에서는 20대의 딸이 경우에 따라 ‘어머니’와 ‘엄마’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남한과 그 사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대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위와 동일인이] 엄마!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3) 자녀

표 3. 자녀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미혼 자녀)	○○[이름]	○○[이름]
호칭 (기혼 자녀)	아범, ○○[손주]아범, 아비, ○○[손주]아비, 어멈, ○○[외손주]어멈, 어미, ○○[외손주]어미, ○○[이름]	○○[손주]애비/아비, ○○[외손주]에미, ○○[외손주]엄마, ○○[딸이 시집간 지역명] 아이

남한에서 자녀가 혼인하기 전에는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른다. 또는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로 부르거나 직함으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혼인한 후에는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서도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르다가 혼인 후에는 ‘○○[손주] 애비/아비’, ‘○○[외손주] 에미’, ‘○○[외손주] 엄마’, ‘○○[딸이 시집간 지역명] 아이’로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혼인한 딸인 경우 시집 쪽의 주소를 따라 ‘평양 아이’, ‘순천 아이’처럼 부를 수도 있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아범’이나 ‘어멈’은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이라는 계급적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보고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 영철이 애비야! (우레, 49)
- 옥이 아비 어데 갔느냐? (연생, 288)
- 영희 아버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니? (연생, 291)
- 철이 에미야! (우레, 49)
- 남영이 업마야! (우레, 49)
- [시집간 딸을 부를 때] 평성 아이, 순천 아이 (연생, 289)

##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남한은 시아버지를 부르는 경우 ‘아버지’는 허용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경우만 ‘어머니’가 가능하다. 반면 북한에서는 시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 모두 허용한다. 즉, 규범상으로는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에서만 남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소설과 영상에서는 시아버지를 ‘아버님’라고 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 1) 시아버지

표 4.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지칭	시아버님, 시아버지,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	시아버지, 시아버님, 아버님

남한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해 왔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이다. <우레>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며느리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여 규범에서 ‘아버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는 ‘아버님’을 쓰는 경우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아버님, 전화 받습니다. (영상, 자기를 바치라)
- 아버님이랑 오셨됐어요. 어머니랑 같이. (영상, 소원)
- [여자가 남편 될 사람(리석 동지)에게 시택에 갔다 온 얘기를 전하는 상황]  
하지만 리석 동지의 집에 들러 영예군인인 아버님의 얘기랑 들으면서…….  
(영상, 먼 산의 노을)

## 2) 시어머니

표 5.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어머님,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지칭	시어머님, 시어머니,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님	시어머니, 어머니 <sup>5)</sup>

남한에서는 시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님’과 ‘어머니’를 다 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으로 사용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례>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며느리가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여 규범에서 ‘어머니’를 허용하고 있다. 남북이 모두 시어머니 호칭으로 ‘어머니’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지칭어에서도 <언생>에서는 ‘어머니’를 허용하고 있었다.

- 아버님이랑 오셨됐어요. 어머니랑 같이. (영상, 소원)

## 3) 며느리

표 6. 며느리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어멈, ○○[손주]어멈, 어미, ○○[손주]어미, 아가, 새아가	애, 며늘애, (일부 지방) 새애기

5) <언생>에서만 지칭어로 ‘어머니’가 올라 있다.

지칭	며느리, 새아기	○○[이름], 며늘아기(영상),  (아들에게) 네 처(영상)
----	----------	---

남한에서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가’, ‘새아가’가 표준이다. 당사자의 남편인 아들에게는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네 닻’, ‘네 처’ 등을 쓴다.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며느리’, ‘새아기’로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며느리를 ‘애’, ‘며늘애’라고 부르며 일부 지방에서는 ‘새애기’라고도 한다. 남한에서처럼 ‘어멈’이나 ‘어미’로 부른다는 언급은 없다.

- 괜찮다. 이런 심부름이야 네 처가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니? (영상, 사랑의 거리)
-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서라, 며늘아기 생 이발 빠질라. 산모 이발이라는 게 돌렁 팔죽에 놀 듯하느니라.” (소설, 풋강냉이)

###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 1) 처부모에 대한 호칭·지칭

표 7. 장인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아버지 <sup>6)</sup>
지칭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장인, 가시아버지

표 8. 장모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장모님, 어머니	장모님, 어머니, 어머니 <sup>7)</sup>
지칭	장모, 장모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머님	장모, 가시어머니

남한에서 처부모 호칭은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으나 <표례>에 따르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칙이되 ‘아버님’, ‘어머님’도 허용한다. 단,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북한은 규범서 간에 불일치를 보인다. <우생>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부르는데 일부 지방에서처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으나 <언생>에는 ‘아버지’, ‘아버님’, ‘어머니’, ‘어머님’만 올라있다.

남한에서는 처부모를 부르는 호칭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허용되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남 앞에서 처부모를 가리킬 때 북한에서는 ‘장인’, ‘장모’와 함께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도 사용한다.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는 장인의 호칭으로 ‘아버님’만 관찰되었으며 장인을 아내 앞에서 가리킬 때 ‘동무 아버님’의 형태도 사용하고 있었다.

- [사위가 장인에게] 아니, 아버님, 아, 이거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영상, 비가 맞은 뒤)
- [장인이 될 분에게]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상, 새 령마루에로)
- [남편이 아내에게] 동무 아버님은 그래도 이름난 원사 선생님인데 사는 건 왜 그렇소? 너무 소박하더구만. (소설, 지워지지 않는 글)
- 장인이 사위 생각을 하누만.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남편이 아내에게] 햇감자랑 좀 넣었으니 어머님께 대접하오. (영상, 먼 산의 노을)
- 자녀 장모가 날더러 돌아오는 길에 이걸 꼭 전하라고 해서. (영상, 비가 맞은 뒤)

6) <우생>에서는 일부 지방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다.

7) <우생>에서는 일부 지방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다.

## 2) 사위

표 9. 사위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버지, 여보게	이 사람, 자네, 임자, ○○[외손주] 애비

남한에서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도 세대 간, 지역 간의 차이가 크나 <표례>에 따르면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버지’, ‘여보게’이다. 북한에서는 ‘이 사람’, ‘자네’, ‘임자’, ‘○○[외손주] 애비’와 같은 말들이 쓰인다. ‘서방’은 봉건시대의 잔재로 간주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노년의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인 ‘임자’가 북한에서는 사위를 부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남한과 차이나는 ‘임자’의 용법은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 이 사람, 자네, 임자, 창호 애비 (언생, 296)

## 4.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표 10.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일반적	여보	여보
	신혼 초	○○씨	○○[이름] 동무 ○[성] 동무
	아이가 있을 때	여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여보, ○○[자녀] 아버지
	장년과	영감,	여보, 령감

	노년	○○[자녀] 아버지, ○○[손주, 외손주]할아버지	
지칭		(아는 사람에게)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	남편, 주인, 세대주, 서방(영상), 애기 아버지, ○○[자녀] 아버지, 령감

표 11.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일반적	여보, ○○[자녀]엄마, 임자, ○○[손주, 외손주]할머니	여보
	신혼 초	○○씨	○○[이름], ○[성] 동무, ○○[이름] 동무
	아이가 있을 때	여보, ○○[자녀] 엄마	여보, ○○[자녀] 어머니
	장년과 노년	여보, ○○[자녀] 엄마, 임자, ○○[손주, 외손주] 할머니	여보, 로친네 ○○[자녀] 어머니, ○○[자녀] 할머니
지칭	(아는 사람에게)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모르는 사람에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애 어머니, 애 엄마	집사람, 안사람, 안해, 처(영상), 애기 어머니, ○○[자녀] 어머니, 로친네, 로친, 임자	



결혼하자마자 ‘여보’나 ‘임자’와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이 어색하기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 씨’ 또는 ‘자기야’ 같은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에 ‘동무’를 붙여 부른다. 소설에서는 노년 부부 사이에서도 ‘동무’를 사용하는 예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레>에 따르면 시부모와 같이 있을 때 부부 간에 ‘동무’로 부르는 것은 교양이 없는 것이므로 대신 ‘이봐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요’ 등 간접적인 부름말을 쓰도록 권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학교, 직장, 공공생활 등 사회적 관계에서는 ‘동무’, ‘동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점과 대비된다.

-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명훈 동무! 이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보구 좋아하실까요?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철석 동지, 또 있어요. (영상, 내 고향의 바다)
- [젊은 남편이 아내에게] 동무가 제기한 그 문제 때문에 강삼 분조장 꼴이 뭐가 됐는지 알기나 아오? (영상, 분조의 주인)
- [노년의 남편이 아내에게] 됐소. 순화 동무,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소설, 비결)

노년 부부의 경우에도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령감’, ‘로친네’라고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지칭어로 ‘로친’의 형태도 나타났다. 남한에서 노년 부부 사이에 ‘영감’, ‘임자’라고 부르는 것과 대응된다.

- [노년의 남편이 아내에게] 로친네, 잡생각 말고 참외나 반소.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철송이 녀석 떡 좋아한다고 로친네가 밤새껏 빚은 거다. (영상, 소원)
- 참, 집의 로친이 자네 소리를 계속 하는데 윤경이 애미랑 같이 짬을 내서 들리라우. (영상, 자기를 바치라)
- [노년의 남편이 아내에게] 로친이 이삿짐을 꾸리는데 앞장섰소? (영상, 금진강)
- 들러 보지 않구. 로친이 가재미식혜를 보내더구만. 설아가 가지구 올 거요. (소설, 빛나는 길 진군길)

또한 자녀 이름을 빌어 부부끼리 부르거나 이를 때 남한에서는 ‘○○[자녀] 아빠/엄마’나 ‘○○[자녀] 아버지/어머니’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자녀] 아버지/어머니’만을 사용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남편을 남에게 이를 때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주인’, ‘세대주’를 사용하기도 한다.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 ‘세대주’는 남편의 지칭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으며, 규범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서방’을 쓰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 아주머니, 주인이 누구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까? (소설, 이상한 목소리)
- 봄순 동무, 우리 세대주야. (영상, 소원)
- 젊은 사람이 참 무던해요. 글썄 그 집의 웬만한 빨래는 세대주가 다 하군 한다오. (소설, 행복의 무게)
- 아니, 이번엔 서방까지 데려왔나? (영상, 설 풍경)

북한 규범서에서는 아내를 이름 또는 ‘여’하고 부르거나 지칭으로 ‘녀편네’, ‘우리 치’, ‘안사람’, ‘○○[자녀] 어미’, ‘○○[자녀] 할미’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용례는 이와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계몽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에서 나온 발화들이다.

- 거 우리 치, 노래 괜찮게 합니다. (영상, 생활의 거울: 선미 어머니)
- [순애는 아내 이름임] 순애! 순애! (영상, 생활의 거울: 선미 어머니)
- [아내를 부르며] 여, 내 늘 말하던 \*\*\*\*\*야. (영상, 생활의 거울: 선미 어머니)

덧붙여 부부 사이에서 쓰이는 ‘여보’와 ‘임자’가 북한에서는 다른 관계에서도 사용된다. 먼저 <연생>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보’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남끼리, 사회생활에서 남자들끼리 주고받는 말에서도 쓰일 정도로 일반성을 띠고 두루 쓰일 수 있는 호칭이다. 소설과 영상에서도 ‘여보’는 중년 이상의 남자들 사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 [60대 남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응, 여보, 드디어 난 결심을 내렸소. (영상, 새로운 처녀 인수원)
- [중, 장년의 남자가 중년인 하급에게] 여보,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영상, 자기를 바치라)
- [지배인이 기사장에게] 여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영상, 길을 비켜라)

또한 북한에서 ‘임자’는 노년의 아내에 대해서만 쓰이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도 널리 쓰이고 있다.

- [중년 여자가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아니, 입자들은 왜 또 그러나? (영상, 다시 만남시다)
- [노인이 청년에게] 입자, 그 말부터 먼저 했어야지. (영상, 설 풍경)
- [중년 여자가 청년에게] 입자를 보니 우리 철명이 생각이 더 나누만. (소설, 비결)

## 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 1) 남자의 동기: 형과 그 배우자

표 12. 형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형, 형님	형, 형님(나이 차이가 많을 때)
지칭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저의 형

남한에서 형을 부르는 말은 ‘형’, ‘형님’이다. ‘형님’은 장년층 이상에서 주로 사용되며 젊은 층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북한 규범서에서 ‘형님’은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 [젊은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형에게, 모두 기혼임]  
형님, 뭘 해요? (영상, 행복은 어디에)

표 13.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조카] 어머니
지칭	형수님, ○○[자녀] 큰어머니	우리 아주머니, 우리 형수

남한에서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이다. 북한에서는 형의 아내를 ‘형수’, ‘형수님’, ‘아주머니’, ‘아주머님’이라고 부른다. ‘형수’라고 할 때에는 ‘하오체’를 쓰지만 ‘형수님’이라고 할 때는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님’이 붙지 않은 ‘형수’가 사용되는 것이 남한과 다르다.

- 아주머니, 형님 어디 갔어요? (언생, 300)
- 아주머님, 래일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언생, 300)
- 형수님, 이걸 좀 봐 줘요. (언생, 300)

## 2) 남자의 동기: 남동생과 그 배우자

표 14. 남동생에 대한 호칭·지칭-남자

	남	북
호칭	○○[이름], 아우, 동생	○○[이름], 동생
지칭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내(저의) 동생

남한에서 남동생에 대한 호칭은 ‘○○[이름]’, ‘아우’, ‘동생’이다. 늙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이다. 북한에서도 보통 동생의 이름을 부르다가 장가간 후에 ‘동생’으로 부른다.

표 15.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남자

	남	북
호칭	제수씨, 계수씨	제수, 제수님, ○○[조카] 어머니, 아주머니
지칭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우리 아주머니, 우리 제수(계수)

남한에서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제수씨’, ‘계수씨’이다. <우생>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제수’, ‘제수님’, ‘아주머니’로 부른다. ‘제수님’은 점잖게 부를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씨’를 덧붙이지 않는 ‘제수’ 또는 ‘계수’의 사용과 ‘제수님’의 사용이 특이하다.

○ 아니, 제수, 왜 거기 서 있소? (영상, 행복은 어디에)

### 3) 남자의 동기: 누나와 그 배우자

표 16. 누나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누나, 누님	누나 <sup>8)</sup> , 누이, 누님,
지칭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누나, 누이(영상)

남한에서 누나를 부르는 말은 ‘누나’, ‘누님’이다. ‘누이’는 호칭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여동생과 누나를 모두 아우르는 지칭어로서 ‘누나’, ‘누님’ 대신 쓸 수 있다.

북한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 성인인 경우 ‘누이’가 누나의 호칭으로, 지칭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1995)에서 북한에서는 ‘누님’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규범과 영상에서 그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누이’처럼 성인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우생>에서는 ‘누나’를 어린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누나]

- 누나, 나 대학에 붙었어. (우레, 58)
- [20대 청년이] 누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영상, 미결건은 없다)
- [남자 중학생이] 도대체 은희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영상, 저 하늘의 연)

[누님]

- 누님, 언제 왔어요? (언생, 294)

8) <우생>에서 ‘누나’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 [20대~30대의 남동생이 누나에게] 누이, 뭘 생각해요? 누님, 생각나요? (영상, 설 풍경)
- [60대 과장이 공장 여지배인에게] 야, 그럼 30키로라도! 이야, 정말, 누님!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누이]

- 누이, 나 직장에 가겠어요. (연생, 294)
- 누이, 나 학교 갈래. (연생, 294)
- [성인 남성이 누나에게] 누이, 내 생각도 그래요. (영상, 구봉령 일가)
- [중년 남성이 누나에게] 누인 잘 있었소?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 아주머니가 우리 누이 결혼식에 어떻게……. (영상, 해빛 밝아라 2부)
- 우범아, 눈을 뜨거라. 어서. 누이가 왔다 응. 어서, 눈을 떠야 살아. (소설, 누이의 목소리)

표 17.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매형, 자형, 매부	형님, 매형, 매부 <sup>9)</sup>
지칭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우리 매형, 우리 자형

남한에서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매형’, ‘자형’, ‘매부’이다. 북한에서는 ‘형님’, ‘매형’, ‘매부’로 부른다. <우생>에서는 ‘매부’란 말은 손위나 손아래 매부를 두루 이르는 말이기 하나 주로 손아래 매부를 말하기 때문에 ‘매형’ 대신 ‘매부’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한 말이 못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에 ‘매부’는 손위 누이나 누이동생의 남편을 누이나 여동생이 이르는 말로 올라 있고, 영상 자료에서도 누나의 남편을 ‘매부’로 부르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손위 매부를 일컫는 말로 ‘매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누이, 매부를 대신해서 내가 차렸습니다. (영상, 설 풍경)
- 매부: 여보게, 처남!  
처남: 아니, 매부, 웬일이예요?  
매부: 자네 누이가 없어졌네. (영상, 설 풍경)
- [남동생이 누나에게] 매부가 이 집 사람이요?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9) <우생>에서는 ‘매부’란 말은 주로 손아래 매부를 말하기 때문에 적합한 말이 못된다고 보았다.

#### 4) 남자의 동기: 여동생과 그 배우자

표 18. 여동생에 대한 호칭-남자

	남	북
호칭	○○[이름], 동생	○○[이름], ○○[조카] 어머니, ○○[자녀] 고모

남한에서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이 되어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우생>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시집을 가기 전까지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나 시집을 가서 가정의 주부가 되고 일정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 다음에는 대접해서 ‘복실이 어머니’, ‘영복이 고모’ 등으로 부르면 무난하다.

표 19.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남자

	남	북
호칭	○ 서방, 매부, 매제	매부, ○○[이름]
지칭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우리 매부

남한에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매부’, ‘매제’이다. 북한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을 ‘매부’ 또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봉건 사회의 잔재라고 보아 ‘서방’이 들어간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 5) 여자의 동기: 오빠와 그 배우자

표 20. 오빠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남	북
호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정중히 이룰 때)
지칭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남북에서 오빠를 부르는 말은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으로 같다.

표 21.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남	북
호칭	언니, 새언니	형님, 오레미(지방)
지칭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	우리 형님

남한에서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 ‘언니’이다. 오빠의 아내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는 오빠의 아내를 일반적으로 ‘형님’으로 부른다. <우레>에서는 지방에 따라 ‘오레미’<sup>10)</sup>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 형님, 옷이 멋있군요. 오빠가 좋아하겠어요. (연생, 301)
- 형님, 나하고 친하자요. (영상, 행복은 어디에)
- 나도 그래요. 도대체 형님이 어떤 여자길래. (영상, 손주 떠느리 오는 날)
- 오빠랑 형님은 잘 있어요? 보영이도.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6) 여자의 동기: 남동생과 그 배우자

표 22. 남동생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남	북
호칭	○○[이름], 동생	○○[이름], ○○[자녀] 아버지, ○○[자녀] 애비, 삼촌
지칭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남동생, 우리 오라비, 오라범(성인)

10) ‘올레미’가 어음 변화된 것으로, <우생>에서 오빠의 아내는 ‘형님’, 남동생의 아내는 ‘오레미’로 구별해 부른다고 되어 있으나 <조선말대사전>과 다른 규범서에 따르면 ‘오레미’는 ‘올케’처럼 형님의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한에서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인 남동생에 대한 호칭이다. 북한에서도 이름을 부르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 애비’라고 부를 수도 있다.

표 23.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여자

	남	북
호칭	올케	올케, 오레미, ○○[이름], ○○[조카] 엄마
지칭	올케, ○○[자녀] 외숙모	우리 오레미, 우리 형님

남한에서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올케’이다. ‘○○[자녀]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 규범서는 서로 다른 기술을 보이는데 <우레>에서는 이름 또는 ‘○○ 엄마’로, <언생>에서는 ‘올케’ 또는 ‘○○ 엄마’로, <우생>에서는 ‘오레미’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인 호칭이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올케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거나 <포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 엄마’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규범상 차이를 보인다.

- 복실이가 가져갔어. (우레, 59)
- 영애 엄마가 가져갔어. (우레, 59)
- 성철 엄마, 이걸 성철이에게 입혀보게. 맞겠는지. (언생, 301)

## 7) 여자의 동기: 언니와 그 배우자

표 24.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형부	아저씨, 형부님
지칭	형부, ○○[자녀] 이모부	저의(우리) 아저씨, 저의(우리) 형부

언니를 부르는 말은 ‘언니’로 남북이 같다.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남한에서는 ‘형부’인데, 북한 규범은 ‘아저씨’ 또는 ‘형부님’이다. <우레>와 <언생> 모두 ‘아저씨’가, <우생>에서는 ‘아저씨’와 함께 ‘형부님’이 올라 있다. <조선말대사전>에도 ‘아저씨’가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도 뜻풀이되어 있다.

- 그럼 아저씨 훈장을 달고 나간단 말이에요, 오마나! (영상, 먼 산의 노을)
- [조카에게 형부를 지칭하면서] 아니, 아저씨가 널 그렇게 했던 말이나? (영상, 아지미)

## 8) 여자의 동기: 여동생과 그 배우자

표 25. 여동생에 대한 호칭-여자

	남	북
호칭	○○[이름], 동생	○○[이름]

남한에서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예문으로 볼 때 북한에서도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 영희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렴. (언생, 294)
- 금순아, 이걸 아버지 갖다드려라. 조심히 들어. (언생, 294)

표 26.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여자

	남	북
호칭	○ 서방, 제부	○○[자녀] 이모부, ○○[조카] 아버지

남한에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제부’이다. ‘○ 서방’이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부’로 부른다. 북한에서는 여동생 남편을 부르는 별도의 호칭은 없으며,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붙여 ‘영수 이모부’라고 부르거나 조카 이름을 붙여 ‘형일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봉건 사회의 잔재라고 보아 ‘서방’이 들어간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 1) 남편의 형

표 27.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아주버님	아주버니, 아주버님, (○○[자녀])큰아버지, (○○[자녀]) 큰아버님
지칭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시형,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남한에서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은 ‘아주버님’이다. 북한의 호칭은 ‘아주버니’, ‘아주버님’으로서 ‘아주버니’의 형태가 허용되는 것이 남한과 다르며, 자녀 입장에서 호칭인 ‘큰아버지’, ‘큰아버님’도 사용된다. 지칭어로 ‘시아주버니’와 함께 ‘시형’도 사용된다.

- 아주버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연생, 300)
- 영철이 큰아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생, 300)
- 큰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집안이 다 무고하십니까? (연생, 300)

### 2) 남편 형의 아내

표 28. 남편의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형님	형, 형님, ○○[조카] 어머니

남한에서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호칭하고 존댓말을 썼다. 북한에서는 ‘형’,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조카 이름을 붙여 ‘○○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 <언생>의 두 부분에서 남편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한 곳에서는 '형님'이, 다른 곳에서는 '형'과 '형님'이 올라 있다. '형'이라고도 부르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녀자 동서들 사이에서도 '형님', '동생'이라는 부름말을 쓰며, '영수 어머니', '영희 어머니'라고 그 아들 딸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웃동서에게는 높이는 말을 쓴다. (언생, 302)

시형의 안해에 대해서는 '형', '형님'이라고 부른다. (언생, 306)

### 3) 남편의 아우

표 29. 남편의 아우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미혼일 때) 도련님 (기혼일 때) 서방님	적은이, ○○[자녀] 삼촌
지칭	시동생, (미혼일 때) 도련님, (기혼일 때) 서방님, ○○[자녀]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시동생, 적은이(영상) ○○[자녀] 삼촌

남한에서 남편의 아우, 곧 시동생이 미혼일 때 호칭은 '도련님'이다. 흔히 남편의 아우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인 직접 호칭이 있을 때는 자녀에 기대어 호칭하는 '삼촌, 고모, 큰엄마……' 등과 같은 호칭은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기혼일 때는 '서방님'으로 호칭한다. 북한에서 형수는 시동생에게 '적은이'라고 하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여 '영철이 삼촌', '영순이 삼촌'으로 부른다. 남한에서 쓰지 않는 '적은이'<sup>11)</sup>라는 호칭이 특이하며 남한 규범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기댄 호칭이 허용되고 있다.

11) 적은이: 1. 《친척관계에서 시동생별이 되는 사람 또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나이가 아래인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 2. 남자어른들 속에서 《남동생》을 가리켜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

- 적은이, 이걸 좀 봐 줘요. (언생, 300)
-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묘목도 가져오고 적은이네 새 집도 짓고…….  
(영상, 구봉령 일가)
- 영순이 삼촌,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언생, 300)

#### 4) 남편 아우의 아내

표 30. 남편 아우의 아내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동서	동서, 동생, 아우, ○○[조카] 어머니

남한에서 남편 아우, 곧 시동생의 아내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인 ‘동서’를 호칭으로 한다. ‘여보게’, ‘○○[자녀] 엄마’도 널리 쓰이는 호칭이긴 하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 적절하지 않다.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는 ‘동서’라고 호칭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에 맞다. 북한에서는 ‘동서’, ‘동생’, ‘아우’를 쓰며 ‘영수 어머니’, ‘영희 어머니’와 같이 조카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언생>의 두 부분에서 남편 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한 곳에서는 ‘동생’이, 다른 곳에서는 ‘동서’와 ‘아우’가 올라 있다.

녀자 동서들 사이에서도 ‘형남’, ‘동생’이라는 부름말을 쓰며, ‘영수 어머니’, ‘영희 어머니’라고 그 아들 딸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웃동서에게는 높이는 말을 쓴다.  
(언생, 302)

시동생의 안해에 대하여서는 ‘동서’, ‘아우’라고 부른다. (언생, 306)

‘동생’, ‘아우’처럼 친동기간에 쓰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점, 남한 규범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조카 이름을 기댄 호칭을 허용한다는 점이 남한과 다르다.

### 5) 남편의 누나

표 31.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형님	형님, 누이 ○○[자녀] 고모
지칭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	시누이, 누이(영상)

남한에서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북한에서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순위, 손아래를 구별하지 않고 ‘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붙여 ‘광명이 고모’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

- 형님, 이번 일요일엔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언생, 301)
- [남편의 누나에 대해 말하며] 에이, 난 누이 보기 피로워서 빨리 우리 담당구역에 새 집을 짓고 나오자는 거예요. (영상, 구봉령 일가)

### 6) 남편의 여동생

표 32.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아가씨, 아기씨	누이, 동생, ○○[자녀] 고모, ○○[조카] 엄마, ○○[조카] 어머니
지칭	시누이, 아가씨, 아기씨, ○○[자녀] 고모	시누이, 누이, 동생, ○○[자녀] 고모

남한에서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은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여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호칭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에서는 ‘누이’, ‘동생’을 사용하는데,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붙여 ‘광명이 고모’라고 하거나 조카의 이름을 붙여 ‘광수 엄마’, ‘광수 어머니’와 같이 부르기도 한다. ‘아가씨’, ‘아기씨’도 ‘서방’과 마찬가지로 봉건 사회의 잔재라고 보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시누이: 이야, 우리 형님이 제일이야.  
 올케: 누이두……. (영상, 자기를 바치라)
- 누이, 이젠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 세수해요. (영상, 행복은 어디에)
- [시누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아니, 누이가 아니에요? (영상, 구봉령 일가)

## 7) 시누이의 남편

표 33.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남편 누나의 남편) 아주버님  (남편 여동생의 남편) 서방님	아재, 아저씨, ○○[자녀] 고모아저씨, ○○[자녀] 고모부, ○[성] 선생

남한에서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아주버님’이다. 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서방님’이다. <표레>에서 ‘○○[자녀] 고모부님’은 간접호칭이므로 좋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우생>에 따르면 시누이의 남편을 ‘아재’ 혹은 ‘아저씨’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옥희 고모아저씨’, ‘고모부’라고 간접적으로 부르는 것도 무난한 말로 본다.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라면 ‘김 선생’, ‘전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 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 1) 아내의 남자 동기

표 34.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

	아내 오빠		아내 남동생	
	남	북	남	북
호칭	형님, 처남	형님, 처남	처남	○○[이름], 처남, ○○[조카] 아버지, ○○[자녀] 삼촌, 형님 (처남의 나이가 위인 경우)

남한에서 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은 ‘처남’이다. 그러나 현실을 존중하여 ‘형님’이라 하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아내 오빠를 부를 때 ‘형님’(<연생>) 또는 ‘처남’(<우생>)을 쓴다. <우생>에서는 ‘형’, ‘형님’은 쓰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어 규범서 간에 차이를 보인다. 남북 모두 아내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처남’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아내의 남동생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북한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2)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

표 35. 아내의 남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

	아내 오빠의 아내		아내 남동생의 아내	
	남	북	남	북
호칭	아주머니	아주머니	처남의 닻, 처남댁	아주머니
지칭	처남의 닻, 처남댁, ○○[자녀] 외숙모	처남댁, ○○[자녀] 외숙모	처남의 닻, 처남댁, ○○[자녀] 외숙모	처남댁, ○○[자녀] 외숙모

남북한 모두 아내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이다. ‘처남의 닻’이라는 말은 낮추어 말하는 느낌이 있어 아내 오빠의 아내에게 ‘처남의 닻’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남한에서는 ‘처남의 닻’ 또는 ‘처남댁’이나 북한에서는 ‘아주머니’로 차이가 있다.

### 3) 아내의 여자 동기

표 36. 아내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

	아내 언니		아내 여동생	
	남	북	남	북
호칭	처형	아주머니 ○○[자녀] 큰어머니, ○○[자녀] 이모, 큰어머니, 이모	처제	○○[이름], ○○[조카] 엄마, ○○[조카] 어머니, ○○[자녀] 이모



남한에서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이다. 북한에서는 아내의 언니를 따로 부르는 말이 없으나 항렬을 따라 ‘아주머니’라 부를 수 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여 ‘철호 큰어머니’, ‘영희 이모’라는 부름말을 쓰며 그냥 ‘큰어머니’, ‘이모’라는 부름말을 쓸 수도 있다. 남한에서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르는 ‘큰어머니’를 ‘처형’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점은 남북 주민 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남한에서 아내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처제’이다. 북한에서 처제는 이름을 부르거나 아이가 있을 때에는 아이 이름을 붙여 ‘영희 어머니’ 식으로 부를 수 있다.

#### 4)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

표 37. 아내의 여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아내 언니의 남편		아내 여동생의 남편	
	남	북	남	북
호칭	형님, 동서	형님 <sup>12)</sup> , ○○[조카] 아버지, ○○[자녀] 이모부	동서, ○ 서방	동생 <sup>13)</sup> ○○[조카] 아버지, ○○[자녀] 이모부

남한에서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으로 부르는데, 나이가 적으면 ‘동서’로 부른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전통적으로 불리 오던 대로 ‘동서’ 또는 ‘○ 서방’이다. 북한은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규범서 간 불일치를 보인다. <언생>에서는 남자 동서들 사이에서는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철이 아버지’, ‘성희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생>에서는 ‘형님’, ‘동생’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빌린 간접 호칭만을 쓴다고 되어 있다.

12) <우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13) <우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8.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하여

표 38.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조부모		외조부모	
	남	북	남	북
호칭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머니, 할머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외할머니, 외할머님

남한에서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할머니’이다. 또 어머니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외할아버지’이고, 어머니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외할머니’이다. 어머니의 부모를 아버지의 부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부모를 호칭할 때에 ‘외-’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북한 규범에서는 ‘할아버님’, ‘할머님’같이 ‘님’이 들어간 호칭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부를 때 ‘외-’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

## 9. 숙질 사이

### 1) 아버지의 형

표 39.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큰아버지, 큰아버님	큰아버지, 큰아버님, 백부, 백부님
지칭	큰아버지 백부[아버지 만형만]	큰아버지, 큰아버님

남한에서 아버지의 형을 부르는 말은 ‘큰아버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 맏형만을 ‘큰아버지’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이다. ‘큰아버님’은 친조카는 사용하지 않으며 조카며느리가 남편의 큰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한다. ‘백부’는 지칭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북한에서는 ‘큰아버지’, ‘큰아버님’과 함께 ‘백부’와 ‘백부님’도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4)</sup>.

## 2) 아버지 형의 아내

표 40.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머님

남한에서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큰어머니’이다. 조카며느리는 남편의 큰어머니를 ‘큰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백모’는 지칭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북한에서도 ‘큰어머니’, ‘큰어머님’이라고 부른다<sup>15)</sup>.

## 3) 아버지의 남동생

표 41.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삼촌, 숙부, 숙부님

남한에서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아버지의 남동생이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관계없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이다. 북한에서는 작은아버지를

14) <우생>에서는 북한 일부 지방에서 할아버지를 ‘큰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의 형은 ‘맏아베’라고 하는데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규범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15) <우생>에서는 북한 일부 지방에서 큰어머니를 ‘맏아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호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삼촌’, ‘숙부’, ‘숙부님’이라고 부른다. 남한에서는 지칭으로만 쓰이는 ‘숙부’, ‘숙부님’을 호칭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4)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표 42.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 숙모, 숙모님, 삼촌어머니, 삼촌 엄마(영상)

남한에서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작은어머니’이다. 북한에서는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 ‘숙모’, ‘숙모님’, ‘삼촌어머니’라고 부른다. 영상을 통해 볼 때 ‘삼촌엄마’로 부르기도 한다.

- [유치원 여자아이가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삼촌엄마’라고 이름] 증조할머니, 삼촌엄마 신발 내가 벗겨줄래요.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 삼촌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영상, 햇빛 밝아라 2부)
- 헌데 삼촌어머니, 저 돼지가 왜 저럴까요? (영상, 햇빛 밝아라 2부)
- 삼촌어머니 돌아간 지도 3년이 됐는데 이젠 새어머니 모셔올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영상, 길을 비켜라)

#### 5) 아버지의 누이

남한에서 아버지의 누이를 부르는 말은 ‘고모’, ‘아주머니’이다. 북한에서는 ‘고모’, ‘고모님’이라고 부른다. <우생>에서는 ‘고모어머니’, ‘아주머니’도 제시되어 있다.

표 43. 아버지 누이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고모, 아주머니	고모, 고모님, 아주머니, 고모어머니

## 6) 아버지 누이의 남편

표 44. 아버지 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고모부, 아저씨	고모부, 고모부님 아저씨, 고모아저씨

남한에서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고모부’, ‘아저씨’이다. 북한에서는 ‘고모부’, ‘고모부님’이라고 부른다. <우생>에서는 ‘고모아저씨’도 제시되어 있다.

## 7) 어머니의 자매

표 45. 어머니의 자매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이모, 아주머니	이모, (출가한 다음) 이모어머니, 아주머니

남한에서 어머니의 자매를 부르는 말은 ‘이모’, ‘아주머니’이다. 북한에서는 ‘이모’라고 부르며 출가한 다음에는 ‘이모어머니<sup>16)</sup>’, ‘아주머니’라고도 부른다.

## 8) 어머니 자매의 남편

표 46. 어머니 자매의 남편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이모부, 아저씨	이모부, 이모아저씨

남한에서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이모부’, ‘아저씨’이다. 북한에서는 ‘이모부’, ‘이모아저씨’라고 부른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이모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이모아저씨’가 아닌 ‘이모아버지<sup>17)</sup>’가 올라 있다.

16) 이모어머니: 《결혼한 이모》를 높여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

## 9) 어머니의 남자 형제

표 47.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외삼촌, 아저씨	외삼촌, 아저씨, 외숙부

남한에서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르는 말은 ‘외삼촌’, ‘아저씨’이다. 북한에서는 ‘외삼촌’, ‘아저씨’, ‘외숙부’라고 부른다.

## 10)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

표 48.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외숙모, 아주머니	외숙모님, 아주머니, 아주머님,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남한에서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외숙모’, ‘아주머니’이다. 이에 대해 북한 규범서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언생>에서는 ‘외숙모님’, ‘큰어머님’, ‘작은어머님’으로, <우생>에서는 ‘아주머니’, ‘아주머님’을 쓴다고 되어 있다. 남한에서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부르는 ‘큰어머님’, ‘작은어머님’을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게도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17) 이모아버지: 이모부를 높여 이르는 말 || 이모아버지와 고모아버지 (<조선말대사전>)

## 10. 사촌에 대하여

표 49. 아버지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형님, 형, 오빠, 4촌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누님, 누이, 4촌누이, 언니, 동생, 아우

표 50. 어머니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형님, 형, 누님, 누이, 오빠, 오라버님, 동생, 아우

사촌을 부를 때 남한에서는 친형제 사이의 호칭을 그대로 쓰거나 ‘○○[이름] 오빠’처럼 이름에 형제 호칭을 붙여 부른다. 북한에서는 호칭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사촌 누나의 경우 ‘누나’, ‘누님’을 사용하나 북한에서는 ‘누이’, ‘누님’을 사용한다. 동갑이나 손아래 사촌일 경우 남한에서는 이름을 부르나 북한에서는 ‘동생’, ‘아우’를 사용한다.

## 11. 사돈 사이

### 1) 자녀 배우자의 부모

표 51.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호칭	사돈어른, 사돈	사돈님, 바깥사돈, 바깥사돈님	사부인	안사돈, 안사돈님	사돈어른, 밭사돈	사돈님, 바깥사돈, 바깥사돈님	사부인, 사돈	안사돈, 안사돈님

남한에서는 내가 아버지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는 ‘사돈어른’, ‘사돈’,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부인’으로 부른다. 내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는 ‘사돈어른’, ‘밭사돈’,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부인’, ‘사돈’으로 부른다. 북한에서는 보통 부를 때는 남녀 통틀어서 ‘사돈님’이라고 부른다. 구별해 부를 때는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는 ‘바깥사돈’, ‘바깥사돈님’,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는 ‘안사돈’, ‘안사돈님’으로 부른다.

- 사돈님, 애들이 오늘을 영원히 추억할 수 있게 만경대 생가를 찾아보게 할까 합니다. (영상, 구봉령 일가)
- 아이고, 사돈님들! (영상, 행복은 어디에)

### 2)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

표 52.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남자		여자	
	남	북	남	북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이[자녀] 삼촌, ○○이[자녀] 외삼촌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이[자녀] 이모, ○○이[자녀] 고모



남한에서는 남자인 경우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여자인 경우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로 부른다. 북한에서는 ‘사돈’을 쓰지 않고 자녀의 이름을 빌려 남자의 경우 ‘○○이[자녀] 삼촌’, ‘○○이[자녀] 외삼촌’, 여자인 경우 ‘○○이[자녀] 이모’, ‘○○이[자녀] 고모’로 부른다.

### 3) 동기 배우자의 부모

표 53.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남	북
호칭	사장어른	사돈아버지, 사돈어머니, ○○[자녀]할아버지, ○○[자녀] 할머니

남한에서는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율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른다. 북한에서는 ‘사돈아버지’, ‘사돈어머니’로 구별해 부르거나 자녀 이름을 빌려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머니’로 부른다.

- [누나의 시어머니에게] 사돈어머니, 요새 앓지 않았습니까?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 Ⅲ. 사회에서의 남북 호칭·지칭 비교

친족 관계에서의 호칭과 지칭은 남북이 아직까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의도적인 ‘동무’, ‘동지’ 사용 권장이 그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남북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 및 주민 통제의 목적으로 전 주민이 조직생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 따라 소년단, 노동당, 청년동맹, 여맹, 직맹, 농근맹 등에 소속되어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 등의 조직 활동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생활이란 ‘직장생활’과 ‘조직생활’을 같이 가리키는 개념이다. 조직생활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직장처럼 공적인 성격이 우선되지만 이웃이나 지인의 관계처럼 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사회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호칭·지칭으로는 ‘동무·동지<sup>18)</sup>’ 유형과 ‘선생(님)’ 유형이 있다. ‘동무·동지’ 유형은 북한에만 특수한 것이고 ‘선생(님)’ 유형은 남북이 공유하나 그 용법이 다소 달라진 것이다. 먼저 두 유형에 대해 그 용법을 간단히 살펴본 후 북한의 사회생활에서 쓰이는 호칭·지칭을 <표례>와 대조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 1. 북한의 사회관계 호칭·지칭 유형

##### 1) ‘동무·동지’ 유형

‘동무·동지’가 붙는 호칭·지칭은 남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용법이 우리에게 생소하다. 따라서 남북 비교에 앞서 북한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호칭·지칭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18) 《동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동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무》가 더 친근감을 나타낸다면 《동지》는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다. (언생, 257)

<우례>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용법과 해당 예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상하 관계와 친소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적인 용법은 <표례>와 대조하여 기술하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 (1) ‘동무·동지’의 기본 의미 및 정책적 권장 배경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모든 주민은 이 목적을 위해 싸우는 혁명 동지들이다. 북한은 이런 관점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동무·동지’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를 혁명 동지로서의 관계로 환원함으로써 집단의 일원, 혁명사업의 단위로서 자신과 서로를 인식하고 상대하도록 유도한다.

《동지》라는 말은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에 대한 고귀한 부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존중시되고 값 높은 호칭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례, 23)

《동무》라는 말을 즐겨 쓰도록 하려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뜻과 숭고한 감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 위업 수행에서 같은 혁명대오에 선 사람들을 이르는 그 높은 뜻과 사랑과 의리의 정신을 키워주는 동지적 사랑의 대명사를 간직하고 쓰는 더없는 영예를 한가슴에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언생, 240)

‘동무·동지’의 사용은 동지애를 고취해 조직의 단결심을 높이고 조직 성원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자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도로 북한 규범서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직위나 이름만으로 부르지 말고 반드시 ‘동무·동지’를 붙여 부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웃사람이 이름과 함께 불러주는 《동무》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집단의 한 성원에 대해 친근한 부름인 동시에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 주는 데서 좋은 말이다. (우례, 186)

《동무》라는 말은 혁명동지들 사이에 동지애와 의리를 두텁게 하며 조직과 집단의 단결을 보여준다. 이 말은 딱딱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정다운 감을 불러일으킨다. (언생, 257)

상급으로서 아래사람을 부를 때 《동무》, 《동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특히 공식적인 석상이나 회의장소 기타 공공장소에서 어겨서는 안 되는 초보적인 언어례절로 된다. 믿음과 기대가 담긴 부름말은 아래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상급의 믿음과 집단 앞에 지닌 책임감을 자각하게 하며 사업에 대한 자신심을 북돋아 주게 한다. 이것은 아래사람에 대한 올바른 부름말이 아래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에 맞게 대중 앞에서 처신을 바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가다듬게 만드는 각성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레, 68)

정책적인 사용 권장은 학교 교육에서도 ‘동무·동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만든다. 북한 규범서와 학술지, 잡지에서는 ‘동무·동지’의 의미와 정신을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즐겨 쓰도록 해야 한다고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데서 새세대 학생 청년들 속에서 《동무》라는 부름말을 어릴 때부터 쓰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언생, 240)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동무》를 붙여 서로 부르며 교육하고 습관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례, 169)

이러한 정책적 강조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규범서에서 ‘동무·동지’가 사회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호칭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실제로 직장, 조직, 학교, 공공장소 등 북한 사회생활에서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소셜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름말은 《동무》이다. 상대방을 가리키는 《동무》라는 말은 부르는 말로도 널리 쓰인다. (언생, 239)

《동무》와 《동지》라는 말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로 되었다. 오늘 《동무》라는 말이 쓰이는 범위는 실로 넓다.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사이, 젊은이들과 젊은이들 사이, 늙은이들과 늙은이들 사이의 동료들끼리 남녀별 구분이 없이 《동무》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다. (언생, 257)

## (2) ‘동무·동지’ 유형의 기본적 용법

먼저 일반적으로 상대가 나이, 지위가 높을 때 ‘동지’를, 비슷하거나 아래일 때는 ‘동무’를 사용한다. 예외인 상황도 있는데 이는 뒤에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동무·동지’는 공식, 격식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한다. 특히 동료나 아랫사람을 ‘동무’로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규범에서는 ‘동무’를 붙여 말할 때는 상대높임법도 ‘하십시오체’나 ‘해요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무》를 붙인 부름말은 공식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집단적 분위기에서 주로 쓰며 직무나 직위, 이름만을 그대로 부르는 것보다는 정중하고 례절적인 측면이 강하다. (연생, 240)

사회생활, 집단생활 과정에서는 동무들 사이의 부름말은 보통 이름이나 성 뒤에 《동무》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짐작고 의젓하게 느껴진다. 이때 《-버니다, -습니다, -버니까, -습니까, -아요, -어요, -라요》와 같은 말차림토를 쓰는 것이 좋다. (연생, 238)

‘동무·동지’는 단독으로 부름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름, 직위, 직종, 명예 칭호 등에 붙여 많이 쓰인다. 아래는 <우례>에 기술된 네 가지 기본적 용법이다.

첫째, ‘동지’, ‘동무’가 단독으로 부름말로 쓰이기도 한다.

- 동무, 길 좀 물어시다. (우례, 23)
- 동지, 이처럼 큰일을 해 놓았는데 이름이라도 좀 알고 지냅시다. (우례, 23)
- 동무들, 모이시오. (우례, 23)
- 동지들, 날 따라 앞으로! (우례, 23)

둘째, 사람의 성이나 이름, 성과 이름에 ‘동무’, ‘동지’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존대를 표현할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보통의 언어 환경에서 이름 또는 성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경의 예의에 어긋난다. 사회생활에서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뒤에 ‘동지’, ‘동무’를 붙여야 한다.

- 영숙 동무, 너동무들이 다 왔소? (우례, 24)
- 리영숙 동무, 나와서 토론하시오. (우례, 24)
- 영수 동지, 남동무들이 다 왔습니까? (우례, 24)
- 최영수 동지, 군사복무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례, 24)

셋째, 직위 또는 직종 이름에 ‘동무’, ‘동지’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직위나 직종을 부름말로 쓰는 것은 보통 현상이지만 그것만 쓰면 예의에 어긋나고 존대를 표시할 수 없다. ‘동지’와 ‘동무’를 직위나 직종에 붙여 쓰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절 표현 방식이다.

- 국장 동지, 소장 동지, 부원 동지 (우레, 24)
- 국장 동무, 소장 동무, 부원 동무 (우레, 24)
- 운전수 동무, 타자수 동무, 리발사 동무 (우레, 24)

넷째, 사회적으로 알려진 명예칭호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 단어에 ‘동지’, ‘동무’를 붙여 쓰는 것도 예외표현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다. 오늘 북한 언어생활에서 ‘동지’, ‘동무’라는 말은 ‘유치원 어린 동무들’, ‘꽃봉오리 동무들’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존칭에 이르기까지 사회언어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친근하고 존엄 있게 쓰이고 있다.

- 영웅 동지, 영예군인 동지, 인민배우 동지 (우레, 24)
- 남성 동무, 녀성 동무, 녀동무, 어린 동무 (우레, 24)
- 유치원 어린 동무들, 꽃봉오리 동무들 (우레, 24)
- 야! 새로 온 그 녀동무 있잖아, 얼굴두 곱지만 인사성은 또 얼마나 밝은지 정말 돋보이는 처녀야.  
선녀 동무 말이지. 난 그 동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발췌 웃는 그 인사 받으면 아침에 마음이 다 즐거워지더라. 볼수록 정이 가는 동무지. (우레, 207)
- 어머니, 래일 처녀 동무를 한 명 데려오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언생, 290)

## 2) ‘선생(님)’ 유형

호칭으로서 ‘선생(님)’은 교원, 의사, 학자 등의 특정 직종 종사자를 부르는 용법과 그 직종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존대하여 부르는 용법 두 가지가 있다<sup>19)</sup>. 첫 번째 용법 즉 교원, 의사, 학자를 부르는 직종 호칭으로 쓰인 경우에는 아래에서처럼 존대 표현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19) <언생>과 <우생>에서는 선생님의 두 용법(직종 호칭과 존대 호칭)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않다. “교육 기관이나 보건 기관, 과학연구 기관 같은 데서 윗사람에 대한 부름말은 《선생님》이라는 부름말을 쓰게 된다. 친밀한 감정을 담아 편의상 《선생》이라고 쓸 수도 있다” (언생, 236)  
“교원, 학자, 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대상을 부를 때 흔히 《선생》이란 말을 붙여서 부른다.” (우생, 204)

- 임 선생, 성희 선생, 과장 선생, 교수 선생 (조례, 63)
- 김 선생, 모범 학급이 된 것을 축하해요. (언생, 253)
- 영숙 선생, 수업시간 됐어. (우례, 25)
- 영숙 선생, 환자가 찾아. (우례, 25)
- [산과(산부인과) 회의에서 높은 사람이] 영준 선생, 어떻게 될까요? 기술혁신 과제. (영상, 따뜻한 우리집)
- [동료 의사에게] 연희 선생도 바쁜 일이 있으면 나가 보오. (영상, 따뜻한 우리집)
- [병원에서 여의사들끼리] 순희 선생이 오늘 소방대 총각들의 목표물이 됐었구만요. (영상, 소방대원들)
- [연구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이자 그분이 연구사 선생이예요?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 [50대의 운전사가 처녀 연구사에게] 운전사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연구사 선생, 안녕하시우?”  
“아이 아바이, 안녕하셨어요? 어디 가세요?”(소설, 5시간 40분)
- [제대군인인 하급생이 대학연구원으로 있는 상급생에게] “아, 유경 선생이 여기 있었군요!” (소설, 행복의 무게)

또한 ‘선생(님)’은 교원, 학자, 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대상에게 존대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이들 직종 이외에는 ‘선생(님)’을 붙여 부를 수 없다. 즉 ‘소장 선생, 실장 선생, 의사 선생, 기자 선생, 작가 선생’은 되지만 ‘국장 선생, 지배인 선생, 운전수 선생...’등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 실장 선생님!, 수학 선생님!, 박사 선생님! (조례, 64)
- 영숙 선생님,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언생, 236)
- 실장 선생님, 제가 쓴 소론문을 좀 보아 주십시오. (언생, 236)
- 원장 선생님, 중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언생, 236)
- [공장 운전사가 과학기술실 통보실 부원 연구원에게] 유경 선생님 아십니까? 차창이 열리며 화학공장 운전사가 등실한 얼굴을 내밀었다. (소설, 행복의 무게)
- 전번에 기자 선생님들이 왔을 때 한 얘기. 그 선생님들이 재미나게 들던데요. (소설, 별-하나)

남한에서는 ‘선생(님)’이 남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일반적인 존대어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남한의 ‘선생(님)’은 특정 직종 종사자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까지로 한정된 북한에 비해 그 사용역이 넓은 편이다.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는 보통 ‘영숙 선생님’처럼 성보다는 이름에 ‘선생님’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김 선생님’처럼 성을 붙인 형태가 더 자주 쓰이는 남한과 차이가 있다. 또한 ‘기자 선생님’, ‘교수 선생님’, ‘박사 선생님’, ‘실장 선생님’처럼 직함, 학위명에 ‘선생님’을 붙인 형태도 남한에서는 낯설거나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다. 남한에서는 ‘기자님’, ‘교수님’, ‘박사님’, ‘실장님’과 같이 존칭접미사 ‘-님’만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sup>20)</sup>.

## 2.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표 54.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및 지칭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	
남	북	남	북	남	북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과장 동지,  (교육·보건·과학 연구기관) ○○○ 선생님, ○ 선생님, 실장 선생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배, ○ 선배, ○○○ 선배,  형, ○ 형,	○ 동무, ○○ 동무, 부원 동무,  (교육·보건·과학 연구기관) ○○○ 선생, ○ 선생, ○○ 선생, 실장 선생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 형, ○○ 형, ○○○ 형,  ○ 여사, ○○○ 여사,  ○ 군, ○○ 군, ○○○ 군,	○ 동무, ○ 부원 동무, ○○ 부원 동무, ○○ 동무, ○○○ 부원동무,  (교육·보건·과학 연구기관) ○○○ 선생, ○ 선생, ○○ 선생, 실장 선생

20) ‘의사 선생님’처럼 남한에서도 ‘-님’이 아닌 ‘선생님’을 붙여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일부 있다.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	
남	북	남	북	남	북
		○○ 형, ○○○ 형,  언니, ○○ 언니,  ○ 여사, ○○○ 여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 양, ○○ 양, ○○○ 양,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	

## 1)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

### (1) 상사에 대한 호칭·지칭

남한에서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님’을 붙여 ‘부장님’처럼 부르고 가리킨다.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과장이나 부장이 여러 명 한 자리에 있어 꼭 구분을 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무부장님’ 또는 ‘○○○ 부장님’처럼 직함 앞에 부서나 이름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이외에도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등을 쓸 수 있다.

북한에서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말은윗사람의 직책명에 ‘동지’를 붙인 형태이다. 상사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것이 예절이다.

- 위원장 동지, 언제 오셨습니까? (언생, 235)
- 국장 동지, 회의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언생, 235)
- 직장장 동지, 오늘 계획은 모든 작업반들에서 넘쳐 수행했습니다. (언생, 235)
- 지배인 동지, 불렀습니까? (영상, 빼국새가 노래하는 곳)

그러나 상사에게 ‘동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직급과 나이(또는 경력)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영화 ‘새 령마루에로’에서 부국장은 국장에게 내내 ‘국장 동무’라고 부르며 국장도 부국장을 ‘부국장 동무’라고 부른다. 부국장이 나이도 더 많고 과거에 국장의 상관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국장이 상급인데도 ‘국장 동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세대의 임무’에서도 사회적 직급과 나이의 불일치로 인한 ‘동무’, ‘동지’ 사용의 변이가 관찰된다. 실장은 나이와 경력이 많고 소장은 젊으나 결정권자이다. 그런데 실장은 소장의 학사 논문 심사위원이었다. 직급상으로는 ‘실장 동무’, ‘소장 동지’가 맞는 호칭이나 그 반대로 부르고 있다.

- [소장이 실장에게] 저……. 이걸 실장 동지 질환에 좋다길래 구해온 건데 한번 잡춰보십시오.
- [실장이 소장에게] 소장 동무가 큰 일을 했소. (영상, 세대의 임무)

상사에게 ‘동무’를 쓰는 또 다른 경우가 영상에서 확인되었다. 북한 드라마 ‘축하합니다’에서는 ‘동지’라고 불러야 할 상급에게 감정이 격해지자 ‘동무’라고 부르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둘이 사돈이 될 사이이고, 같이 결혼식에 가다가 나누는 대화이므로 사적이고 비격식적인 장면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 공정원: [화가 나서] 동무!
- 부지배인: [기가 막혀] 나보고 그래요?
- 공정원: [미안해 하며] 동, 동지. (영상, 축하합니다)

기관 안에 직책이나 직위가 같은 상급이 여러 명이 있어서 구별해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랫사람은 ‘최 국장 동지’, ‘정 처장 동지’, ‘박 과장 동지’ 등으로 상급의 성에 그의 직책명을 붙여 부르거나 ‘정길 국장 동지’, ‘철성 부원장 동지’ 등과 같이 성이 없이 이름에 직책명을 붙여 부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의 성이나 이름을 이용해 부르지 않는 것이 예절이다.

- 최 국장 동지, 정 처장 동지, 박 과장 동지 (우레, 76)
- 정길 국장 동지, 철성 부원장 동지 (우레, 76)
- [직장장이 두 명이 있는 상황] 어쨌든 우리 병만 직장장 동진 네가 여기서 갑자기 없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냐. (영상, 그 처녀의 이름)

- [과장 동지가 여럿인 것은 아님. 그러나 윤희 과장은 본인의 직장이 아닌 외부 기관의 과장이라는 점에서 구별해 주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임] 우리 직장장 동지가 지금 너와 함께 윤희 과장 동지를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야. (영상, 그 처녀의 이름)
- 우리 탄광 병원 간호원들 속에서도 손혜영 기사 동지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홍 기사 동지! 빨리 부서로 들어오래요. 모임이 있대요. (영상, 침단선)
- 예, 강 부위원장 동지가 말뚝기초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중소형 발전소 설계 사업소와 토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소설, 비결)
- [젊은 남자가 은퇴한 직장 선배인 노인에게] 업 동지 집이 마감입니다. (영상, 침단선)

교육, 보건, 과학 연구기관 등에서는 상사를 부를 때 ‘동지’가 아닌 ‘선생님’을 사용한다. 그 앞에 이름이나 성 또는 직급을 붙여 부를 수 있다.

- [담임선생님이] 분과장 선생님, 제 좀 샘물중학교에 다녀왔으면 합니다.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 [간호원이 의사에게] 영희 선생님, 새 공연 관람을 조직했다는데 빨리 가십시오. (영상, 철이 아버지였군요)
- 원장 선생님, 중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연생, 236)
- 실장 선생님, 제가 쓴 소론문을 좀 보아주십시오. (연생, 236)

성을 붙여 부를 때와 이름을 붙여 부를 때의 차이는 규범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아래의 <우레> 예문은 상사를 부를 때에는 ‘선생님’을 이름 보다는 성에 붙여 부르거나 이르는 것이 예의임을 보여준다.

- 옥이야, 말버릇이 그게 뭐니? 말끝마다 선생, 선생 하지 않나? 그리고 선생님을 부를 때는 이름을 꼭 짚을 것이 아니라(《철호 선생님》, 《광호 선생》) 성을 받쳐서 장 선생님, 김 선생님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니? (우레, 226)

북한 규범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특히 조직생활)에서 친족 호칭어는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족, 친척 관계의 감정이 풍기는 말들을 쓴다면 사회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형님》, 《언니》와 같은 말들은 동무들 사이에도 흔히 쓰이는 부름말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손우의 사람들에게 친근한 부름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집단생활 특히 조직생활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우레, 192)

가족, 친척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부름말을 사회생활이나 집단생활 특히 조직 생활에서 쓰는 것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나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언니》요 《형님》이요 하면서 조직 사업을 토의하는 장소에서까지 가족, 친척 관계의 감정이 풍기는 말들을 쓴다면 집단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수 없다. …(중략)… 사회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사적인 말과 공적인 말을 엄격히 갈라서 써야 한다. (연생, 237)

그러나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생활에서도 나이가 많은 대상에게는 ‘아바이’나 ‘아주머니’ 같은 친족 호칭어를 쓰는 것이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친혈육의 정을 느끼게 한다거나 공적 사업을 집안일처럼 여기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집단의 일감을 놓고서도 사적으로 오손도손 주고받는 일상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부름말로 이야기를 나누니 요구하는 의도가 마음속에 차분히 자리잡혀 주인답게 일할 데 대한 요구가 강요가 아니라 제 집안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연생, 243)

- 아바이, 이번 기술경험 교환회에서는 아바이가 꼭 출현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생, 237)
- 아주머니, 과일들을 잘 다룹시다. 이 좋은 과일들을 잘 저장하였다가 인민들에게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나요. (연생, 243)

소설과 영상에서도 친족명만으로 부르거나 직무나 직위, 이름에 친족명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규범에서는 ‘아바이’, ‘아주머니’ 등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언니’ 등의 다른 친족명도 사용되고 있었다.

- 아바이, 아니, 아버님! 야, 이거 딱 100키로만 좀!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사무실에 들어서며] 수골하십니다. 아니, 직장장 아바이가 어떻게? (영상, 미결전은 없다)
- 고문 아바이, 웬일입니까? (영상, 그 처녀의 이름)
- 야, 지배인 아저씨, 목말라 죽겠어요. 물이 없어요? (소설, 비결)
- [분조장이 분조원에게] 옥선 아주머니, 거기서 무슨 탄 의견 있소? 탄 의견 있는가? (영상, 분조의 주인)
- 창고원 아주머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걸 여기에 실읍시다. (소설, 아버지의 마치)
- [기관 출입구를 관리하는 여성에게 연구사가] 어머니, 흰 동복 입은 총각이 오면 절대로 들여놓지 마세요. (영상, 충북)
- 관리위원장 어머니, 그건 왜 그렇게 하나요? (소설, 푸르른 대지)
- [접대원이 요리사에게] 요리사 언니, 요리가 싱겁대요. (영상, 설 풍경)

- [동료 연구사에게] 기사 언니, 분석표! (영상, 사랑의 거리)
- [중년의 아주머니가 같은 동네 주민 아주머니에게]  
소대장 언니, 이걸 정말 우리 힘으로 해 낼까요? (영상, 해빛 밝아라)

## (2) 직급이 같은 동료에 대한 호칭·지칭

남한에서 직함이 없는 동료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 씨’,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 씨’, 직종에 따라서는 ‘선생님’ 또는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과장이 과장을 부르고 가리키는 경우처럼 직함이 있는 동료 사이에서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북한에서 동료들 사이의 부름말은 보통 ‘○ 동무’, ‘○○ 동무’, ‘과장 동무’처럼 이름이나 성 또는 직함 뒤에 ‘동무’를 붙인다. 이때 ‘-ㅁ/습니다, -ㅁ/습니까, -아/어요’와 같은 ‘하십시오체’나 ‘해요체’를 같이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김 동무! 축하하오. 우리도 동무가 설계한 도면을 보구 감탄했지. (조례, 169)
- 온 동무. (영상, 첨단선)
- 순실 동무, 래일 저녁 분단모임에 늦지 말어. (조례, 169)
- 지향 동무. (영상, 그 처녀의 이름)
- 직장장 동무! 생산총화가 끝났소. (조례, 169)
- 과장 동무, 이번에 가면 그걸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소설, 5시간 40분)

<연생>에서는 동료들 사이에 ‘창고장’, ‘부기장’과 같은 식으로 직함만을 부름말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친숙하고 허물없는 동료 사이이면 상대방을 직함이나 이름만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친밀도가 높을 때 직함이나 이름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나타난다.

- 여보. 1호 갱장, 너무 자만하진 말게, 우리 3호 갱도 만만치는 않을 걸세. (조례, 169)
- 어, 기술원, 좀 쉬고 하지그래. (영상, 분조의 주인)
- 여, 여, 분조장. (영상, 복 받은 대지에서)

교육, 보건, 과학 연구기관 등에서는 동료를 부를 때 ‘동무’가 아닌 ‘선생’을 사용한다. 영상에서는 이름에 ‘선생’을 붙여 가리키는 형태가 관찰되었다.

- [동료 의사에게] 련희 선생도 바쁜 일이 있으면 나가 보오. (영상, 따뜻한 우리집)
- [병원에서 여의사들끼리] 순희 선생이 오늘 소방대 총각들의 목표물이 됐됐구만요. (영상, 소방대원들)

### (3)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

남한에서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킬 때는 ‘○○ 씨’, ‘○○○ 씨’를 쓰고<sup>21)</sup>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아랫사람에게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직급이 같은 아랫사람 여럿이 한자리에 있어 구분해서 말해야 할 때에는 ‘○○○ 과장’처럼 이름에 직함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북한 규범서에 따르면 아래 직원을 부를 때는 ‘○ 동무’, ‘○ 부장 동무’ ‘○○ 부장 동무’, ‘○○○ 부장 동무’처럼 부르는 것이 기본이다. 영상에서는 ‘○○ 동무’, ‘○○○ 부장’ 등의 형태도 사용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 아랫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북한 규범에서는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부를 때 ‘동무’(경우에 따라 ‘동지’<sup>22)</sup>)를 붙여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름만으로 부르거나 반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직장의 상하관계는 혁명동지들 사이의 동지적 관계이자 사업상의 역할 관계일 뿐 봉건사회의 차별적인 신분계급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정권이 직장의 상하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언어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급으로서 아래사람을 부를 때 《동무》, 《동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특히 공식적인 석상이나 회의장소 기타 공공장소에서 어겨서는 안 되는 초보적인 언어례절로 된다. (우레, 68)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군들과 아래사람과의 관계는 혁명적 의리와 도덕관에 기초한 혁명동지들 사이의 동지적 관계이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체계와 사업 분담 관계에 따르는 사업상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혁명동지들 사이의

21) ‘○ 씨’ 하는 표현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표례>).

22) <우생>에서는 그리 친숙한 사이가 아닌 동년배 사이에서도 ‘동지’를 쓴다고 되어 있다(우생, 2004). 소설과 영상 자료를 볼 때, 아래 직원이 나이나 경력이 많은 경우도 ‘동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위와 직급에 따르는 지시와 복종의 관계는 맹목적인 순종 관계,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생활관에 기초한 동지들 사이의 관계이다. (우레, 70)

<우레>에서는 상급으로서 아랫사람을 찾고 부를 때 경우를 잘 가려서 적절한 부름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의 세 가지 형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우레, 68). 셋은 관계의 친밀도나 상황의 격식성 정도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된다.

① ‘성+ 동무’, ‘성+ 직책명+ 동무’

‘○ 동무’, ‘○ 부장 동무’의 형태이다.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서로 잘 알고 있거나 오랫동안 사업한 허물없고 가까운 관계에서 사용한다.

- 박 동무!, 최 동무!, 윤 동지! (우레, 68)
- 박 부원 동무!, 최 부장 동무!, 윤 처장 동무! (우레, 68)
- 여, 박 동무, 빨리 가자구. (영상, 미결건은 없다)
- 홍보람 동무[신입 여직원]하고 계 동무[40대 정도 남자 부하 직원]만 남고 나머지 동무들은 자기 사업을 보시오, 책임적으로.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채관소장이 정 관사에게] 정 동무! 정 동무!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영상, 가정)

② ‘이름+ 직책명+ 동무’

‘○○ 부장 동무’의 형태이다. ‘○ 부장 동무’의 형태와 함께 널리 쓰이지만 그에 비하여 때에 따라서 약간 공식적인 감이 느껴진다.

- 성국 부원 동무, 정수 부장 동무, 진남 처장 동무 (우레, 68)
- 경민 국장 동무, 오래간만입니다. (연생, 235)
- 영순 관리위원장 동무, 저기서 누가 기다립니다. (연생, 236)

③ ‘성+ 이름+ 직책명+ 동무’

‘○○○ 부장 동무’의 형태이다. 아랫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부름법으로서 공식적인 어감이 더 짙다. 일상생활에서도 쓰이지만 모임이나 회의 등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장소들에서 상급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널리 쓰이는 형태이다.



그런데 소설과 영상에서는 ‘동무’를 붙인 위의 세 형태 외에도 성이나 이름에 ‘동무’만을 붙여 아랫사람을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다.

- [남자 상사가 여직원에게] 지향 동무, 반소. 자. (영상, 그 처녀의 이름)
- 계 동무가 지금껏 안고 뛰면서도 끝내 해결 못한 버섯 문제를, 이제부터 저 보람 동무에게 맡깁시다.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여러 직원들이 모여 있는 중에] 재혁 동무, 수고해. (영상, 사랑의 거리)

또한 영상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임에도 상급자가 ‘동무’를 붙이지 않고 성명과 직함명만으로 부르는 경우도 나타났다.

- [식당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상황] 송혜영 집대원, 그 의견서들을 꺼내와요. (영상, 설 풍경)

마지막으로 상급자가 아랫사람의 이름만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언생>에서는 하나의 부름말이라도 대상과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생활에서도 이름만을 부를 수도 있다고 기술한다. 이때 이름에 ‘야’가 아닌 동격의 호격조사 ‘이’를 쓰는 것은 친근감 있으면서도 하대하지 않는 어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육성이,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이 난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소?》 이 말은한 리당 비서가 한 축산 분조원과 나눈 이야기이다. …(중략)… 《동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친딸처럼 이름만을 부르면서도 동격에서 부르는 호격토 《이》를 쓰니 더욱 친근하면서도 다정한 분위기를 이루어 주며 이야기의 의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한다. (언생, 241)

영상에서도 직장이나 집단생활에서 아랫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호격조사 ‘이’ 또는 ‘야’를 쓴 형태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특히 ‘서연이’, ‘동춘이’, ‘윤철이’ 등 ‘이’를 쓴 호칭들은 남한에서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 [여러 청년들 앞에서 리당비서가 청년에게] 윤철이, 수고했구만. (영상, 불빛)
- [체육단 반장과 단원 사이]  
반장: 이번 마라톤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쟁취한 서연 동무가 아니오?  
서연: 반장 동지,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반장: 서연이, 모든 걸 포기하자는 이유가 뭐요? (영상, 저 하늘의 연)

- 상사: 동춘이, 준비가 다 됐나?  
 동춘: 네.  
 상사: 그럼 스위치를 놓게.  
 동춘: 알았어요. (영상, 가정)
- [분조장이 하급 청년에게]  
 분조장: 명수야.  
 명수: 예.  
 분조장: 계획을 완수한 동무들은 저 경쟁 도표에다 빨간 줄을 쪽쪽 올려줘라.  
 (영상, 분조의 주인)

교육, 보건, 과학 연구기관 등에서는 아랫사람을 부를 때 ‘동무’가 아닌 ‘선생’을 사용한다. 영상에서는 이름, 직책에 ‘선생’을 붙여 부르는 형태가 나타났다.

- [교장 선생님이] 어, 순임 선생! (영상, 소년 탐구자들)
- [교장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에게] 미술 선생, 우리 학교 \*\* 소개판에 무명전사들의 \*\*을 꼭 반영해야겠소. (영상, 소년 탐구자들)
- [산과(산부인과) 회의에서 높은 사람이] 영준 선생, 어떻게 될까요? 기술혁신 과제. (영상, 따뜻한 우리 집 제)

## 2) 직장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호칭 · 지칭

### (1) 상사의 아내

표 55. 상사의 아내에 대한 호칭 · 지칭

	상사의 아내	
	남	북(영상)
호칭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아주머니, ○○[자녀] 어머니, 대대장 동지 아주머니

지칭	해당 상사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아주머니
	그 밖의 사람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 사모님, ○ 과장 사모님, ○○○ 과장 사모님	아주머니, ○○ 아주머니, 부인, 부인님

남한에서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으로 부른다. 남한에서 직장 상사의 아내를 당사자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등으로 가리킨다.

북한 영상 자료에서는 호칭어로 ‘아주머니’, 자녀의 이름이나 남편의 직함을 이용한 간접 호칭인 ‘○○[자녀] 어머니’, ‘대대장(남편의 직함) 동지 아주머니’가 사용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지칭어로는 해당 상사에게는 ‘아주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는 ‘아주머니’, ‘○○ 아주머니’, ‘부인님’ 등을 쓰고 있었다. 참고로 <우생>에서는 남의 부인을 높여 이룰 때 ‘부인’을 쓰고 스승의 부인은 ‘사모님’으로 부른다고 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선생님의 부인을 ‘부인님’으로 지칭하는 예가 나타났다.

남을 높이며 그의 안해를 이르거나 남의 안해를 높여 이룰 때 《부인》이라고 하며 스승의 부인을 《사모님》(스승과 같이 대접하여 섬긴다는 데로부터 이르는 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된 말이다. 그러나 스승과 같이 높이며 대접할 대상도 아닌 사람의 안해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생, 185)

- [상사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친밀도 높음-]  
 군인1: 보금 아주머니가 온다.  
 여러 군인들: 아주머니!  
 군인2: 경순이 어머니! (영상, 해빛 밝아라 2부)
- 대대장 동지 아주머니, 빨리 나가십시오. (영상, 해빛 밝아라)
- 과장 동지, 아주머니한테서 전화입니다. (영상, 버릇 탓인가)
- 아주머니도 여전하시구요? (영상, 우리의 내일은 더 푸르다)
- 나는 선생님과 부인님 앞에 굽석 절을 하였습니다. (소설, 교정의 룰리)

(2)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표 56.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	북(영상)
호칭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아주머니, ○○[자녀] 어머니
지칭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	아주머님, 아주머니, 부인,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집사람, 처

남한에서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당사자,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부인’으로 지칭할 수 있다.

북한 영상 자료에서는 호칭어로 ‘아주머니’, 자녀의 이름을 붙인 ‘○○[자녀] 어머니’가 사용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지칭어로는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집사람’, ‘처’를 쓰고 있었다. ‘처’의 경우 ‘자네 처’, ‘동무 처’의 형태로 쓰기도 한다. ‘계 동무 동무로구나’에서처럼 ‘아내’라는 뜻으로 (상사의) ‘동무’라는 지칭을 쓰는 경우도 나타났다.

- 아주머니, 저 집이 연구사 동무 숙습니다. (영상, 빼국새가 노래하는 곳)
- [남자가 동료 집을 찾아와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상황]  
안녕들 하십니까? 아주머니, 안녕하시나요? (영상, 첨단선)
- [군대 상사가 부하의 부인에게] 영남이 어머니! (영상, 먼 산의 노을)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래 집사람한테 비쳐 봤소? (영상, 먼 산의 노을)
- [부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처가 몹시 바쁘가 보구만. (영상, 행복의 수레바퀴)
- 동무 천 뭘 하고? (영상, 소방대원들)
- [보람과 계 동무는 같은 부서 직원 동료임, 보람은 친구 순녀가 계 동무의 아내임을 알게 됨]  
순녀: 우리 세대주가 자기 부서에 제대군인 처녀가 새로 배치됐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너였구나.  
보람: 오, 계 동무 동무로구나! 세상은 넓고 좁다더니!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3)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표 57.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남	북(영상)
호칭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남	북(영상)
지칭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	남편, 부군, 바깥양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남편, 세대주

남한에서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남편’, ‘부군’, ‘바깥양반’으로 지칭하고 호칭인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도 쓸 수 있다. 북한 영상 자료에서는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의 남편을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 ‘남편’, ‘세대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 [아래 직원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가? (영상, 1번수)
- [직장에서 여자 직원이 여자 동료에게] 세대주가 간부가 됐지요? (영상, 행복의 수레바퀴)

### 3. 지인에 대하여

#### 1)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표 58.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소설)
호칭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아주머니
지칭	당사자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아주머니, ○○ 동무
	해당 친구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	처, ○○(자녀) 어머니

남한에서 친구 아내를 부를 때 젊은 층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일 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라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과장님’, ‘○ 과장님’이라고 부른다. 또 친구의 아내에게 예를 갖추어 ‘○ 선생’,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흔히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소설에서 친구의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확인되었으며 당사자에게는 ‘아주머니’, ‘○○ 동무’로, 해당 친구에게는 ‘○○(자녀) 어머니’로 지칭하고 있었다.

- [친구의 아내에게] 아주머니, 며칠만 참으십시오. 우린 또 가까이에서 살게 됩니다. 유봉 동무를 성에서 소환하기로 했으니깐요. (소설, 그의 소원)
- [친구의 아내에게] 편안했습니다. 유봉 동무랑, 아주머니랑, 모란이도 다 잘 있었습니까? (소설, 그의 소원)
- [친구의 아내에게] 순화 동무가 꽤 적적하겠소. 아들은 군대에 나가 있지. 철옥이도 소재지에 나가 살지. 이 남편이란 사람도. (소설, 비결)
- [친구에게] 현옥이 어머니가 돌아오면 인차 애들의 혼례를 치르세. 뭐가 있어야 멋인가. 그저 소박하게 차리면 되는 거지. (소설, 꽃장냉이)

## 2)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표 59.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소설)
호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지칭 (해당 친구)	남편, 바깥양반,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님	남편, ○○ 동무

남한에서 친구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이다. 북한에서는 소설을 통해 볼 때 해당 친구에게 지칭하는 말로 ‘남편’, ‘○○ 동무’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 [친구에게] 아이를 받아 안으며 중학 동창생이고 소아과 의사인 미영이 푸념 섞인 편잔조로 한마디 했다. “모르겠구나. 너희들의 생활은… 남편은 늘 나가 살지, 아이는 남의 집에 살다싶이 하지. 헌데 이번엔…” (소설, 행복의 무게)
- [친구에게] “그래, 우진 동문 건강하오? 여전히 망부암에 나가 있겠지?” 최일이 불쑥 화제를 남편한테 돌리며 예림은 흠칫 몸을 떨었다. (소설, 망부암)

### 3) 남편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표 60. 남편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소설)
호칭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지칭	당사자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남편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 아저씨

남한에서 남편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이다. 남편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동일하다. 남편의 친구를 남편에게 가리킬 때에는 ‘○○ 씨’, ‘○○○ 씨’라고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도 쓸 수 있다. 또 남편 친구의 직함을 사용하여 남편에게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소설에서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나타났다으며, 남편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자녀 이름을 붙인 ‘○○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남편의 친구를 남편에게 가리킬 때 ‘○○ 아저씨’를 쓰는 사례가 나타났다.

- [남편의 친구에게] “순남이 아버지, 그새 편안하셨어요?”라고 웨치듯 말하는 것이 었다. (소설, 그의 소원)
- [남편의 친구에게] 꽃강냉이를 좋아하는 현옥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이가 우정 온 받의 이삭을 모두 쥐여 보며 골라 탄 거니까 많이 드세요.” (소설, 꽃강냉이)
- [남편에게] 당신이 직동에 가면 유봉 아저씨와 모란이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와 할까요?”(소설, 그의 소원)

#### 4) 아내의 친구에 대한 호칭 · 지칭

표 61. 아내의 친구에 대한 호칭 · 지칭

	남	북(영상)
호칭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	
지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	지배인 동지

남한에서 아내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이다. 아내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같은데, 아내 친구의 직함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

북한 영상에서 아내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 아내 친구의 직함에 동지를 붙여(‘지배인 동지’) 가리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아내 친구 직함을 사용한 남한의 ‘과장님’ 형태와 유사하다.

- [부국장이 아내 친구인 여자 지배인에게]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더구만. 대학 동창생 중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지배인 동지만이 시집을 안 갔다구. (영상, 불길)

### 5)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표 62.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소설 및 영상)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큰아버지

남한에서 아버지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저씨’, ‘○○[지역] 아저씨’이나,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친근하게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인 아버지의 지인을 ‘큰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관찰되었다. 영화 ‘해빛 밝아라’에서 아버지의 상급이자 지인의 아내에게 ‘큰엄마’라고 부르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 친구와 그 아내를 ‘큰아버지’, ‘큰엄마’ 등의 친족명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관련 언급이 없으나 <조선말대사전>에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인 아저씨별 웃어른’으로 풀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형’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아버지의 상급이자 지인에게]  
가: 큰아버지.  
나: 아니, 너 경순이 아니냐. (영상, 해빛 밝아라)
- 아들딸 세 남매……. 행복하게만 자라난 귀여운 자녀들이 어려서 따르던 부름 그대로 팔을 벌리고 발을 구르며 목놓아 웨친다.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와 줘요.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줘요, 예? 큰아버지……. 울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대요!” (소설, 미래에 살자)

## 6) 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

표 63. 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

	남	북(소설 및 영상)
호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큰엄마, 아지미, 이모

남한에서 어머니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아줌마’, ‘○○[지역] 아줌마’를 쓰므로 친근하게 ‘아줌마’, ‘○○[지역] 아줌마’를 쓸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는 어머니의 친구를 ‘큰엄마’(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아지미’, ‘이모’로 부르는 사례가 나타났다. 규범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한에서도 어머니의 친구를 ‘이모’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이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큰아버지의 아내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여겨지는 ‘큰엄마’와 남한에서는 생소한 ‘아지미’의 사용은 남북 차이를 보인다. 참고로 <조선말대사전>에 ‘아지미’는 ‘아주머니를 친근하게 허물없이 이르거나 어린이들이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어린아이들의 말로 사용되었을 때는 남한의 ‘아줌마’와 용법이 유사하다.

- [엄마가 친구 집에 놀러 가 아이에게 인사시키는 상황]  
 엄마 : 아지미, 안녕하십니까?  
 아이 : 아지미, 안녕하십니까? (영상, 따뜻한 우리집)
  
- “아, 반장 이모!” 기다렸던 듯 문이 벌럭 열리며 은경이 반색을 했다. 그에는 송경심이 자기 어머니와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자별한 사이라고 하여 이모라고 불렀다.  
 (소설, 푸르른 대지)

## 7)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표 64.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남	북(영상)
호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 자녀] 할아버지	아저씨, 아버님, ○○[친구]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이다. 친구의 이름을 넣어 ‘○○[친구] 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친구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처럼 부를 수도 있다.

북한 영상에서 친구 아버지를 ‘아저씨’, ‘아버님’, ‘○○[친구] 아버지’로 부르는 사례가 나타나 남한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같이 운동하는 동료(체대생)의 아버지에게]  
자, 아버님 먼저 앉으십시오. (영상,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설, 비결)
- [소학교 2학년생이 친구 아버지에게]  
일국이 아버지요, 난 다시 일국리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래요.  
(영상, 2학년생들)

## 8)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표 65.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남	북(영상)
호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엄마, 어르신, ○○ [친구 자녀] 할머니	어머니

남한에서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이다.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어머님’을 쓸 수 있으며 친구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머니’처럼 부를 수도 있다.

북한 영상에서는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규범에는 ‘어머님’만 제시되어 있지만 남한에서도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남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소설, 아버지의 마치)
-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친한 선배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얼굴색이……. 어디 아프세요? (영상, 충북)
- [같이 운동하는 동료(체대생)의 어머니에게]  
가: 어머니!  
나: 아이구, 명길이가 왔구나. (영상,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 4. 직원과 손님 사이

### 1)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

표 66.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의 호칭) : 여기요, 여보세요	○○○[직무, 직위] 동무,  (교육·보건·연구 기관 종사자) 선생, ○○○[직무, 직위] 선생, 선생님, ○○○[직무, 직위] 선생님

남한에서 식당, 상점 같은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아줌마’는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나 친한 사이가 아닌 종업원에게는 호칭·지칭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손님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언니’ 또는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물론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여기요’와 ‘여보세요’이다.

은행 같은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를 때 남녀 모두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을 호칭과 지칭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요’, ‘여보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식당, 상점, 여관, 공원, 유원지의 직원(접대원, 판매원, 관리원 등)을 부를 때 다음처럼 ‘직종’에 ‘동무’를 붙여 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상점에서나 열차에서 근무 중에 있는 판매원들을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여, 판매원》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레절이 없는 언행으로 된다. 근무 중에 있는 사람을 《동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직위만 가지고 부르면 판매원 자신은 물론 대중에 대해서도 무례한 태도로 된다. (언생, 242)

상대편이 판매원이나 사회적 봉사기관의 일꾼이라면 《판매원 동무》, 《안내원 동무》 등과 같이 직명에 《동무》를 받쳐 부르는 것이 좋다. (우생, 204)

- [여관에서] 관리원 동무,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33)
-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관리원 동무, 시간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언생, 281)
- 이발사 동무, 수고합니다. (우레, 133)
- 판매원 동무, 저 넥타이를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언생, 268)
- 접대원 동무, 수고합니다. 평양랭면 두 사람분 신청합니다. (언생, 270)
- 접대원 동무, 여 국이 짜구만. (영상, 설 풍경)
- 그러니 좀 비켜주우. 우리한테 이제 30분밖에 시간이 없소. 응, 간호원 동무! (소설, 한생의 초여름에)
- 거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 동무들이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구만요. (언생, 277)

<우레>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원 동무’ 대신 ‘선생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사서, 대출원의 경우도 ‘도서관 동무’ 대신 ‘선생님’을 사용하기도 하는 듯하다. 북한에서 보건, 교육, 연구 기관 종사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선생(님)’이 구별되어 쓰이는 것과 관련 있다.

- [면회 갔을 때 환자를 치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에게]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해준다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애가 이렇게 완쾌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레, 131)
- [도서관 사서에게] 선생님, ‘수령님과 일화’라는 책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레, 249)

<우레>에서는 기관이나 사무실 기타 공공장소의 여직원을 부를 때 ‘아주머니’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식당이나 상점, 극장,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박물관이나 전람관 등에서 직위나 직무를 모른다고 하여 그곳의



일군이나 여성에게 《아주머니》라는 말을 초면에 쓰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랭대》와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중략)… 여느 길거리도 아니고 또 주택 지구나 마을에 들어선 것도 아닌데 동네 아주머니를 찾듯이 부른다면 그 《아주머니》는 《어처구니없고》, 《수준 없는》 젊은이의 말에 쓴웃음을 짓거나 랭당한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우레, 192)

그러나 <연생>에서는 편의수리소나 체신소의 봉사자를 ‘아주머니’로 부르는 예문이 나타나 실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만년필 수리소에서]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연생, 274)
- [체신소에서] 아주머니, 소포를 받으시니까? (연생, 275)

## 2) 식당, 상점, 관공서 등의 손님에 대한 호칭·지칭

표 67.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에 대한 호칭·지칭

	남	북
호칭 및 지칭	손님, ○○○ 님, ○○○ 손님	손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어머니, 아주머니 ○○○ 할아버지, ○○○ 어머니, ○○○ 동무

남한에서 식당, 상점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손님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고 한다. 직함을 정확히 아는 손님일 때는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직함이나, 성(姓) 또는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은행, 관공서 측에서는 손님이 누구든지 ‘손님’, ‘○○○ 님’, ‘○○○ 손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한편, 지하철, 철도, 항공편 같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곳에서는 ‘손님’ 대신 ‘승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이때 ‘고객’보다는 ‘차, 배, 비행기 따위를 타는 손님’이라는 뜻이 담긴 ‘승객’을 쓰는 것이 좋다.

북한에서도 ‘손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노인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좋고 아기 어머니나 그런 나이의 여자라면 ‘아기 어머니’나 ‘아주머니’를 사용한다. 성과 이름에 친족 호칭(‘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등)이나 ‘동무’를 붙여 부르거나 이른다.

- 손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생, 205)
- 할아버지, 저와 같이 가십시다. (우생, 205)
- 할머니,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지요. (우생, 205)
- 아기 어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우생, 205)
- 아주머니,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생, 205)

또한 병원에서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환자 동무’, ‘손님’ 등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영남이 할아버지’, ‘한분녀 어머니’, ‘김철 동무’ 이렇게 나이와 성별에 맞게 부름 말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자를 ‘손님’으로 부르는 것은 주로 식당·상점·숙박시설·교통기관 이용자, 공연·전시회 관람자 등을 부를 때만 ‘손님’을 사용하는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름에 ‘-님’이나 ‘손님’을 붙여 부르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 환자 동무, 손님 (언생, 278)
- 영남이 할아버지, 한분녀 어머니, 김철 동무 (언생, 278)
- 손님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레, 130)
- 잠시 후 다시 출입문이 열리며 간호원의 숨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범 환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소설, 누이의 목소리)
- 안 됩니다. 지금……. 환자 동지가 막 잠들었습니다. (소설, 한생의 초여름에)

## 5. 학교생활

<표레>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호칭·지칭을 다루지 않았으나 북한 규범서 <우레>와 <언생>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비교할 수 있는 남한의 규범이 없으므로 주로 북한 규범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북한에서의 학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언어예절 교육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이 점을 주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언어예절 교양은 우리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학교들에서 문화어교육을 잘하고 언어예절을 바로 지키도록 교양하는 것은 전 사회에 선군시대의 혁명적이며 아름다운 언어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우레, 86)

그러므로 교원들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후대들을 책임진 혁명가답게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언제나 주의를 돌려 그들을 레절 바른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 (우레, 87)

## 1) 학생에 대한 호칭 · 지칭

### (1) 교사가 학생에게

북한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 ‘너’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인민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나 교원들은 ‘○○[이름]+동무/학생’처럼 ‘동무’나 ‘학생’을 붙여 쓰는 것이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 학급 학생 전체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는 ‘동무들’을 사용한다.

교원들은 다음으로 학생들과 《너》라는 말 대신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 좋다. 《너》라는 말 대신에 이름을 쓰는 것은 주로 유치원 어린이나 인민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하는 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원들은 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무》, 《학생》이라는 말을 붙여 쓰는 것이 좋다.

(연생, 255)

- 일남 학생, 잘 썼어요. (영상, 저 하늘의 연)
- 혁이 학생, 어서 나오세요. (영상, 2학년생들)
- 강범 학생은 선생을 놀리자는 거예요?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 수련 학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 어린 동무들, 학생 동무들 (연생, 259)
- 동무들, 수업을 시작합시다. (우레, 92)
- 오늘부터 내가 동무들의 담임교원입니다.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소설과 영상 예문을 통해 볼 때 친밀도가 높은 경우 이름만으로도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담임선생님이 학급장인 강범에게] 강범이, 내일 준경 동무 생일이지요? 내일 준경이 생일은 온 학급이 모여앉아 축하해 주지요.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 수련이, 과학자들 중에는 작은 것을 여러 번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생 바쳐 단 한 번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 (2) 학생들 사이

학생들끼리도 ‘○○[이름]+ 동무’처럼 ‘동무’를 붙여 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기 동무를 부를 때에는 《영철이》, 《금희》라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만 《영철 동무》, 《금희 동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 (우례, 109)

친하고 가까운 동무들 사이일수록 《동무》라는 말을 써야 한다. …(중략)… 학생들은 소년단이나 청년동맹모임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과외생활에서도 《동무》라는 좋은 말을 널리 써야 한다. (언생, 257)

남학생과 녀학생들 사이에는 더욱 《동무》라는 말을 붙여 상대방을 불러야 하며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을 때에는 《동지》라는 말을 붙여 쓰는 것이 좋다. (언생, 258)

영화 자료에서 나타난 학생 간의 호칭 사용을 관찰해 보면, 격식성과 친밀도에 따라 ‘동무’ 사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비격식적 상황,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는 ‘동무’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비격식, 친밀도 낮음]

- 은별 동무, 우리 그러지 말구 함께 찾아보자. (영상, 소년 탐구자들)
-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야 순남 동무지. (영상, 소년 탐구자들)
- 강범 동무, 달라요.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비격식, 친밀도 높음]

- 그래 은별아, 밀질 게 없잖아. (영상, 소년 탐구자들)
- 강범이, 뭘 생각하니?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다른 학생을 이룰 때도 ‘동무’를 붙여 말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남학생이 과학 선생님께, 청송과는 친한 친구 사이임]  
청송 동무 진짜, 발명왕입니다. (영상, 소년 탐구자들)

초급단체비서나 분단위원장 등과 같은 학생의 직위에도 ‘동무’를 붙여 부르는 것이 예절이라고 본다.

초급단체비서나 분단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초급단체 비서 동무》, 《분단위원장 동무》 하고 진정을 담아 부르면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조직과의 관계에서 레절을 지키는 것으로 된다. (우례, 110)

하급생에게는 규범서 예문을 통해 볼 때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급생을 부를 때는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이름에 붙여 부른다. 이때 ‘형’ 대신 ‘형님’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언니’, ‘오빠’ 등의 친족 호칭보다 ‘동지’, ‘동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례>에는 대학 교정에서의 호칭 사용과 관련해 예화를 들고 있다. 한 여학생이 친한 선배를 ‘향순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교수가 출석을 부르며 “동무네 형제인데 이름이 판이하구만.” 따끔히 지적한다(우례, 227). 학생들끼리는 ‘언니’ 등의 친족명이 아닌 ‘동무’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언니, 오빠와 같은 부름말은 가정에서 형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대학과 같은 집단 생활에서는 언제나 《동지》, 《동무》로 불러야 더 정 깊고 뜨겁다. (우례, 227)

참고로 북한 규범서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별명을 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을 그릇된 것으로 보고(특히 부정적인 특징을 언급하는 별명)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언어 레절은 동무들에게 별명을 부르는 것이다. …(중략)… 학생들은 동무들 사이에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서 별명을 지어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꼬마 박사》, 《정열가》, 《독학가》 등 그 동무의 우점을 칭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별호는 일없다. (우례, 109)

학생들 사이에서 별명을 부르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중략)… 별명은 부정적인 특징을 잡아서 붙인 것이 절대다수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중략)… 그렇지만 별명은 어디까지나 문학예술 작품들에서와 같이 일정한 목적 밑에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쓰라는 말은 아닌 것이다.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 감정뿐 아니라 도덕풍모도 나타나므로 친한 동무일수록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연생, 258)

## 2) 선생님에 대한 호칭 · 지칭

### (1) 선생님들 사이

북한에서는 교원들 사이에서는 성이나 이름, 직급, 담당과목에 ‘선생’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범서에서는 ‘선생’만을 언급했지만 소설과 영상 자료를 보면 ‘선생’과 ‘선생님’을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조직상 아랫사람이나 동료 부를 때 ‘선생’을 사용한다. 남한도 기본 용법은 유사하나 최근에는 아랫사람이나 동료 부를 때도 ‘선생’보다 ‘선생님’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성이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 ‘○○[이름]+ 선생’의 형태를 ‘○[성]+ 선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의 용법과 차이를 보인다.

교원들 사이의 부름말로는 《선생》으로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선생》, 《영숙 선생》, 《3학년 1반 선생》, 《6반 선생》 등과 같이 《선생》을 붙여 서로 부르는 것이 좋다. 가깝다거나 동창생이거나 친밀한 관계라고 하여 《영숙이》, 《영찬이》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은 교육 환경에서 어울리지 않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연생, 253)

- 김 선생, 모범 학급이 된 것을 축하해요. (연생, 253)
- 영희 선생, 학급 학생들의 실력이 펴 나아졌습니다. (우례, 89)
- 희숙 선생, 선생이 많이 노력해서 우리 학급의 영어 수준이 퍼그나 올라갔습니다. (우례, 89)
- ○○ 선생, 학급이 문란합니다. 교실 정돈도 그렇고 수업 참가 정형도 그렇고… 빨리 퇴치해야겠습니다. (우례, 90)
- [교장 선생님] 어, 순임 선생! (영상, 소년 탐구자들)
- [분과장 선생님] 영실 선생, 오늘부터 새 학급을 맡았죠?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 [나이 많은 교사-분과장-가 젊은 여교사에게] 은주 선생이 오늘부터 수업이지? (영상, 2학년생들)

- [선배 유치원 교양원이 후배에게] 설경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영상, 꿈을 속삭이는 소리)
- [교장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에게] 미술 선생, 우리 학교 \*\* 소개관에 무명전사들의 \*\*을 꼭 반영해야겠소. (영상, 소년 탐구자들)
- [담임선생님이] 분과장 선생님, 제 좀 샘플중학교에 다녀왔으면 합니다. (영상, 수업은 계속된다)

<우레>에서는 ‘대학교에서의 언어예절’을 별도로 다루었는데 여기서 교수, 선생님들 사이의 호칭은 ‘동무’, ‘동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치원, 소학교, 고등중학교의 교원들 사이에서 쓰는 호칭 ‘선생(님)’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불리우는 가장 좋은 부름말은 동무, 동지이다. …(중략)… 대학교의 로교수, 박사 선생님들로부터 젊은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다정하게 친근하게 《동무》, 《동지》라고 부른다. (우레, 227)

## (2)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반드시 ‘님’을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선생님과 관련된 말에는 존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선생님이 보는 데서건 아니건 《선생님》이라고 꼭듯이 불러야 하며 선생님과 관련한 말을 할 때는 해당한 존칭사를 넣어서 말해야 한다. (우레, 226)

<우레>의 아래 예문도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며, 선생님의 이름 보다는 성을 붙여 부르거나 이르는 것이 규범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대학생이 교수를 ‘유춘 선생’이라고 이르는 예가 발견되기도 해 실제 언어생활이 규범과 차이를 보인다.

- [여대생인 옥이와 담임선생님이 먼저 대화를 나누고 옥이와 선생님은 헤어진다. 그 후 다른 학생이 옥이에게 충고하는 장면이다.]  
 옥이: 선생님, ○○ 강좌의 철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우리 강좌의 관호 선생하구 생긴 것도 이름두 쌍둥이 같습니다.  
 선생님: ?  
 다른 학생: 옥이야, 말버릇이 그게 뭐니? 말끝마다 선생, 선생 하지 않나? 그 리고

선생님을 부를 때는 이름을 꼭 짚을 것이 아니라 성을 받쳐서 강 선생님, 김선생님 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 구 동무들 앞에서 늘 그러더니 봐라. 오늘 선생님이 얼마나 욕하셨겠니? 너학생이 도덕이 없다구. 난 옆에서 얼굴이 뜨거워 겨우 서 있었어. (우레, 225~226)

- [대학교 학생이] 지도교원을 잘 만나는 것이 열쇠인데 일 안 되는 놈 옆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러다가 유춘 선생과 맞다들리는 날엔 모든 게 끝장ियो. (소설, 교정의 룬리)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가리킬 때는 ‘담임선생’과 ‘담임선생님’을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교원인 남자가 은사께 선물할 물건을 보며] 담임선생이 이걸 받으면 좋아하겠습디다. 정말 특제품입니다. (소설, 교정의 룬리)
- [학부모가] 빨리 들어오세요. 영철이 담임선생이 와 계세요. (언생, 286)
- [학부모가] 그렇지 않아도 내 오늘 지나는 길에 시간을 내서 학교에 들렀댔다. 담임선생님이랑 만나구 경쟁 도표 이야기도 다 들었다. (소설, 아버지의 마치)

## 6. 기타 특이 사항

### 1) 접미사 ‘-님’의 분포

남한에서는 ‘기사님’, ‘과장님’ 등 접미사 ‘-님’을 직무나 직위명에 붙여 존대를 표현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님’은 일부 친족 호칭어, 최고 지도자 일가를 부르는 호칭어, 일반명사와 결합한 호칭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 훨씬 그 쓰임이 좁다. 남한의 ‘-님’과 유사한 존대 기능은 ‘동지’, ‘선생님’이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친족 호칭·지칭어: ‘형님’, ‘누님’, ‘따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할머님’ 등
- ㉡ 최고 지도자 일가를 부르는 호칭·지칭어: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등
- ㉢ 일반명사와 결합한 호칭·지칭어: ‘로인님’, ‘부인님’ 등<sup>23)</sup>

23) ○ 로인님, 계십니까? 로인님! (영상, 설 풍경)

○ 나는 선생님과 부인님 앞에 굽석 절을 하였습니다. (소설, 교정의 룬리)



접미사 ‘-님’을 붙인 존대형이 남북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 빈도에 있어서 남북 차이를 보인다. ‘부모’와 ‘부모님’의 경우가 그렇다. 남한에서 지칭어로는 (특히 자신의 부모를 가리킬 때) 보통 ‘부모’보다는 존대형인 ‘부모님’을 사용한다. 그러나 규범서 예문들과 소설 및 영상 자료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는 지칭어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사용한다. 만약 남한에서 예문에서처럼 자신이나 남의 부모를 가리킬 때 ‘-님’이 붙지 않은 ‘부모들’을 쓴다면 무례하게 들릴 것이다<sup>24)</sup>.

[자신의 부모를 가리킬 때]

- 이게 무슨 버릇이요, 안 돼. 부모들이 있는데. (우레 p.53)
- 가: 좀 더 있다 가구려.  
나: 역에서 부모들이 기다려요. (소설, 비결)
- 저희 부모들도 농장원입니다. (영상, 자기를 바치라)
- 여보, 부모님들을 잘 돌보오. 인차 오겠소. (우레 p.49)

[남의 부모를 가리킬 때]

- 가: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오?  
나: 저희 부모들도 농장원입니다.  
가: 동무네 부모들은?  
다: 농장원입니다.  
(영상, 자기를 바치라)
- 그애 부모님들도 모시고 평양에 가서도 도로관리원을 하면 되지 않겠니?  
(영상, 구봉령일가)
- 고향의 부모님들이 쉽게 봐 주던가? (영상, 빼국새가 노래하는 곳)

## 2) 직위 또는 직무명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형태의 사용

북한의 사회생활 호칭·지칭으로 ‘태진 직장장’, ‘영숙 선생님’처럼 이름에 직위나 직무명을 붙인 형태의 호칭·지칭 사용이 관찰된다. 이 경우 남한에서라면 이름보다는 ‘김 과장’, ‘이 선생님’처럼 성을 붙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북한에서도 ‘최 부장 동무’처럼 성을 붙인 형태가 사용된다. 그러나 ‘성국 부원 동무’처럼 이름을 붙인 형태도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24) ‘부모들’의 의미도 남북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프랑스 부모들’, ‘장애아동의 부모들’의 경우와 같이 여러 쌍의 부모를 이르는 말, 즉 ‘부모’의 복수형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부모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즉 한 쌍의 부모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인다.

- 아, 그건 혜선 참모장의 말 같구만요. (소설, 차 번호 ‘만-하나’)
- 하지만 대국 갱장만은 그렇지 않았다. (소설, 풋장내이)
- 지금 창조 소대장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지 알기나 하구들 그러오?  
(소설, 첫 소대장)
- 아! 태진 직장장이 끝내……. (소설, 빛나는 길 진군길)

<우레>에 따르면 상하관계나 친밀도, 격식성에 따라 두 형태의 빈도나 용법이 달라진다.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북한에서도 성을 붙인 형태가 더 일반적이다. 또한 친밀도가 높고 사적인 상황에서는 성을 붙인 형태가, 좀 더 격식성을 띄는 상황에서는 이름을 붙인 형태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생활에서 상급이 아래사람을 부르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박 동무!》, 《최 동무!》, 《윤 동지!》 등 그 사람의 성에다가 《동무》, 《동지》를 붙이거나 《박 부원 동무!》, 《최 부장 동무!》, 《윤 처장 동무!》 등 성에다가 직책명과 《동무》, 《동지》를 붙여 부르는 방법이다. 이런 부름말은 서로 잘 알고 있거나 오랫동안 사업한 허물없고 가까운 관계에서 아래사람을 부르는 방법이다. 상급이 아래사람을 부를 때에는 《성국 부원 동무》, 《정수 부장 동무》, 《진남 처장 동무》 등과 같이 이름에 직책명과 《동무》, 《동지》라는 말을 붙여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름말은 위에서 말한 성에다가 직책명과 《동무》를 붙여 부르는 방법과 함께 널리 쓰는 방법이지만 그에 비하여 때에 따라서 약간 공식적인 감이 느껴지게 되는 부름법이다. (우레, 68)

- 허윤은 직장장이 두고 간 용수의 스케치도면을 설아에게 주었다. “이게 용수 반장이 제기한 안이다. 심중히 대해야겠다. 방금 이 문젠 가지구 아버지 와 옥신각신한다.”  
(소설, 빛나는 길 진군길)
- [산과(산부인과) 회의에서 높은 사람이] 영준 선생, 어떻게 될까요? 기술혁신 과제.  
(영상, 따뜻한 우리집)

상급자를 부를 때는 북한에서도 성이나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단,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구별해 불러야 할 때는 ‘최 국장 동지’나 ‘정길 국장 동지’의 두 형태가 모두 사용된다. 둘 간의 용법 차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sup>25)</sup>. 그러나 남한에서는 상급자를 구별해 불러야 하는 경우 성을 붙인 형태만

25)윗사람에게 쓸 때 두 형태의 용법 차이에 대한 명시적 기술은 규범서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의 <우레> 예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보다는 성을 붙여 부르거나 이르는 것이 예의임을 보여준다.

- 그리고 선생님을 부를 때는 이름을 꼭 짚을 것이 아니라(‘철호 선생님’, ‘광호 선생’) 성을 받쳐서 강 선생님, 김 선생님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니? (우레, 226)

사용되며, 이름을 덧붙여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급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예절이지만 기관 안에 직책이나 직위가 같은 상급이 여러 명이 있어서 구별해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아래 사람은 《최 국장 동지》, 《정 처장 동지》, 《박 과장 동지》 등으로 상급의 성에 그의 직책명을 붙여 부르든가 《정길 국장 동지》, 《철성 부원장 동지》 등과 같이 성이 없이 이름에 직책명을 붙여 부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부름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예절이다. (우레, 76)

- 영순 관리위원장 동무, 저기서 누가 기다립니다. (연생, 236)
- [직장장이 두 명이 있는 상황] 어쨌든 우리 병만 직장장 동진 네가 여기서 갑자기 없어진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냐. (영상, 그 처녀의 이름)
- [과장 동지가 여럿인 것은 아님. 그러나 윤희 과장은 본인의 직장이 아닌 외부 기관-평양 육류관-의 과장이라는 점에서 구별해 주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임] 우리 직장장 동지가 지금 너와 함께 윤희 과장 동지를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야. (영상, 그 처녀의 이름)

사회생활 호칭·지칭으로 직위나 직무명에 성 또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 이름을 붙인 형태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3)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호칭·지칭

#### (1) 아바이

함남방언에서 ‘할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이’는 <조선말대사전>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 올라 있다. 나이가 지긋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를 뜻하는지 모호한데, 영상 자료를 통해 추정할 때 머리가 희끗한 60대 이상의 노인에게 쓰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 ‘설 풍경’에서는 ‘아바이’와 ‘로인’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임칠성(1997)은 영상 관찰 결과 아버지 또래, 남한의 ‘아저씨’ 쯤 되는 대상에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보다는 더 연령이 높은 층에게 사용하는 듯하다.

<우레>에서도 ‘아바이’는 사회에 널리 퍼져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소설과 영상에서도 ‘직무/직위+아바이’, ‘성+아바이’, ‘이름+아바이’, ‘지역+아바이’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아바이’는 초면이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 무례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우레>의 ‘청년들의 언어예절’을 다루는 장에서는 ‘아바이’는 친숙하고 허물없는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말로 초면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바이, 말 좀 묻자요》, 《아바이, 불 좀 붙이자요》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바이》라는 부름말을 쓸 때에는 대체로 너나들이의 말투를 쓰기 마련인데 이것은 친근한 느낌보다도 버릇없고 막 대하는 느낌이 더 들게 한다. 더욱이 초면인 경우에는 섭섭한 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은 《아바이》라는 말을 생활을 통해 잘 아는 사이에만 쓰고 초면인 경우에는 《동지》, 《아버님》으로 불러야 한다. (우레, 191)

- [잡지사 상사가 직원에게 취재를 지시하는 상황]  
상사: 그, 온성에 탁배기를 잘 담그는 아바이가 있다는만. 조태주라고.  
직원: 조태주 로인. (영상, 설 풍경)
- 박 아바이, 손주 며느리가 대접 잘해줍니까? (소설, 5시간 40분)
- 덕삼 아바이, 두 톤 반. 반 톤 초과요. (영상, 분조의 주인)
- 평양 아바이도 빨리 여기 오우다. (소설, 5시간 40분)
- 운전사 아바이랑 모두들 평양에 오면 꼭 들리십시오. (소설, 5시간 40분)
- [중, 장년 상급 남성이 흰머리 하급 남성에게]  
소장 아바이, 립지를 돌아보러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영상, 자기를 바치라)

## (2) 동갑이

‘동갑이’는 <언생>과 <조례>에서 중년 이상의 친한 친구 사이의 호칭으로 소개되었다. <조선말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나이가 지긋하면서 비슷한 친구 사이라면 《동갑이》라는 말로 서로 찾고 부를 수 있다. 나이 같은 사람들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뜻 외에 허물없는 사이라는 친숙성의 뜻 빛 깔을 내비쳐서 다정한 느낌을 자아낸다. 중년 줄 이상에 들어선 사람들끼리도 서로 쓸 수 있다. (언생, 238)

- 동갑이, 어제 소설책을 보내주어서 잘 봤구만. (언생, 238)
- 여보게 동갑이, 어디 털어놓고 말씀해 보시우. (조례, 161)
- 동갑이 그 일을 맡아 주겠다니 고맙구만. (조례, 172)

#### 4) 사용자층 또는 사용 대상의 범위가 다른 호칭·지칭

##### (1) 처녀애<sup>26)</sup>

‘처녀애’는 ‘처녀아이’의 준말로서, 북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의 여자’뿐 아니라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소설과 영상에서도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처녀애’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1935년에 발간된 주요섭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에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같은 용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두 용법에서 남한에서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용법으로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진달래색 고무풍선을 끈에 매 쥐고 작고 통통한 다리를 재게 놀리며 뛰어 가던 네 댁살 나보이는 사내 녀석이 고무풍선에만 눈길을 팔다가 그만 마주 오던 중학생 처녀애와 부딪치었다. (소설, 교정의 룬리)
- 일곱 살 쯤 나 보이는 처녀애가 마당에서 망차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소설, 아버지의 마차)
- [소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넌 처녀애가 학교에도 안 가고 그런 일에 끼어들어, 응? (영상, 저 하늘의 연)

##### (2) 아저씨, 아주머니, 아지미

남한에서는 ‘아저씨’가 성인 남자 중 보통 30대 중반 이상, 장년 이상에게 사용되는데 반해<sup>27)</sup> 북한에서는 20대의 남성들에게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영상에서 20대 청년에게 학생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예들이 나타났다. ‘아주머니’의 경우도 유사하다. 남한에서는 ‘아주머니’는 주로 결혼한(또는 결혼했으리라 짐작되는 연령대의) 성인 여자에게 사용되지만 북한 영상에서는 대학생 등 20대의 여성에게도 사용되고 있었다. 경상 방언에서 ‘아주머니’의 뜻으로 쓰이며 남한 화자들에게 ‘아주머니’와 비슷한 의미로 유추될 수 있는 ‘아지미’의 경우도 북한에서는 20대의 여성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영상에서 확인된다.

- [여중생이 대학 연구생에게-길에서 모르는 사람인줄 알고 부름] 저, 아지미,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영상, 존엄)
- [남자 아이가 누나에게 20대 여성을 가리키며] 누나야, 저 아지미 우리 엄마 찾는 거 같애. (영상, 사랑의 거리)

26) ‘처녀아이’의 준말. / 처녀아이: 미성년의 처녀 또는 나 어린 여자아이. (<조선말대사전>)

27) <표준국어대사전>에 ‘아저씨’는 ‘남남끼리에서 남자 어른을 예사롭게 이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다.

### (3) 형님

‘형님’의 경우는 남북이 사용자층에서 차이를 보이는 호칭·지칭이다. 남한에서 ‘형님’은 주로 장년층 이상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소학교 학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북한 규범서에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을 부를 때에만 ‘형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학생이 1년 선배를 부를 때에도 ‘형님’을 사용하는 예가 나타나기도 한다.

- [대학생이 1년 선배에게] 형님, 그 선생의 말인즉은 내가 속물이라는 건데 이거야 어디……. (소설, 교정의 룬리)
- 소년단 경례를 한 철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저는 오늘 공장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소설, 아버지의 마치)
- [20대 남성이 초면의 30대 초반 남성에게] 형님, 난 황윤남이라고 불리요. (영상, 불길)
- 형님 학급에 춘도라는 형이 있지요? (우레, 112)
- 철수는 물을 마시며 기뻐하는 완호 형님에게 물었다. “형님은 어느 전투에 참가했 나요?” (소설, 아버지의 마치)

### 5) 초면의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아주버니’ 사용

남한에서도 가족 이외의 지인을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과 영상을 통해 볼 때 북한에서는 초면의 사람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아주버니’와 같은 친족 호칭·지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말대사전>의 ‘아버지’에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의 뜻도 올라 있다.

- [버스 기사가 승객 아주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어머니! 아침에 정말 안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용서하십시오. (영상, 사랑의 거리)
- [군인이, 자신의 처지를 듣고 처음 보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영상, 저 하늘의 연)
- [중년 여자의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음]  
이 어머니를 알아보겠니? (영상, 미결건은 없다)
- 풀벌레 소리만 찌룩거리는 북방산골 농촌마을의 인적 드문 행길 가에 오도 가도 못하고 서서 이절 줄 모르는 그를 역까지 데려다준 것은 선나문 살쥔 되었을 어떤 어머니였다. (소설, 한생의 초여름에)
- [중년 여자가 중년 남자에게] 아주버니, 이거 받으십시오. 아주버니 받을만합니다. (영상, 다시 만남시다)

## IV. 남북 높임법 비교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원만히 소통하고 언어예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높임법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에서도 언어예절을 바로 지키는 것이 사회주의 도덕의 기본 요구이며, 언어예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높임법 사용을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우생, 183). 이처럼 높임법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예의에 맞는 언어생활을 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그러나 높임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세부 양상은 조금 다른데, 이는 남북에서의 높임법이 각 사회의 생활양식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높임법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의 높임법 차이가 더 생겨나게 되었다<sup>28)</sup>.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의 높임법 차이 중 특징적인 차이들을 문법적 차원과 어휘적 차원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문법적 차원에서는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세분화하여 남북의 높임법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어휘적 차원에서는 높임법을 실현하는 어휘가 남북에서 어떻게 달리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 1. 문법적 차원

#### 1) 상대 높임법 비교

남북의 상대 높임법은 전체 체계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남한에서는 높임법 등급을 주로 6등급(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으로, 북한에서는 3등급(높임, 같음, 낮춤)으로 구분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듯이

<sup>28)</sup> 북한에서는 높임법 범주가 사회적 예의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예의적 관계도 달라진다고 보고 오늘날의 높임법 범주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발전하였다고 말한다(고영근, 1993:164).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의 3등급은 다시 6등급(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반말체, 해라체)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남북의 상대 높임법 등급 구분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서 3등급 구분 시 각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식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정순기(2005)와 김동찬(2002)은 3등급에 속하는 세부 등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권재일, 2006:162-163).

표 68. 정순기(2005)에서의 높임법 등급 체계

	등급	형태
높임	[하십시오]	버니다, 습니다
	[해요]	아요/어요/여요
같음	[하오]	오, 소
	[하계]	네, 데
	[반말]	지, 아/어/여
낮춤	[해라]	다

표 69. 김동찬(2002)에서의 높임법 등급 체계

	등급	형태
높임	[하십시오]	버니다, 습니다
	[해요]	아요/어요/여요
	[하오]	오, 소
같음	[하계]	네, 데
	[반말]	지, 아/어/여
낮춤	[해라]	다

<표 68>과 <표 69>를 보면, 정순기(2005)에서는 ‘높임’에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같음’에 ‘하오체’, ‘하계체’, ‘반말체’를, ‘낮춤’에 ‘해라체’를 두고 있으나 김동찬(2002)에서는 ‘하오체’를 ‘같음’이 아닌 ‘높임’에 포함시키고 있어 정순기(2005)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정순기(2005)와 김동찬(2002)의 차이는 상대 높임법 등급에 대한 판단 차이를 보여 줄 뿐 상대 높임법 자체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상대 높임법 체계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의 상대 높임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로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이다. 이를 상대 높임법의 각 등급 체계와 관련지어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하십시오체

북한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존대’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며, 북한 규범서에서는 ‘하십시오체’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가 어른에게 말할 때나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또는 특별히 존경해서 이야기해야 할 경우 (우생, 189)

남한에서도 ‘하십시오체’는 대체로 이와 같은 상황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할 때, 남한과 북한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상황 맥락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남북에서의 ‘하십시오체’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북한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십시다’를 사용한다. 남한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십시요’를 사용하지 않고 ‘-시지요’를 사용하지만(고영근·구본관, 2008:426), 북한에서는 ‘-십시다’를 사용하고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예의 바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젊은이가 옷사람인 할아버지에게 《령감! 밖에 나가자.》라고 말했다면 이때 말을 듣는 할아버지에게 사상은 전달되어 의사는 통하지만 옷사람에 대한 레절 관계가 잘 표현되지 않아 말을 듣는 상대방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님, 밖에 나가십시다.》라고 말했다면 옷사람에 대한 정중성과 존경이 잘 표현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양 정도와 친숙감을 느끼게 한다. (조례, 15).

이처럼 북한 규범서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십시다’를 사용하는 것이 정중하고 예의 있는 표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십시다’가 북한에서 정중한 청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북한 소설에서는 ‘-십시다’에서 ‘-시-’가 빠진 ‘-ㅂ시다’가 ‘-십시다’의 기능을 대신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 [소년 소녀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와 함께 잡시다! (소설, 아지랑이 피는 들)

남한에서는 ‘선생님’에게 ‘-ㅂ시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한편, 북한 영화와 소설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에 쓰일 만한 자리에 ‘-시자요’를 쓰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 [노인에게]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자요. (영상, 설 풍경)
- [사위가 장인에게] 집에 들어가시자요. (영상, 비가 멎은 뒤)
- 여보, 함께 가시자요. (소설, 망부암)
- “아버지, 나가시자요.” 철옥이가 증석의 팔을 잡아끌었다. (소설, 비결)
-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생활이란 역시 간단치는 않구만요. 이젠 가시자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소설, 빛나는 길)

이처럼 북한에서는 윗사람에게 사용되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ㅂ시다’, ‘-ㅂ시다’, ‘-시자요’의 형태는 사용되지만, 남한에서 곧잘 쓰이는 ‘-시지요’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서는 ‘하십시오체’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즉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반드시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례, 131)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의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맹세와 열렬한 축하, 절절한 소망을 담아 삼가 글을 올릴 때 가장 높이고 정중한 표현을 쓴다.

- 1) 가장 높이는 정중한 말차림토를 쓴다.
  - 《습니다/ㅂ니다》 계열의 말차림토를 쓴다.
- 장군님, 발갈이는 념려 마십시오. 남편이 있을 때 못지 않게 올해 농사를 잘 짓겠 습니다.
- 최고 사령관 동지! 이 동무가 무명고지전투에서 적 땅크를 까부신 그 꼬마 전삽니다. (하략)...

남한에서도 대통령과 같이 지위가 최고로 높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만 이를 언어예절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서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반드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북한의 언어 예절은 특징적이다.

## (2) 하오체

북한에서는 ‘하오체’를 ‘존대’ 범주로 보기도 하고 ‘같음’ 범주로 보기도 한다. 비록 ‘하오체’의 등급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기도 하지만 ‘하오체’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인식하는 것은 공통된다.

이야기 듣는 사람이 대등한 사이나 그리 친숙하지 못한 경우, 또는 손아래 사람이기는 하나 좀 대접해서 이야기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말투 (우생, 190)

‘하십시오체’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하오체’를 사용하는 상황맥락은 동일하다. 다만, ‘하오체’와 관련된 가장 큰 차이는 남한에서는 ‘하오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반면(홍중선 외, 2009:13), 북한에서는 ‘하오체’가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부부간의 대화에서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하오체’가 일반적이다.<sup>29)</sup>

- 벌써 아침식사가 다 되었소? 첫새벽에 일어났구만. (연생, 287)
- 일찍 일어난다는 게 그만 좀 늦었소. 마당 청소는 내가 하지. (연생, 287)
- 함께 식사하기로. 당신도 빨리 떠나야 하지 않소. (연생, 287)
- 영철이 옷은 내가 입혀주지. 어서 떠날 차비를 하오. (연생, 287)
- 어제밤에 열이 있다더니 어떻소? (연생, 287)
- 나 먼저 출근하겠소. (연생, 287)

북한 소설에서도 ‘하오체’가 성인 남성들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틀림없소. 운곡 자재 과장이 의뭉스럽다니까. 언제 그걸 다 가져다 놓았는지… (소설, 5시간 40분)

29) 부부간에 ‘하오체’ 사용은 연령과 친밀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갓 결혼했을 때에는 서로 ‘해오체’를 쓰며 아내는 ‘하십시오체’도 섞어 쓴다. 나이가 좀 들면 남편 쪽에서는 ‘해오체’에 ‘하오체’를 섞어 쓰며 나이가 많아져서 정도 깊어지고 허물없는 사이가 된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하오체’를 쓰게 된다. 이때에도 아내 쪽에서는 ‘해오체’를 섞어 써서 정답고 상냥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낸다(조례, 175).

- 그러니 주자고 하겠소? 광산 기계에두 써야 하는 거겠지요? (소설, 5시간 40분)
- 부비서 동무, 비서동문 어데 가셨소? (소설, 기준)
- 회의가 며칠 후에 있다던데 벌써 떠났소? (소설, 기준)
- 바다에 나가기보다 우선 신중히 의논을 해야겠소. (소설, 초석)
- 멸절한 배일 수가 없소. 설계가가 미심쩍게 여기는 이상 리해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안전을 확정하도록 해야 하오. (소설, 초석)
- 아니 여보, 여기 수자들이 뭐라고 적혀 있소? 어서 안경은 가져다주오. (소설, 망부암)

다음에서 다룰 ‘하계체’, ‘해라체’, ‘해체’의 사용은 남북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에 대해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하계체

북한에서는 ‘하계체’를 ‘같음’ 범주에서 다루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인식한다.

이야기 듣는 사람과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사이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더러 ‘하계투’를 쓴다.

《래일 총화를 준비를 잘 하계.》, 《동무가 창안했다는 기계의 설계도면을 좀 보여주계.》와 같이 말한다.

우리의 할머니들의 말 가운데서 《여보계, 내 말 좀 듣계! 자네 안사람은 왜 좀 안 데려오나?》 하는 투의 말을 듣는다. 할머니들의 이 말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 손자벌 되는 사람을 대접해서 친근하게 하는 말씨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말투를 흔히 쓴다. (우생, 190)

‘하계체’는 북한의 영화와 소설에서도 별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4) 해라체

북한에서는 ‘해라체’를 ‘같음’ 범주에서 다루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인식한다.

어른이 아이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아주 가까운 사이에 한해서) 말할 때 《해라》를 사용한다.

- 영숙아, <세 아동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아라.
- 애, 마루를 깨끗이 닦으려무나.
- 붉은 넥타이를 사 주마. (우생, 190)

‘해라체’와 관련하여 남북이 차이 나는 점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남북에서의 ‘해라체’ 용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5) 해체

북한에서는 ‘해체’를 ‘갈음’ 범주에서 다루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인식한다.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숙한 사이거나 둘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똑똑히 밝힐 수가 없어서 우물우물 넘기려 할 경우, 또는 상대편을 알아보아 말할 때 사용하는 《반말투》를 쓴다. (우생, 191).

‘해체’도 ‘해라체’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차이 나는 점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남북에서의 ‘해체’ 용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해체’에 ‘-기요’라는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기요’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sup>30)</sup>

맺음을 나타내는 폴이토의 하나. 입말에서 정답게 무엇을 약속할 때 쓰인다. 토‘요’가 들어가 있으나 거의나 ‘반말계렬’임을 나타낸다.

‘-기요’는 다음에서처럼 북한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 하하… 옴소! 옴게 말했소. 자, 동무들! 우리도 하기요. (소설, 높은 요구)
- 이젠 그만하고 밥 좀 먹기요. 배고프구만. (소설, 비결)
- 쓸데없는 소릴 하는구만. 이젠 그만하기요. 당신도 늙소. (소설, 비결)

30)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기요’를 ‘해체’의 어미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는 ‘하오체’와 어울려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사전의 뜻풀이를 따라 ‘-기요’를 ‘해체’의 어미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 (6) 해요체

북한에서는 ‘해요체’를 ‘존경’ 범주에서 다루고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체’에 ‘요’를 덧붙여서 만든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해요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요》 계열의 토들은 《습니다/ㅂ니다》 계열의 토들보다 덜 높이고 정중한 감은 약하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친근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습니다/ㅂ니다》가 보다 남성적이고 공식적이라면 ‘해요체’는 보다 여성적이며 사사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례, 54)

《…요》 계열의 뱃음토들은 《습니다/ㅂ니다》 계열의 토들보다 덜 높이기는 하지만 주로 사사로운 환경에서 높이는 레절 표시로 쓰이며 공적인 환경에서는 상냥스럽고 친절한 감정을 가지고 대할 때 쓰인다. 따라서 이 계열의 토들은 여성들과 어린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여성들에게 말할 때 많이 쓰이며 어린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방송, 교육적 환경을 비롯하여 아래사람을 대접하여 말할 때 쓰인다. …(중략)…

- 어머니! 할머니랑 벌써 떠나셨군요.
- 직장장 동지! 그 일은 우리 여성 작업반에서 해내겠어요.
- 자, 소년 단원 동무들! 우리 함께 꽃밭을 가꾸 보지요.
- 영철 학생! 이번 학기에는 꼭 최우등생이 되어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려야 해요. (조례, 15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요체’와 관련하여 남북이 다른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는 ‘해요체’를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높임법으로 보는 반면 남한에서는 성별에 뚜렷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로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해요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해요체’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투임을 잘 보여 준다.

- 어서 일어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연생, 285)
-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연생, 285)
- 밤에 머리가 아프다더니 좀 어떠세요? (연생, 285)
- 다녀오세요. (연생, 285)
- 저녁에 늦지 마세요. (연생, 285)
- 밥이 다 식어요. (연생, 285)

남한에서는 ‘해요체’가 “꼭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지만 가정에서는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표례, 154)으로 보고 있을 뿐, 여성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높임법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인 남성이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한의 소설, 영상에서도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를 사용할 뿐 ‘해요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 규범서에서는 ‘해요체’가 오늘날 남자들 속에서도 점차 쓰인다(조례, 151)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이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남한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해요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라요’, ‘-시라요’, ‘-자요’처럼 남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 일부 발견된다.

- 빨리 빨리 타라요. (우생, 191)
- 다음 차를 리용하시라요. (우생, 191)
- 안심하고 빨리 돌아 오시라요. (소설, 나무가의 밤 이야기)
-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요? 좀 웃으라요. (소설, 비결)
- 좀 더 하자요. 이제라도 불들을 달구어 올가요? (소설, 비결)
- 그 애야 도시에서 공부하고 또 큰 병원에 배치됐다고 얼마나 좋아 했어요. 뒤 둔 자요. 대처에서 살면서 좋은 대상자를 만나게 하자요 뭐. (소설, 비결)

명령형 어미 ‘-라’와 청유형 어미 ‘-자’ 뒤에 ‘요’가 붙은 것은 명령과 청유를 좀 더 부드럽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지만 북한에서도 높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든 말에 ‘요’를 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타라요’, ‘리용하시라요’ 식의 말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우생, 191). ‘-자요’, ‘-라요’, ‘-시라요’가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높임법 표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주체 높임법 비교

주체 높임법은 조사 ‘께서’, 선어말어미 ‘-시-’, 접미사 ‘-님’ 등을 통해 주로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각각에 대해 남북이 차이 나는 것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 (1) 존칭 조사 ‘께서’의 용법

‘께서’가 주체가 존대를 받아야 할 높은 사람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는 점에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

- 할아버지께서 부르신다. (우생, 188)
- 위원장동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우생, 188)

그런데 북한 규범서에 따르면, ‘께서’가 점차 최대 존경의 뜻으로 쓰이면서 가장 존경하고 높이 모시는 분에게 점차 쓰이고 있는데, 이는 인민들의 언어사용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조례, 86). 즉 ‘께서’는 본래 행동의 주체를 높일 때 두루 사용하는 조사이지만 지금은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일 때 주로 사용되는 조사로 기능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께서’의 사용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소설에서 최고 지도자 일가 이외의 주체에 대해 ‘께서’를 사용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고<sup>32)</sup> 대신 ‘이/가’ 또는 ‘은/는’이 사용되고 있었다.

- 선생님이 널 찾아. 무슨 모임을 하는데 네가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애. (소설, 아버지의 마차)
- [성인 여성이 할머니에게] 아니예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지만 외롭게 사지면 절대로 안돼요! 우리 나라는 외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아닌가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우리 아버지도 무척 기뻐할 거예요... (소설, 오후 5시)

북한 소설에서 ‘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붙이고 있었다.

- 그 이듬해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식수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을 했고 김정숙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수만 그루의 나무모를 군내 인민들과

31) 남한에서도 ‘께서’는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어에서는 ‘께서’와 같은 조사보다는 ‘이/가’ 등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깎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께서’ 등으로 높이도록 한다(표례, 153-154).

32) 소설에서 일반인에게 ‘께서’가 사용된 예는 다음의 예가 전부라 할 만큼 극히 적었다.

- 부인께서는 누구십니까? 저의 인생의 영원한 스승을 가슴속에 새겨 두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소설, 푸른 사랑)
- 어머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한 켤레의 신, 그런데 지금은 계시지 않은 어머님을 대신해서 동생 철수가 이것을 보자기에 싸들고 량강구까지 찾아왔었지... (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



함께 결혼식기념으로 심었소. (소설, 푸른 사랑)

-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평양에서 전국 자력갱생 모범 일군 대회를 소집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었습니다. (소설, 결석 대표)
- 그렇게 군단 사령부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몇 시간 전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군단을 현지시찰하시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설, 높은 요구)
- 글쎄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라의 국장에다 이 언채를 새겨 주시었구나. (소설, 언채)

## (2) 접미사 ‘-님’의 용법

북한에서도 행동의 주체를 높일 때 접미사 ‘-님’을 붙인다.

- 옥순아, 선생님이 저기 오신다. (우생, 187)

그러나 북한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사회적 직급일 때, 예컨대 ‘과장’, ‘지도원’, ‘대위’가 주체가 될 때는 그 뒤에 ‘-님’을 붙이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사회적 직급에 ‘-님’을 붙이는 표현법은 낡은 사회에서 쓰였으나 오늘 문화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조례, 98). 따라서 ‘과장님’, ‘지도원님’, ‘대위님’과 같은 표현은 북한에서는 사용해서 안 되는 표현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호칭·지칭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한다.

## (3)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의 용법

‘-시-’가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와 관련하여 ‘-시-’의 독특한 용법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시-’를 다음과 같은 방식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례, 115-134).

- ①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 문장의 술어에 ‘-시-’를 반드시 붙여 최대의 존경을 표시한다.
- 실로 장군님께서는 짓밟힌 조국을 건져 주시기 위해 탄생하신 거룩한 분이시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가 공작 기계 생산에서 자동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소.

주체를 높이기 위하여 서술어에 ‘-시-’를 쓰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남북이 동일하다. 남한에서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시-’를 사용하고 있다.

② 최고 지도자 일가와 관련되었을 때 그 문장의 접속술어에도 가능한 한 ‘-시-’를 붙여 최대의 존칭 표현을 한다.

○ 그러자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목적을 내보시이면서 아버님께서 그 목적에 적어주신 대로 걸으시고는 주무시고 주무시고는 걸으시고 어디어디에서는 아버님께 어딜 지 난다는 전보도 치시군 하시면서 오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 현실적으로 뵈옵는 장군님께서는 참말 상상밖에 소박하시고 겸손하시며 소탈하시였다.

접속 술어에 ‘-시-’를 사용함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의 두 번째 예문에서처럼 술어가 여러 개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남북이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표례>에서는 용언이 여러 개 연속될 때 다음과 같이 ‘-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용언에도 ‘-시-’를 넣을 수 있다.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시-’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름]이/가 일을 마치고 갔다.’를 높여 말하는 경우 ‘○○[이름]이/가 일을 마치고 가셨다.’ 또는 ‘○○[이름]이/가 일을 마치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가능한 말이다. (표례, 153)

이처럼 남한에서는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연스럽지도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해서는 술어마다 ‘-시-’를 넣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③ 술어가 합성용언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정도로 두 용언에 다 ‘-시-’를 붙인다.

- 장군님께서는 목이 꼭 메시여 말씀올 못 하시고 그렇게도 맑고 친진스러운 명숙의 눈을 피하시며 머리를 돌리시고 마시였다.
- 나는 정말 사령관동지께서 나 한 사람만이라두 걱정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싶네.
- 하기에 사령관 동지께서는 그 간고한 길을 헤쳐 오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한두 번 넘으시지 않으시였으나 그 돈만은 쓰시지 않으시고 고이 남겨 두시였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와 관련하여 본용언과 보조용언 모두에 ‘-시-’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술어가 합성용언으로 표현되는 경우, 보조용언만을 높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다는 점에서 남북이 차이를 보인다.<sup>33)</sup>

- ④ 최고 지도자 일가의 품모와 덕성, 작품 등과 관련한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로 될 때 그것을 풀이하는 술어에 ‘-시-’를 붙여 정중성을 표시한다.
- 장군님께서 내짚으신 이번 걸음은 남호두회의에서 토의결정하신 대로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한 뜻깊은 걸음이시였다. (명사 술어)
  - 일제의 백만대군을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안고 개선하신 분의 마음이신들 소리 치며 메아리쳐 들려올 고향을 지적에 두시고 얼마나 설레이실 텐가! (동사술어)
  - 원수님께서는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니 감회가 깊으시였다. (형용사술어)
  - 한 평생을 바치시며 수령님 걸어오신 혁명의 길 그 길에서 맞으신 새벽은 얼마이신가. (대명사술어)

이는 간접높임<sup>34)</sup>과 관련된 문제로서, 남한에서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주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어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의 품모, 덕성, 작품 등과 관련한 단어를 높이기 위하여 서술어에 ‘-시-’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매우 어색한 높임 표현이 나타나기

33) <표레>에서는 ‘읽으시고 계시다.’보다는 ‘읽고 계시다.’가 적절한 말이라고 하였다. (표레, 153)

34) 북한에서도 간접높임이 널리 쓰이고 있다.

- 힘이 세시거든!
- 귀가 밝으신데.
- 키가 크시다.

북한에서도 위의 표현들은 잘못된 말이 아니며 우리 말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글의 주어들인 ‘힘’, ‘키’, ‘귀’ 등이 ‘세다’, ‘크다’, ‘밝다’라는 말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과 이야기 가운데서는 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체로 되는 대상이 이야기 가운데서 생략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였다(우생, 187).

도 하는데, 예컨대 마지막 예문에서 ‘새벽은 얼마이신가’는 남한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높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⑤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어와 직접 관련되는 술어가 다시 규정어로 되는 경우 ‘-시-’를 써야 한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 투쟁은 폭풍과 격랑, 우리와 암초, 그 모든 것을 뚫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기슭으로 당도하였습니다.
  -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불사약이었다.

남한에서도 주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술어가 관형어가 될 때 ‘-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동일하다.

- ⑥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시-’를 쓴다.
  - 그의 가슴속에는 위대하시고 영명하신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긍지와 행복 그리고 수령님의 전사된 영예감이 밀물처럼 그들먹이 차올랐다.

남한에서도 높여야 할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다르지 않다.

- ⑦ 최고 지도자 일가의 품모와 덕성, 영상에 대하여 정중히 표현한 단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에도 ‘-시-’를 쓴다.
  - 장군님께서 더욱 깊어지시는 가슴 아프심을 느끼시며 어린 영숙을 꼭 껴안으셨다.
  - 그러나 너의 생일이 틀림없다고 일러 주시는 듯한 장군님의 정겨우신 눈길에 접하자 봉길이는 불쑥 붉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경우 ‘-시-’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의 차이가 뚜렷하다. 위의 예문에 등장하는 ‘깊어지시는’, ‘정겨우신’ 등은 남한에서 매우 어색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⑧ <에 대하여>, <을 위하여>, <에도 불구하고>, <를 향하여>... 등과 같은 표현이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쓰일 때 거기에 ‘-시-’를 붙일 수 있다.

- 인민을 위하시<sup>는</sup> 아버지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 커 지시고 깊어지시<sup>었다</sup>.
- 대원들이 것처럼 만류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sup>시고</sup> 끝내 장군님께서<sup>는</sup> 병원 귀틀 집 안에 들어가시<sup>어</sup> 매환자들을 일일히 손잡아 보시고 이마를 짚어 보시<sup>며</sup> 따뜻이 보 실피시<sup>었다</sup>.

‘에 대하시<sup>어</sup>’, ‘을 위하시<sup>어</sup>’, ‘에도 불구하고<sup>시고</sup>’, ‘를 향하시<sup>어</sup>’ 등과 같은 표현이 남한에서도 가끔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나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하여 반드시 ‘-시-’를 붙이도록 한 것은 남한과 차이 난다고 할 수 있다.

⑨ 최고 지도자 일가를 표현하는 단어에 <야(이야)>, <야 말로>와 같은 조사를 붙일 때 ‘-시-’를 함께 붙여 쓴다.

- 장군님이<sup>시</sup>야 그때 한 번인들 편히 주무셨<sup>겠</sup>소. 마촌에서 떠나셨<sup>다</sup>면서 우리 집에 들리시<sup>군</sup> 하셨<sup>는데</sup> 그때마다 언제나 장군님께서<sup>는</sup> 늘 새벽에 들리<sup>셨</sup>소.
- 진정 우리 수령님이<sup>시</sup>야말로 우리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sup>기</sup>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시는 인민의 수령이<sup>십</sup>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기 위하여 ‘-시-’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마땅히 높여야 할 대상이 주체가 되었을 때 ‘-시-’를 사용하지 않는 예들이 종종 발견된다.

- 요 전날 춘성이 할머니가 발전소 건설장에 찾아와서 했던 말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sup>겠</sup>습니다. (소설, 비결)
- 그 할머니는 우리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아름다와지고 순결해<sup>졌</sup>다고 말했지요. (소설, 비결)
- 손님: 판매원 동무, 이걸 좀 주세요.  
점원: 왔군요. (영상, 시대가 주는 이름)
- [점원이 손님에게] 뭘 사겠<sup>어요</sup>? (영상, 행복의 수레바퀴)

남한에서는 ‘하셨던’, ‘말씀하셨지요’, ‘오셨군요’, ‘사시겠어요’와 같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소설에서는 ‘-시-’가 빠진 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높여야 할 대상에게 ‘-시-’를 사용하지 않는 예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은 주체를 높이는 ‘-시-’가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일반인들을 높일 때는 그보다 덜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3) 객체 높임법 비교

객체 높임법은 존칭 조사 ‘께’, 접미사 ‘-님’, 높임의 어휘 등을 통해 주로 실현된다. 접미사 ‘-님’에 대해서는 주체 높임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높임의 조사 ‘께’와 높임의 어휘를 통한 객체 높임법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 (1) ‘께’의 용법

‘께’는 객어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조사로서 남북의 용법이 동일하다. 북한에서도 사람에게 대하여 존경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에게’ 대신 ‘께’가 사용된다.

- 아버님께 인사드려라. (조례, 87).
- 선생님께 책을 드린다. (조례, 87).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처럼 남한에서 ‘께’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리에 북한에서는 ‘에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께’의 사용은 남한에 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지배인동지에게서야 뭘 숨기겠습니까. 우리 소장동지에게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소설, 푸른 잎)
- 하지만 그 분에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찾아가 사정하지두 말구요. (소설, 푸른 잎)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 ‘께’가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일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하여는 문어와 구어에 상관없이 반드시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고 지도자 일가가 객체가 되었을 때는 항상 ‘께’를 사용한다. (조례, 121)

- 김정숙 동지의 빛나는 생애,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 다한 조선공산주의자의 거룩한 한생이였습니다. (조례, 121)
- 교육 문제는 사령관 동지께 있어서 가장 낮은 문제의 하나이시기도 하시었다. (조례, 121)

이처럼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기 위하여 ‘께’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일반인에 대해서는 ‘께’를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2) 높임의 어휘 사용

북한에서도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높임의 어휘가 사용된다.

- 그래서 어느 때에 가서는 꼭 아버지한테 생활방식을 고칠 데 대하여 여쭙리라고 별리 오던 차에 이번에 들은 사고 소식과 아버지의 불쾌한 걸음을 보자 더는 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설, 빛나는 길)
-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난 다르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공하면 그때에 어머니를 꼭 찾아뵙겠어요. (소설, 마지막 배우 수업)
- 아니, 로인님은 집에다 그분을 모시구 있으면서 여기 와서 찾으시면 어찌자는 겁니까.” 하고 어이없다는 투로 말하는 것이였다. (소설, 원한번째)
- 왜 이렇게 수령님을 뵙고 싶은 생각뿐이나... 눈만 감으면 통 수령님 생각뿐이로구나.
- 장군님을 만나뵙읍자던 오랜 숙망을 푼 자기보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던 장군님!
- 장군님, 제 명이 다하는 데까지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sup>35)</sup>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처럼 높임의 어휘를 사용하여 행동의 객체를 높이는 방식은 남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5) ‘모시다’는 최고 지도자 일가의 영상과 동상, 초상화, 미술 작품, 사적비들을 정중히 표현하기 위하여 서도 쓰인다.

- 그들은 새집들이 하는 날 제일 밝고 아담한 방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었다.
- 오매에도 그림던 사회주의 조국을 찾아온 그들은 만수대 언덕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꽃 바구니를 드리었다.

## 2. 어휘 차원

객체 높임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일 수 있지만, 어휘는 문장의 객체뿐만 아니라 주체와 청자를 높일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에서 어휘와 관련하여 높임법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 중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높임 어휘

높임 어휘 중에는 남북에서의 용법이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북한 규범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춤말과 높임말의 대응쌍의 일부로서, 남한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낮춤말	높임말
말	말씀
말하다	말씀하시다
떡다	잡수시다
밥	진지
배고프다	시장하다
병	병환
시키다	분부하시다
안해	부인
없다	안 계시다, 계시지 않다
이름	성함, 명함, 존함
있다	계시다
자다	주무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서거하다
집	댁
태어나다	탄생하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해 말할 때에는 언제나 높임의 어휘들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강세호 동지도 뵙기는 아침에 만나뵙겠는데 사령관 동지께서 주무시는 이 집 울타리 밖에까지만이라도 와 보자구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 사령관 동지께서 지금 어디 계시오?
-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등대불을 끄더라도 아이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답니다.

## 2) 북한에서의 사용역이 제한된 어휘

높임 어휘 중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만 주로 사용됨으로써 사용역이 매우 좁아진 어휘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현지 지도하다’, ‘교시하다’, ‘친솔하시다’, ‘심려하시다’, ‘보살피시다’, ‘배려하시다’, ‘선물하시다’, ‘심려’, ‘배려’, ‘선물’, ‘성함(존함)’, ‘안광’, ‘안색’, ‘신상’, ‘저택’, ‘몸소’, ‘친히’, ‘손수’, ‘가르치심’, ‘보살피심’, ‘부르심’ 등과 같은 단어들은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는 데만 주로 사용되고 있다(조례, 121-129).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와 청진시를 현지 지도하시였다.
- 어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전사들은 의사에게서 생명을 구출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전사에게 다시 총을 잡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친솔하시고 또 다시 압록강을 건너시여 무산 지구에 진출하시였다.
- 장군님께서는 군을 통솔하시는 사령관이실 뿐 아니라 그 각자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 지시고 한품에 맡아 안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 사령관 동지께서 심려하시지 않도록 처신하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일하구 잘 받들어 올려야 하오!
- 장군님께서는 친히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없도록 보살피시였습니다.
-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친솔하시고 또 다시 압록강을 건너시여 무산 지구에 진출하시였다.
- 장군님께서는 군을 통솔하시는 사령관이실 뿐 아니라 그 각자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한품에 맡아 안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 사령관 동지께서 심려하시지 않도록 처신하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일하구 잘 받들어 올려야 하오!
- 장군님께서는 친히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없도록 보살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 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있었다.

- 동무들은 이번 전투 과업을 꼭 수행하여 아버지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립시다.
-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 있습니다.
- 인민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시면 그 작물을 저택의 정원에서까지 몹소 가꾸어 보시면서 한해 동안에만도 10여 차례의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겠는가.
- 맨주먹으로 두드려 만든 첫 트랙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달아날 때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였지만 아버지 수령님께서만은 언제 한 번 안색을 달리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따듯이 고무해 주셨습니다.
-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그 바쁘시던 해방직 후 몹소 이곳에 찾아오시여 높고 험한 산밭들을 오르 내리시면서 대자연 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 주시였습니다.
-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친히 키우신 우수한 대원들을 파견하시여 부대를 강화해 주시곤 하시었소.
-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저희들의 외람된 소원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손수 풀어 주시었습니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협의회에서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은 참가자들에게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의 앞길을 밝혀 주었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아버지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서 그들은 어엿한 야금기사로 자라났다.
-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일떠선 조선 인민의 기상이었다.

한편, 대명사 ‘그분’도 최고 지도자 일가를 지칭하는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쓰인다.

- 무명 바지저고리와 짚신을 신은 몸차림으로 장군님 앞에 나서기를 저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분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갔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더없이 반가워하시며 전사의 아들을 뜨겁게 애무해 주시었다.

‘그분’이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반면, ‘그이’는 최고 지도자 일가를 지칭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높일 때도 사용된다.

- 아버지 수령님의 품속에서 그이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우리들이 아닙니까?
- 선생님이 보증 좀 서십시오. 그래 우리 언덕 아버지가 훈장을 탐내 그런 걸 만들 댔나요? 유해가스 속에 생명을 내던 그이를 어찌면... (소설, 아지랑이 피는 들)

북한에서 사용역이 제한된 단어들은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그 용법을 제한한 단어들이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만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용법에서는 거의 대부분 최고 지도자 일가와 관련해서만 사용함으로써 단어의 사용역이 매우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 3) 북한에서만 높임의 기능을 갖는 어휘

높임 어휘 중에는 남한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하는 어휘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귀대명사 ‘자신’이다. 북한에서는 높이는 대상에게는 ‘자신’을 쓰며 대등한 사람에게는 주로 ‘자기’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대등한 사람을 조금 대접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조례, 101). 즉 북한에서는 재귀대명사 ‘자신’이 ‘자기’와 달리 높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여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 아버님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시었다. (조례, 101)
- 그날 회의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신 듯 아무 말씀이 없었어. (조례, 143)

북한에서 ‘자신’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재귀대명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정중한 표현에서 돌이킴대명사는 《자신》만이 쓰인다.
- 그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이지 않으시고 자신께 차례지는 자그마한 기쁨도 아랫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령관동지이시었다. (조례, 128)

### 4) 남한에서만 높임의 기능을 갖는 어휘

높임 어휘 중에는 남한에서는 높임의 기능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전혀 높임의 기능이 없는 어휘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귀대명사 ‘당신’이다<sup>36)</sup>.

36) ‘당신’이 2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는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높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당신’은 2인칭으로만 사용될 뿐 오늘날에는 재귀대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① 부부나 사랑하는 사이나 스스럼없이 썩 가까운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대편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인 대명사.
  - 여보! 당신은 몇 시에 돌아오시겠소.
  - 당신 말이 맞았소.
- ② (공식적인 성격을 띤 말이나 글 또는 외교적인 문서에서) 이야기되는 상대편을 높이어 가리키는 말.
  - 군단장 동지, 절 용서하십시오. 전 지금에야 비로소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당신의 생명선이라고 한 그 말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 ③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 상대편을 가리키는 말.
  - 여보시오. 당신과는 더 할 말이 없으니 가도 좋소.
- ④ 맞서 싸울 때나 언쟁을 할 때에 상대편을 깔보아 가리키는 말.
  -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시는 상종을 안하겠소.

전날에, ‘자기’란 뜻으로 웃어른을 높이어 가리키는 제3인칭 단수 대명사.

- 그 어른은 당신 따님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으면서 이번 따님의 연구발표회에 우리 내외가 꼭 같이 오라고 당부하였소.
- 며느리 없는 어머니는 당신 손으로 짓고 끓인 밥과 국을 대하고 앉았다.

한편,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당신’의 용법 중 재귀대명사로서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④ ‘자기03[Ⅱ]’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도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신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당신’이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재귀대명사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높이어 도로 가리키기 원할 경우 ‘당신’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

## 5) 낮추는 어휘

북한에서는 어휘를 통해 상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는 낮추는 언어예절도 다른 언어예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상에 맞게, 환경과 조건에 맞게 옹계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조례, 177-181 참조). 예컨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래라고 하여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적 기풍이며 경멸, 야유하거나 낮잡는 어감을 가진 것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성구, 속담을 쓰는 데서도 아래사람이라 하여 너무 저속하거나 비문화적인 것을 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에 대해서는 낮추는 언어예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미워하고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는 것은 노동 계급의 계급적 본성이며 북한 혁명 발전의 근본 요구라고 하였다. 이에 북한에서는 일상 사회생활 과정에 주고받는 말에도 경멸, 증오적인 표현들을 골라 써서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을 미워하고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노동 계급적 입장을 튼튼히 지키며 견결한 투쟁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말에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경멸, 증오, 야유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골라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구장 녀편네는 대가리가 쏟다고 큰무당을 불러들여 매일 굿하느라 지랄인데... 그런데야 이 방망이가 약이지.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조례, 181)
- 등치고 간 빼먹는 강치부나 참새 골레 씩을 양치삼이나 다 같은 배속이었다. 놈들은 어리무던한 복순이를 군수에게 ‘제물’로 바치고 면장의 ‘룡상’에 들어 앉아 보자는 심사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조례, 181)

이와 같이 지난날의 착취 계급과 앞잡이들에 대하여서는 증오와 경멸의 감정이 강렬하게 나타나도록 그런 표현을 잘 찾아 써야 한다고 한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사람의 행동, 성질, 상태 등과 관련된 단어들 가운데 존경의 대상에게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조례, 193-200).

<명사>

가면, 가살, 가슴팍, 가탈, 간계, 간사, 간섭, 간악성, 갈구리눈, 감언리설, 갈괘질, 갈퀴눈, 강다짐, 거만, 거수기, 거짓말쟁이, 건달, 건달군, 겁쟁이, 겁꾸러기, 경거망동, 고자질, 고집불통, 고집쟁이, 고집통이, 골치거리, 골치덩이, 골딱지, 곰보, 공모자, 굽사등이, 구두쟁이, 군소리, 군짓, 궁둥이, 귀머거리, 괴물, 나이배기, 난쟁이, 날강도, 날강도질, 너털웃음, 녀두리, 녀살, + 녀석, 녀편네, + 년, 노적, + 놈, 눈쌀, 눈꼴, 눈깔, 눈딱지, 늑다리, 늑은것, 능구렁이, 다리질, 다리짓, 단말마, 도발, 도섭, 도적, 도적놈, 도깨비짓, 등쌀, 대가리, 롱간, 롱간질, 마굴, 망나니, 망발, 망동, 망태기, 멧덩이, 멧덩구리, 모양다리, 물골, 몸뚱이, 문둥이, 미치광이, 민충이, 바람쟁이, 바투보기, 반동, 반미치광이, 발광질, 반대머리, 별짓, 별짓, 별꼴, 병신, 볼꼴, 볼따구니, 불량자, 불량배, 빈말군, 빈소리군, 빈소리쟁이, 빈털터리, 빗쟁이, 벨머리, 사팔뜨기, 사팔눈이, 살인귀, 살인마, 상관, 상통, 석수쟁이, 심보, 심술꾸러기, 새침데기, 생둥이, 생소리, 생트집, 자만, 자만심, 자살, 자백, 잔등관, 잔등패기, 잔인성, 잠꾸러기, 잠귀신, 절름발이, 정탐배, 정탐군, 죽을상, 죽다, 지각머리, 지각사니, 잔소리군, 제앞가림, 제앞구실, 제앞치레, 제앞채기, 천더기, 천덕꾸러기, 추태, 키다리, 키క్క다리, 털보, 털부숭이, 투전군, 과별군, 과쟁군, 판무식쟁이, 하루강아지, 한통, 한통속, 할애비, 허풍쟁이, 허튼소리, 허튼수작, 허튼짓, 헛소리, 헛소리군, 헛장담, 험잡군, 험잡질, 행세군, 해살군, 까막눈, 까까머리, 깍쟁이, 꼭두각시, 꼴(좋다), + 꾸러기 (때꾸러기/잠꾸러기/장난꾸러기/걱정꾸러기/말썽꾸러기/트집꾸러기), 꼬나불, 깍소리, 폐짜, + 따위, 떡보, 떡바위, 떡쟁이, 똥판지, 아가리, 아귀다툼, 아침군, 아침쟁이, 아편쟁이, 악담, 악당, 악명, 안타개비, 앓음뱅이, 앞잡이, 야장쟁이, 언어도단, 얼뜨기, 엄살군, 엄살꾸러기, 엄살쟁이, 엉덩짝, 오만상, 옹고집, 옹고집쟁이, 요술쟁이,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울뚝뚝, 음모자, 이마빼기, 익살쟁이, 인간백정, 알패

<형용사>

가련하다, 가살스럽다, 가소롭다,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가증맞다, 가탈스럽다, 가혹하다, 각박하다, 간교하다, 간드러지다, 간사하다, 간악하다, 간악무도하다, 감굿다, 감사납다, 감때사납다, 강팔지다, 거만스럽다, 거만하다, 건방지다, 걸신스럽다, 검질기다, 검축축하다, 경망하다, 고루하다, 고리다, 고리삭다, 고리타분하다, 고탐지근하다, 고약하다, 교만하다, 교만스럽다, 교활하다, 구리타분하다, 구지레하다, 구점지레하다, 군던지럽다, 굼벵이같다, 궁상맞다, 극악무도하다, 갱충맞다, 계걸(이)들다, 계잘싸하다, 게저분하다, 게적지근하다, 괴죄죄하다, 귀신같다, 귀가 질기다, 너절하다, 눈치꼬치없다, 눈꼴사납다, 능갈맞다, 도섭스럽다, 독살스럽다, 둘하다, 등살이 꼴끗하다, 데면스럽다, 데통맞다, 데통스럽다, 되바라지다, 뒤넘스럽다, 란폭하다, 망측하다, 몽매하다, 몽탁하다, 무도하다, 미련하다, 메케하다, 멍청하다, 바그라지다, 방탕하다, 방정맞다, 볼꼴사납다, 볼꼴없다, 부실하다, 부화하다, 분별없다, 불손하다, 비굴하다, 빙충맞다, 사납다, 사람(을)잡다, 사부랑거리다, 살망굿다, 살망스럽다, 살벌하다, 심술사납다,

심술스럽다, 새망스럽다, 새암바르다, 생청스럽다, 생똥같다, 생똥하다, 썸판(이)없다, 자살긱다, 잔망하다, 잔망스럽다, 잔악하다, 잔악무도하다, 잔인하다, 잠꼬대같다, 잡스럽다, 저주스럽다, 저주롭다, 중뿔나다, 증상맞다, 증상스럽다, 증하다, 지독하다, 지독스럽다, 지르통하다, 질기다, 징그럽다, 징글맞다, 징글스럽다, 쥐꼬리만하다, 쥐뿔같다, 천격스럽다, 천덕스럽다, 천승맞다, 천승스럽다, 초라하다, 추잡스럽다, 추잡하다, 추악하다, 치사스럽다, 치사하다, 치욕스럽다, 퇴매하다, 퇴폐하다, 파렴치하다, 포악무도하다, 포악스럽다, 포악하다, 표독스럽다, 표독하다, 험상긱다, 흉물스럽다, 흉악무도하다, 흉악하다, 횡포무도하다, 횡포하다, 황당하다, 황당무계하다, 꼴갈지 않다, 꼴사납다, 껌끈하다, 아니꼽살스럽다, 악독하다, 악랄하다, 악명높다, 악착스럽다, 악착하다, 악하다, 암상긱다, 암상스럽다, 암상하다, 야만적이다, 야살긱다, 야살스럽다, 알망긱다, 알망스럽다, 알뵈다, 어기똥하다, 어리뻑뻑하다, 어발똥하다, 어스크레하다, 얼뜨다, 얼뻔하다, 영큼하다, 옹똥하다, 오도갑스럽다, 오만무도하다, 오만무례하다, 오만스럽다, 오만하다, 오망스럽다, 요망스럽다, 요사스럽다, 요사하다, 욕심사납다, 우둔하다, 우매하다, 우악스럽다, 우악하다, 유치하다, 음흉하다, 음흉스럽다, 음탕하다, 음충하다, 이지렁스럽다, 입정(이)사납다, 왈패스럽다

#### <동사>

가담하다, 가로채다, 갈개다, 갈팡질팡하다, 갇다, 감행하다, 거드럭거리다, 거들먹거리다, 거들렁거리다, 거꾸러지다, 곁핥다, 경거망동하다, 경치다, 결눈팔다, 결볼맞다, 고다(떠들다), 고문하다, 고자질하다, 고아대다, 곤두박이치다, 골치(를) 앓다, 골(을)내다, 골탕(을) 먹다, 공갈하다, 군소리하다, 굴종하다, 꿈지럭거리다, 굶신거리다, 개코망신하다, 게두덜거리다, 게바라오르다, 게바라다니다, 귀먹다, 나들거리다, 나이먹다, 나발(을)불다, 난탕치다, 날뒀다, 너들거리다, 녀살부리다, 녀살(이)나다, 노라치다, 노적부리다, 놀고먹다, 눌러불다, 눈꼴(이)니다, 늪어꼬부라지다, 내빼다, 덜미(를)잡히다, 덤벼치다, 덤벼때리다, 도발하다, 도사리다, 도섭(을)브리다, 독살(을)부리다, 돌아치다, 두드려먹다, 들고빼다, 들어불다, 드립다먹다, 되먹이다, 된불(을)맞다, 된서리(를)맞다, 말라빠지다, 말질하다, 망녕(을)부리다, 망발하다, 망태기(를)치다, 목대(가)세다, 무찔리다, 물고뜯다, 물어들이다, 미쳐날뛰다, 미치다, 바라다니다, 벗개다, +부리다, 사족(을)뭏쓰다, 살해하다, 살찌다, 시시덕거리다, 법석(을)놓다, 법석(을)치다, 벼락(을)맞다, 실똥거리다, 실쪽거리다, 생눈(을)뿔다, 생먹다, 생색(을)내다, 생색(을)쓰다, 자갈(을)먹다, 자고자대하다, 자다, 자라목(이)되다, 자멸하다, 잘라먹다, 잠꼬대하다, 잡아떼다, 저승에가다, 적발되다, 전멸되다, 정신(이)나가다, 정신(이)빠지다, 주리경(을)치다, 죽다, 즉살하다, 지르럭지르럭하다, 지르보다, 지름뜨다, 지분거리다, 지꼴이다, 진소리하다, 진탕치다, 질러먹다, 질탕거리다, 질탕치다, 집어삼키다, 징징거리다, 징얼거리다, 짓어대다, 재세(를)부리다, 재세하다, 쨍쨍거리다, +쟁이, 제소리하다, 쟈체하다, 쟈척하다, 쥐슴듯하다, 췌치다, 처먹다, 처박지르다, 처형하다, 칭얼거리다, 칼부림하다, 코뿔(을)맞다, 키득거리다, 케케묵다, 탈(을)쓰다, 토라지다, 투덜거리다, 통을맞다, 팔아먹다, 퍼먹다, 학대하다, 학살하다,

할기다, 할깃거리다, 허갑(을)떨다, 허랑방탕하다, 허탕치다, 허풍치다, 허풍(을)떨다, 헛먹다, 헛잡하다, 혼바람(이)나다, 혼쌀(을) 먹다, 혼쌀(이)나다, 히히닥거리다, 혼쫓(이)나다, 해발닥거리다, 핼긋거리다, 행패질하다, 해살놓다, 흰목(을)쓰다, 갑신거리다, 꼬리(를)감추다, 꼬리(를)치다, 꼬리(를)빼다, 피다, 탄꿈꾸다, 떠따고다, 떼(를)쓰다, 떼(를)부리다, 뺑소니치다, 쓸라닥거리다, 쓸개(가)빠지다, 짹자꿍을 놀다, 찡고까불다, 찡찡거리다, 아첨하다, 악(이)바치다, 악담하다, 악(을)쓰다, 어리광(을)치다, 어리병병하다, 어리손(을)치다, 어순채하다, 어정뜨다, 억지(를)쓰다, 억지떼(를)쓰다, 언거번거하다, 얼레발(을)치다, 얼(을)먹다, 얼(이)빠지다, 엄살(을)부리다, 엄살(을)떨다, 엄살하다, 엉너리(를)치다, 엉두덜거리다, 우구탕(을)치다, 오금(을)못쓰다, 오망(을)피우다, 오망(을)쓰다, 옥작거리다, 옹고집(을)부리다, 옹고집(을)쓰다, 우통(을)치다, 우쫓대다, 우쫓렁거리다, 으시대다, 음모하다, 음주방탕하다, 이골(이)나다,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이지렁(을)부리다, 이지렁(을)피우다, 이지렁(을)떨다, 일기죽거리다, 왁자지껄이다, 왜장(을)부리다, 왜장(을)치다

<부사>

갈팡질팡, 가살스레, 강동강동, 거드럭거드럭, 거들거들, 거들먹거들먹, 거들렁거들렁, 거만스레, 걸걸, 걸신스레, 경망스레, 경망히, 고양이, 고다리, 고리타분하게, 고약스레, 교만스레, 납죽납죽, 널름널름, 득실득실, 멋대로, 똥판지같이, 왕청같이, 심슬스레, 제멋대로, 제판, 제뿔뿔이, 제아무리, 추근추근, 추잡스레, 치사스럽게, 표독스레, 피동피동, 꼬리빠지게, 뻘뻘, 씹어빨듯, 쫓딱, 악마구리끓듯, 악착스레

### 3. 경어 사용의 남북 비교

경어 사용의 구체적인 예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조례, 145-148).

- ① 이야기에 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웃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는 대등한 경우에도 높이는 언어례절을 표시한다. 이때 이야기에 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은 그와 대등한 사람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도 느껴지기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사람의례절 밝은 품성이 안겨 오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에 오른 존경의 대상과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높이는 언어례절 표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레컨대 안해가 자기 남편에 대하여 남편의 동무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웃사람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존경의례절 표현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 자신의 높임과 가까운 것으로 상대방에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박 동무가 집에 있어요?

애 아버지는 어제 급행차로 원산에 출장갔는데요. ('출장가셨는데요'를 제한)

북한에서는 청자가 문장의 주체와 대등한 경우 일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언어예절에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존법을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배우자를 배우자의 친구나 회사 상사에게 말할 때에는 '-시-'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표레, 155)는 점에서 이 경우의 압존법은 남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이야기에 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웃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아래인 경우에는 그 아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이는 레절표현을 제한하거나 쓰지 않는다. 이때 언어예절을 너무 높이면 그보다 더 웃사람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실례로 되며 또 지나치게 낮추면 버릇없는 것으로 되어 듣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상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써야 한다.

○ 할머니! 어머니는 오늘 직장에서 모임이 있어서 좀 늦어지겠대요.

○ 부장 동지! 과장 동무가 출장 갔다 왔습니까?

이는 흔히 압존법이라 불리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고 청자보다는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압존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표레>에서는 이런 경우의 압존법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부모를 조부모계 말할 때에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표레, 154)

즉, <표레>에서는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고 청자보다는 낮은 경우 압존법을 지키는 것이 전통 언어예절이지만 현실을 인정하여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오늘날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볼 때, 아직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압존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남한에서도 압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언어예절로 보기도 한다. 예컨대, 고영근·구본관

(2008:459)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퇴근하시었습니다.”와 같이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정교육을 통해서라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규범서 간의 비교에서는 압존법과 관련하여 북한이 좀 더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야기에 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대등한 사이이나 듣는 사람에게는 웃사람인 경우에 레절 표현은 이야기에 오른 사람에 대한 듣는 사람의 존경이 사적인가 공적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높이는 레절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언어레절을 너무 높이면 그와 대등한 사이인 말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는 느낌을 주며 지나치게 낮추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레절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높이는 언어레절을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의 높이는 레절은 이야기에 오른 사람을 높이는 방법과 말을 듣는 사람을 낮추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철수야! 너의 아버지가 좀 주무시구 나갔느냐?
- 통계원 동무! 기사장 동무가 몇 시쯤 들어오실 것 같소.
- 지도원 동무, 과장 동무가 돌아오면 이 문건을 보여 드리시우.

④ 이야기에 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래이나 듣는 사람에게는 웃사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이는 레절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높이는 언어레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한다. 가정적 환경에서나 교육 교양적 장소에서는 듣는 사람에 대한 교양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정중하고 높이는 언어레절 표현을 쓸 수 있다.

-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말하는 경우] 애들아! 아버지가 들어오면 눈 좀 불이게 (자기) 조용하거라.
- 여보게! 지배인에게 이걸 좀 전해 드리게.
- 순이야! 2호집 고모에게 언제 평양에 올라가시겠느냐고 물어보아라.
- 학생이 막내인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다우. 배나무집 령감이 왔다갔다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표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녀를 손주에게 말할 때에는 ‘00[손주]야, 어멈/아범 좀 오라고 해라.’, ‘00[손주]야, 어미/아범 좀 오라고 해라.’보다는 ‘00[손주]야, 어머니/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처럼 ‘어멈’, ‘어미’, ‘아범’, ‘아비’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로 가리키고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좋으나 손주에게 어머니/아버지는 대우해서 표현해야 할 윗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술어에 ‘-시-’를 넣어 ‘00[손주]야, 어머니/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도 쓸 수 있다(표례, 155).

문장의 주체가 청자보다는 높지만 화자보다는 낮을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를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높임법 사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V. 일상생활의 남북 인사말 비교

일상생활에서 인사를 통해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인사말과 인사 문화의 경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자연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선택된 차이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대상과 아침과 저녁에, 만나고 헤어질 때, 통화할 때, 소개할 때 어떤 인사말을 나누는지 남북의 인사말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 1. 아침, 저녁의 인사말

#### 1) 아침 인사

표 70. <남한> 아침 인사

대상 \ 상황	가정에서	이웃 사람에게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년배와 손아래인 성인에게	잘 잤어요? 잘 잤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랫사람에게		안녕? 잘 잤니?	

표 71. <북한> 아침 인사

	예문	비고
가정에서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생, 193)</li> <li>○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우례, 140)</li> <li>○ 어머니, 밤새 편히 쉬셨어요? (우례, 140)</li> <li>○ 아버지,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언생, 289)</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 방이 춥지 않았습니까? (언생, 289)</li> <li>○ 밤에 춥지 않았나요? (우례, 53)</li> <li>○ 구들이 차지는 않으셨습니까? (우생, 193)</li> <li>○ 방이 너무 덥지 않았나요? (우례, 53)</li> <li>○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생, 193)</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우례, 140)</li> <li>○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어요. (언생, 289)</li> <li>○ 왜 벌써 일어나세요? 더 주무시지 않구... (언생, 289)</li> <li>○ 왜 벌써 일어나니? 더 자거라. (언생, 292)</li> <li>○ 어머니 더 쉬세요. 우리가 아침 밥을 짓겠어요. (언생, 289)</li> </ul>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잤니? (우례, 140)</li> <li>○ 옥이 깨났어요? 잘 잤나요? 어서 일어나세요. (언생, 291)</li> </ul>	<p>(1)</p> <p>‘주무시다’ 앞에 ‘안녕히’가 아닌 ‘잘’을 사용한 경우 있음.</p> <p>(2)</p> <p>잠자리나 방의 상태를 묻는 말이 인사말로 제시됨.</p> <p>(3)</p> <p>일찍 일어났다는가 더 쉬라는 말이 인사말로 제시됨.</p> <p>(4)</p> <p>아이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존댓말로 인사하는 경우 있음.</p>
이웃 사람에게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하십니까? (우례, 138)<sup>37)</sup></li> <li>○ 안녕하시오? (우례, 138)</li> <li>○ 안녕하세요? (우례, 138)</li> </ul>	<p>(1)</p> <p>‘밤새’를 붙여 쓰는 경우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한가? (우례, 138)</li> <li>○ 밤새 안녕하오(안녕하시오, 안녕한가)? (우생, 193)</li> <li>○ 밤새 평안하셨소? (우생, 193)</li> <li>○ 영미 할아버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례, 114)</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아 아버지, 일찍 나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 나가십니까? (우례, 140)</li> </ul>	<p>(2)</p> <p>출근길과 관련된 말을 인사말로 할 수 있음.</p>
직장에서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하십니까? (우례, 138)</li> <li>○ 안녕하시오? (우례, 138)</li> <li>○ 안녕하세요? (우례, 138)</li> <li>○ 안녕한가? (우례, 138)</li> <li>○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우례, 182)</li> <li>○ 밤새 별일 없었겠지? (우례, 182)</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십니다 (우례, 240)</li> <li>○ 일찍 나오셨습니다. (언생, 211)</li> <li>○ 일찍 나왔구만, 현옥 동무! (우례, 206)</li> <li>○ 김 동무, 일찍 오누만. (우례, 182)</li> <li>○ 지금 오십니까? (우례, 140)</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써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까? (언생, 211)</li> <li>○ 벌써 일을 보십니까? (언생, 211)</li> <li>○ 내가 한발 늦었군, 벌써 청소를 다 했소. 수고했소. (우례, 182)</li> <li>○ 청소하느라 수고하오. (언생, 211)</li> </ul>	<p>(1)</p> <p>‘하오체’ 인사말이 사용됨.</p> <p>(2)</p> <p>출근 시간을 언급하는 말이 인사말로 제시됨.</p> <p>(3)</p> <p>상대의 수고를 헤아리는 말이 제시됨.</p>

37) <우례>에서는 ‘대표적인 보통 상면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인데 이 말은 말차림 관계를 높이고 낮추는데 따라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한가?》 등으로도 쓰인다.’(우례, 137-138)고 하였다. 이 인사는 아침 인사말, 만났을 때의 인사말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북한 규범서 내에서 직장, 이웃 등 대상이나 상황을 특별히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항목에 같은 예문을 모두 포함시켰다.

### (1) 가정에서

아침에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은 남북이 동일하다. <표례>에서는 대표적인 인사말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를,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드는 인사말로 ‘안녕히 주무셨어요?’를 제시하였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주무셨습니까?’ 앞에 ‘밤새’, ‘편히’와 같은 표현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다만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는 ‘안녕히’ 대신에 ‘잘’을 쓰면 상대방을 덜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표례>의 기술과 상충되는 인사말로 남북 언어예절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북한 규범서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외에도 잠자리나 방의 상태를 묻는 말, 일찍 일어났다고 언급하거나 좀 더 쉬도록 권유하는 말 등 다양한 표현을 아침에 하는 인사말로 제시하고 있다. 잠자리나 방의 상태를 묻는 말에서는 특히 춥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말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보다 한파가 심하고 난방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북한의 상황을 반영한 인사말로 보인다.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은 ‘잘 잤어요?’, ‘잘 잤니?’ 등으로 남북이 동일하다. 어린이에게 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잘 잤어요?’와 같은 존댓말을 쓰는 것도 <표례>와 북한 규범서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가르칠 때에는 ‘잘 잤어요?’를 쓴다. (표례, 163)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중략)… 이렇게 어려서부터 인사말을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연생, 291)

### (2) 이웃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는 인사말도 ‘안녕하십니까?’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은 남북이 같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앞에 ‘밤새’라는 말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남한에서도 ‘밤새 안녕하셨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밤새’와 함께 ‘안녕하오(안녕하시오, 안녕한가)?’와 같은 현재형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 밤새 안녕하오(안녕하시오, 안녕한가)? (우생, 193)



또한 <우생>에서는 ‘밤새 평안하셨소?’에서의 ‘평안하다’를 주로 동년배 또는 아랫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고 하여 눈에 띈다.

<표레>에서는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끼리 하는 인사말로 ‘안녕?38)’, ‘잘 잤니?’를 제시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이러한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생>에서는 ‘안녕’을 어른들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일상에서는 어른이 아닌 대상에게는 ‘안녕’이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잘 잤니?’의 경우, 가정에서 하는 인사말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웃 간에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일찍 나가십니다.’, ‘일 나가십니까?’와 같이 출근길과 관계된 말을 이웃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로 제시하였는데 <표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도 실생활에서는 통용되는 표현이다.

#### [참고] 학업과 관련된 아침 인사

학생들은 아침에 동무들을 만나면 친근하면서도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만큼 《영철 동무, 동무 숙제 다 했?》이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좋다. (우레, 107~108)

### (3) 직장에서

직장에서의 아침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를 쓰는 것은 남북한이 동일하다. <표레>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다?’(오래간만에 만난 경우)를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별하여 쓴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는 ‘안녕하시오?’와 같이 남한에서는 일부 노년층 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하오체’ 인사말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밤새 편안하셨습니다?’, ‘밤새 별일 없었겠지?’와 같은 인사말은 남한에서 빈도가 낮은 인사말이라 하겠다.

북한 규범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아침 인사말은 남한에 비해 다양하다.

38) 20~30대 중반 북한이탈주민 남녀 2명과 인터뷰한 결과 북한의 젊은 층에서는 친한 사이의 사람끼리는 흔히 ‘안녕?’이라고 인사한다고 한다. 또한 국어 소학교 교과서에서도 ‘안녕!’이 발견되었는데 동물원 사육사가 앵무새에게 ‘할머니 안녕!’을 가르쳐서 인사시키는 장면이다.

<언생>에서는 출근할 때의 인사말로 안부를 묻는 인사말, 출근시간과 노정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말, 자기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인사말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일찍 나오셨습니다.’, ‘벌써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까?’ 등이 ‘안녕하십니까?’에 대응될 수 있는 하나의 인사말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말은 영상과 소설에서도 곧잘 확인된다.

- 여직원: 안녕하십니까? 과장 동지.  
과장: 예~. 일찍 나왔구만. (영상, 버릇탓인가)
- “안녕하십니까?”  
나는 각듯이 인사를 하였다. 그는 대답 대신 머리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 나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늘 먼저 나와서 수고하누만.” (소설, 교정의 룰리)

영상과 소설을 비롯한 북한의 예술 작품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국가와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인민의 올바른 자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나타난다. 위와 같은 인사말은 상대의 성실성과 근면함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를 치하하는 의미를 전하게 되고 이것이 곧 인사말의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휴일 다음날의 인사말]**

- 휴식 잘 하셨습니까? (우레, 141)
- 명절 잘 쇠셨어요? (우레, 141)

**2) 저녁 인사**

**표 72. <남한> 저녁 인사**

대상 \ 상황	가정에서
윗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표 73. &lt;북한&gt; 저녁 인사

	예문
윗사람에게	○ 할아버지,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우례, 206)

저녁 인사말의 경우 북한 규범서의 예문이 적어 남북 비교가 어려우나 윗사람에게 ‘주무시다’라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점은 남북이 동일하다.

## 2.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

### 1) 가정

표 74. &lt;남한&gt;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가정에서	나가는 사람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
	보내는 사람이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
	들어오는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빠/엄마/나 왔다.
	맞이하는 사람이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어요? 다녀왔어?

표 75. <북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예문	비교
가정 에서	나가는 사람이	(1) ○ 어머니, 일 다녀오겠습니다. (우레, 146) ○ 아버님, 직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언생, 290) ○ 어머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우레, 146) ○ 갔다 오겠소. (우레, 146)  (2) ○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지. (언생, 289) ○ 형, 나 먼저 가요. (우레, 146) ○ 어머니, 학교에 가겠어요. (언생, 290) ○ 철이야, 아버지 일 나간다. (우레, 146) ○ 저 직장에 나갑니다. (우레, 49)	(1) <표례> 지양표현인 '갔다 오다'가 제시 됨.
	보내는 사람이	○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우레, 146) ○ 다녀오세요. (언생, 285) ○ 잘 다녀오세요. (우레, 146) ○ 잘 갔다 오라구. (우레, 146)	<표례> 지양 표현인 '갔다 오다'가 제시됨.
	들어오는 사람이	○ 어머니,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우생, 225) ○ 할머니, 학교에 갔다 왔어요. (우레, 49) ○ 할아버지, 이제 오는 길이예요. (우레, 49)	
	맞이하는 사람이	(1) ○ 잘 다녀오셨습니까? (언생, 290) ○ 유치원에 잘 다녀왔니? (언생, 291)  (2) ○ 이제 오세요? (우레, 55) ○ 철이 아버지, 이제 와요? (우레, 37) ○ 지금 오세요? (우레, 50)	(2) <표례>에는 제시되 지 않은 인사말임.

남북의 규범서는 모두 가족 간에도 상황에 맞게 인사하며 친밀함을 나타내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우레>에서는 집을 잠깐 나갈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처를 알리고 다닐 것을 권장하였는데 이는 남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권장되는 바이다.

- 여보, 애 담임 선생님을 좀 만나고 오겠어요. (우레, 44)
- 여보, 책방에 좀 다녀오겠소. (우레, 44)
- 성철아, 어머니가 찾으시면 공장에 갔다고 말해라. (우레, 44)

집을 나서는 사람이 하는 인사말에 대해 <표레>에서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 올게요.’, ‘다녀올게.’ 등으로 인사하도록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와 같은 말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반면 북한 규범서에서는 ‘갔다 오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남북 간 차이를 보였으나 남한에서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질감은 크지 않다.

또한 북한 규범서 및 영상 자료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에 간다는 말, 먼저 가겠다는 말이 집을 나서는 사람의 인사말로 자주 발견된다.

- 엄마, 나 학교 가요. (영상, 말만 하다가)
- [아들이 어머니에게] 제 먼저 일 나갑니다. (영상, 우리의 향기)

#### [참고] 집을 떠나 멀리 갈 때의 인사말

-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어요.  
주의해서 잘 하구 돌아오게.  
예, 걱정 마시고 건강히 계세요. 일 마치구 인차 돌아서겠어요. (우레, 146)
- 갔다 오겠소. 내 없는 새 혼자 수고해야겠소.  
집 걱정은 하지 말고 갔던 일을 잘 보구 돌아와요. 날씨가 차지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구요.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우레, 146)
- 안녕히 계십시오.  
옆집 철수로구나. 오늘 떠난다지? 군사 복무 잘하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라구. (우레, 146-147)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의 경우 <표레>에서는 ‘잘 다녀와.’,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등으로 인사하며 배웅하는데 이때에도 ‘갔다 오다’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갔다 오다’의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았으며 영상에서도 ‘갔다 오다’를 사용한 인사말이 나타난다.

-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하러 떠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안심하고 갔다 오오. (영상, 해빛 밝아라)
- [유치원생 딸이] 아버지, 잘 갔다 오십시오. (영상, 엄마를 깨우지 말아)

또한 <표례>에서는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차 조심해.’, ‘일찍 들어와.’ 등과 같은 당부의 말을 덧붙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 규범서에서도 ‘다녀오세요.’ 뒤에 당부의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었다.

- 아버지, 잘 다녀오십시오. 빠스 타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언생, 290)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 <표례>에서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빠 왔다.’, ‘엄마 왔다.’, ‘나 왔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인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에도 남한의 규범서에서는 ‘갔다 오다’를 인사말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북한 규범서 및 영상 자료에서는 빈번히 등장한다.

- 아버지, 유치원 갔다 왔습니다. (영상, 엄마를 깨우지 말아)
-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갔다 왔어요. 어머니.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 [참고] 출장 다녀와서의 인사말

출장 갔다 와서도 《아버지, 건강이 일었어요? 다른 일은 없었나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어머니 병세가 좀 어떤가요?》 등 그간 가정의 형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다. 안해를 보고도 《다른 일 없겠지? 영남이는 학교에 잘 다니오?》 등 주어진 정황에 따라 말하면 된다. …(중략)… 갔다 와서도 《지금 와요.》 하고 무뚝뚝하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레, 50)

맞이하는 사람이 하는 인사말에 대하여 <표례>에서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와 같이 ‘다녀오다’를 사용한 인사말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여행을 했거나 멀리 다녀온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인 출입 후 돌아온 사람에게는 ‘안녕히’는 붙이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는데 북한 규범서에서도 일상적인 맞이 인사말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다녀오다’를 사용한 인사말뿐만 아니라 ‘지금 오세요?’, ‘이제 와요?’와 같이 ‘오다’를 사용한 인사말도 제시되어 있는데 영상 자료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더 빈번했다.

- [아내가 집에 들어서는 남편에게] 인제 오세요? (영상, 해빛 밝아라 2부)
-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오오? (영상, 충북)

북한 영상에서는 가족을 맞이하는 말로 ‘수고했어요.’도 나타났다.

- [아내가 집에 들어서는 남편에게] 인제 오세요? 수고했어요. (영상, 해빛 밝아라)
-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며] 수고했어요. 지선아 아버지 오셨다. (영상, 우리의 레일은 더 푸르다)
-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마중하며] 수고 했수다. (영상, 사랑의 거리)

또한 <표례>에서는 가족을 맞이하는 인사말로 ‘어서 오세요.’가 어울리지 않는 인사말이라고 하였는데 북한 규범서에서도 가족 사이에서 사용하는 ‘어서 오세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어서 오세요.’와 형태가 유사한 ‘어서 들어오세요.’는 예문에 제시되었다.

- 어서 들어오세요. 고향에 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언쟁, 286)

## 2)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북한 규범서는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를 <표례>에 비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인사말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표례>의 체제와 달리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을 가정에서 손님과 주인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상점이나 회사 등의 기관에서 손님과 응대하는 사람이 하는 인사로 분리하여 다루었다.

표 76. <남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손님을 맞이할 때와 손님과 헤어질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어서 오십시오.
	손님과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1) 가정에서

표 77. <북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예문	비고	
가정	만날 때	손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 동무 계시오? (연생, 307)</li> <li>○ 주인 계십니까? (연생, 307)</li> <li>○ 주인님 계십니까? (우생, 195)</li> <li>○ 이 집이 손 동무네 집이 옳습니까? (연생, 307)</li> <li>○ 미안하지만 말 좀 물어봅시다. 기계 공장에 다니는 박 동무 집이 맞습니까? (연생, 307)</li> <li>○ 안녕하십니까? 공장의 부기원이옵시다. 부장 동지를 뵈러 왔습니다. (우생, 195)</li> </ul>	‘주인님’, ‘~이 옳습니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
		주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 예! (우례, 48)</li> <li>○ 나갑니다. (우례, 48)</li> <li>○ 누구십니까? (연생, 307)</li> <li>○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연생, 307)</li> <li>(2)</li> <li>○ 어서 오십시오.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우생, 195)</li> <li>○ 아유...어서 오세요. (우례, 46)</li> <li>(3)</li> <li>○ 어서 들어오십시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생, 307)</li> <li>○ 인사돈님,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연생, 297)</li> <li>○ 이 집이 옳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연생, 307)</li> <li>○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연생, 307)</li> <li>○ 잠깐 들어가시지요... (우생, 195)</li> <li>(4)</li> <li>○ 어서 올라오십시오... (우생, 195)</li> </ul>	<p>(1) 밖에서 사람을 찾으려면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함.</p> <p>(4) 남한에서는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인사말임.</p>
	헤어질 때	손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놀다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례, 115)</li> <li>○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연생, 311)</li> </ul>	



		<p>주인 이</p> <p>(1) ○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언생, 310) ○ 뭘요. 변변치 못한 걸...또 오십시오. (언생, 310)</p> <p>(2) ○ 어두운데 조심히 다녀가세요. (언생, 310) ○ 다녀가시오. (언생, 311)</p> <p>(3) ○ 왜 벌써 일어나십니까? 좀 더 앉아 계시지 않고... (언생, 310) ○ 아니 가시다니? 좀 더 앉았다 가지지 않구... (언생, 310) ○ 더 앉았다 가게. 왜 벌써 일어나나? (언생, 308)</p>	<p>(2) '다녀가다'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임.</p>
--	--	--	--

북한 규범서에 따르면 가정에 찾아온 손님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에 손기척을 내면서 '계십니까?', '이 집이 0 동무네 집이 옳습니까?' 등으로 말을 건네게 된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손님의 부름에 적절히 응대하도록 하였는데 북한 규범서의 특징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친절히 맞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손님이 밖에 찾아와 주인을 찾으려 문을 두드린다. 주인으로서는 이때 인차 《예!》 하든가 《나갑니다.》 하고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문을 열고 잠깐 말할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돌려보내며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십시오.》, 《반가워요. 어서.》 라고 반갑게 맞이하여야 한다. (우례, 48)

집안에 있으면서도 인차 대답을 안 하거나 문틈으로 엿보는 것은 레절 없는 행동이다. 일단 찾는 신호가 들리면 하던 일을 놓고서라도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 비록 일손을 빨리 놓을 수 없어 나오지는 못한다 해도 《예》 혹은 《누구십니까?》 하는 정도로 응대는 먼저 해 주어야 한다. (언생, 310)

찾아온 손님에 대하여 주인은 《잠깐 들어가시지요...》, 《어서 올라오십시오...》 등으로 손님을 반갑게 맞아야 한다. 《김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찾는데 문도 열지 않고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삼가해야 한다. (우생, 195)

북한 규범서에서는 밖에서 손님이 부르면 일단 대답을 하고 문을 열어 주도권 장하고 있는데 이는 집에 찾아온 사람을 확인하고 맞아들이는 현재의 남한 문화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북한 영상 자료에서도 집에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며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 예문은 모두 거주지가 아파트인 상황이었으며 요즘 남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 [문을 열어주며] 뉘신지요? (영상, 철이 아버지였군요)

○ [초인종 울린 후]

집주인: 예, 누구예요? [그 후 문 열어 줌]

손님: 말 좀 물어봅시다. 여기 인민반장네 집이 어덯니까?

집주인: 반장? 8층 1홉니다. (영상, 소원)

#### [참고] 집을 잘못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응대 예절

만일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았다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영남이네 집이 아닌데요. 4층 1호 인민반장 동무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문도 열지 않고 집안에서 《누구예요?》, 《왜 그래요?》, 《아니예요.》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연생, 307)

<표례>에서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말로 ‘어서 오십시오.’를 제시하고 ‘어서 오십시오.’ 뒤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른 문장을 이어 말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이외에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잠깐 들어가시지요.’와 같은 다양한 인사말을 제시한다. 특히 ‘들어오다’, ‘들어가다’를 사용한 표현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여 ‘어서 오십시오’와 더불어 대표적인 손님맞이 인사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규범서에는 ‘어서 올라오십시오.’와 같이 아파트나 서양식 주거 문화가 일반화된 남한에서는 점차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인사말도 나타났다.

<표례>에서는 헤어질 때 손님이 하는 인사말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안녕히 계십시오.’를 쓴다는 점에서 손님의 인사말은 남북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헤어질 때 주인이 하는 인사말은 ‘안녕히 가십시오.’로 남북이 동일하다. 그런데 북한 규범서에서는 손님이 돌아가려 할 때 좀 더 있다가 갈 것을 권유하거나 또 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연생, 310), 이는 남한의 정서와도 통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다녀가세요.’는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아래 예문은 손님과 주인 상황은 아니나 ‘다녀가세요.’가 헤어질 때 인사말로 사용된 예로 북한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헤어질 때 인사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밤에 길에서 헤어지며] 어머니, 잘 다녀가세요.  
(영상, 구봉령일가)

<표례>에서는 ‘돌아가다’라는 말이 ‘죽는다’는 의미나 ‘빙 돌아서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를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북한 규범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례>에서는 혼례, 회갑연 등과 같이 잔치를 치를 때 반가움과 고마움의 뜻을 담아 인사하며 ‘어서 오십시오.’ 뒤에 ‘고맙습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 등을 붙여 인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손님맞이 인사말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례>에서는 상대의 축하 인사를 받고 하는 답례인사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례>에 제시된 손님맞이 인사말과 내용이 동일하다.

#### [참고] 선생님이 가정방문 후 돌아가실 때의 인사말

선생님이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가실 때에는 신발도 신기 편리하게 바로 놓아드리면서 《선생님, 밤길에 주의해 가십시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등으로 레절 있게 인사하여야 한다. 이때 《선생님, 또 오십시오.》, 《선생님, 래일 또 만납시다.》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오라, 래일 만나자와 같은 자기의 요구가 깔린 말들은 동무기간에나 하는 말이다. (우례, 107)

[참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의 예절<sup>39)</sup>

동무의 집에 갔다가 식사 시간에 되어 밥상을 차리는 기미가 보이면 그 집 어른들에게 《잘 놀다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으로 인사를 하여야 하며 자기 동무와도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야 한다. 혹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하면 사양하여야 하지만 막무가내로 청을 뿌리치는 것도 실례로 된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등으로례절을 표시하고 함께 식사하면 된다. (우례, 115~116)

(2) 기관에서<sup>40)</sup>

표 78. <북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기관)

		예문		비고
기관	만날 때	손 님 이	(1) ○ [상점 판매원에게] 안녕하십니까? (언생, 268)  (2) ○ [상점 판매원에게] 수고하십니다. (언생, 268) ○ 리발사 동무, 수고합니다. (언생, 271) ○ 수고합니다. 접대원 동무, 식사 안내표를 좀 봅시다. (언생, 270) ○ 접대원 동무, 수고합니다. 평양랭면 두 사람분 신청합니다. (언생, 270) ○ 접대원 동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리고기 두 사람분과 맥주 2병을 주십시오. (언생, 270)	(2)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수고하다’ 류의 인사말을 할 수 있음.
		맞 이 하 는	(1) ○ 어서 오십시오. 어떤 요리를 요구하십니까? (우례, 118) ○ 어서 오십시오. 어떤 요리를 가져올까요? (언생, 270)	(1) 손님의 요구를 묻는 표현에서 차이가 있음.

39)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는 자리를 뜨는 것이 예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도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40) <표례>에서는 직장에서의 인사말을 ‘3) 사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3)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한 인사말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관공서, 회사, 백화점, 시장,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하는 인사를 ‘2)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회사를 포함한 기관에서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 람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서 오십시오. 몇 층에 드시겠습니까? (연생, 267)</li> <li>○ 어서 오세요. 무엇을 사시렵니까? (연생, 268)</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하세요? 무얼 드시겠습니까? 식사표가 여기 있습니다. (우레, 118)</li> <li>○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무엇을 사려고 하세요? (우레, 235)</li> </ul>	
헤어질 때	손 님 이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장 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47)</li> <li>○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47)<sup>41)</sup></li> <li>○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생, 269)</li> <li>○ 평양랭면이 정말 맛있구만요. 잘 먹었습니다. (연생, 271)</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에서] 수고하십시오. (연생, 271)</li> <li>○ [미용원에서] 수고했어요. (연생, 272)</li> <li>○ [리발소에서] 수고했습니다. (연생, 272)</li> </ul>	(2) ‘수고하다’류를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음.
	보 내 는 사 람 이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히 가세요. (연생, 269)</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일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sup>42)</sup> (우레, 147)</li> <li>○ 또 오십시오. (연생, 269)</li> <li>○ 자주 들리십시오. 좋은 상품이 많이 들어오군 한답니다. (연생, 269)</li> </ul>	

북한 규범서 예문에 따르면 상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 기관에서 손님은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등으로 인사한다. ‘수고하십니까.’는 북한 규범서에서 일

41) <우레>에서 가정, 기관 등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에서의 인사말인 것으로 파악되어 여기에 포함시켰다.

42) <우레>에서 가정, 기관 등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에서의 인사말인 것으로 파악되어 여기에 포함시켰다.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로 매우 권장하고 있는 표현이다.

렬차 안내원이라든가 상점 판매원, 식당 봉사원, 도서관 사서 등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수고합니다.》, 《수고가 많아요.》 하고 인사하면 듣기에도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도 감사히 생각한다. (우례, 139)

이후 점원에게 하는 말 표현은 ‘식사 안내표를 좀 봅시다.’, ‘평양랭면 두 사람분 신청합니다.’ 등으로 의미는 통하나 남한과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맞이하는 사람의 경우 남북 모두 ‘어서 오십시오.’가 기본적인 인사말이다. <표례>에서는 음식점과 찻집 등에서 주문을 받는 말이 필요할 경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음식점], ‘무엇을 드릴까요?’ [찻집 등], ‘주문하시겠습니까?’ [공통] 등과 같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표현 중 ‘무엇 드시겠습니까?’는 남북이 공통이나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료리를 요구하십니까?’ 등은 남한에 비해 직접적이고 강한 어감이 들어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북한 규범서에서는 손님을 맞을 때의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례>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표현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남한에서도 손님을 맞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남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겠다.

#### [참고] 직장을 방문한 손님에 대한 응대 예절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손님에게 친절히 자리를 권하면서 인사말을 해야 한다. (언생, 212)

- 어서 오십시오. (언생, 212)
- 앉으십시오. 앉아 말씀하십시오. (언생, 212)

다른 일이 있어 손님의 요구에 곧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말로 레의를 표시해야 한다. (언생, 212)

- 미안하지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언생, 212)
- 기사장 동무가 급히 찾아서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신문을 보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언생, 212)

손님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손님에게 친절히 알려주어야 한다. (연생, 212)

- 그 동문 지금 외출했습니다. 오후 2시에 와 보십시오. (연생, 212)
- 안됐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만나지 못해서... (연생, 212)
- 그 동무는 지금 출장 중입니다. 래일 돌아올 겁니다. (연생, 212)
-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부장 동진 저쪽 방에 계십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연생, 212)
- 잠깐 기다리십시오. 박 동무를 곧 찾아보겠습니다. (연생, 212)
- 휴게실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생, 212)

**[참고] 주인과 손님이 나누는 인사말의 내용**

정거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손님을 맞을 때에는 반가운 정을 나누며 찾아와 주어 고맙다는 말과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생, 231)

찾아온 손님 같으면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것, 폐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과 저쪽에서 전하는 인사가 있으면 그것을 아울러 말하게 된다. (우생, 202)

<표레>에서는 상점 등에서 손님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안녕히 계십시오.’를 쓴다는 점에서 손님의 인사말은 남북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가 기본이다. 북한 규범서에는 식당의 경우 ‘잘 먹었습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나타났는데 <표레>에는 이 경우 손님이 하는 인사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남한에서도 실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남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손님이 식당, 미용실, 이발소 등에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했어요.’와 같이 수고와 관계된 인사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 [택시에서 내리면서] 운전수 동지, 수고했어요. (영상, 1번수)
- [리발소에서] 수고했습니다. 잘 깎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33)

보내는 사람이 손님과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를 쓰는 점은 남북이 동일하다.

- [액세서리 가게에서]  
 점원: 안녕히 가세요.  
 손님: 예. (영상, 시대가 주는 이름)
- [식당 접대원들이]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영상, 그 처녀의 이름)

또한 <표레>에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손님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또 찾아 주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북한 규범서에서도 손님에게 또 오라는 인사말을 하는 것이 나타나 남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레>에서는 ‘또 오십시오.’라고만 하면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북한 규범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이런 말이 오고가며 헤어지면서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십시오.》, 《자주 들리십시오. 좋은 상품이 많이 들어오군 한답니다.》 등의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연생, 269)

**[참고] 여관에서 같은 방을 쓴 손님들과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

- 저는 오늘 먼저 떠나겠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우례, 133)
- 평양에 오시면 저의 집에 꼭 들리십시오. (우례, 133)
- 평양에 가면 기자 동무를 꼭 찾아가겠습니다. (우례, 133)
- 헤어지자니 어쩐지 섭섭하군요. 또 만납시다. (우례, 133)
- 저는 오늘 먼저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생, 267)
- 오늘 저는 가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시겠습니까? (연생, 267)
- 평양에 오시면 저의 집에 들리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연생, 267)
- 먼저 떠나 미안합니다. 혼자 남아 적적하시겠습니다. (연생, 267)
- 먼저 떠나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 서겠습니다. (연생, 267)
- 그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연생, 267)
- 평양에 가면 꼭 들리겠습니다. (연생, 267)



**[참고]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직원들과 나누는 인사말**

- 관리원 동무,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생, 268)
- 관리원 동무, 안녕히 계십시오. 잘 돌봐 주어서 고맙습니다. (언생, 268)

**3) 사회**

**표 79. <남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사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이웃 사람에게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직장에서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가는 사람이	먼저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식사 시간 전후에 만났을 때		점심/진지 잡수셨습니까? 점심/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점심/밥 먹었어?

표 80. <북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사회)

	예문	비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1) ○ XX 동지,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우레, 64) ○ 김 동무, 오랜간만이올시다.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우생, 194)	
	(2) ○ 선생님, 그사이 건강하셨습니까? (언생, 236) ○ 지배인 동지,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레, 138) ○ 건강하십니까? (우레, 138) <sup>43)</sup>	(2) 건강을 묻는 말이 인사말로 사용됨.
	(3) ○ 오랜간만이구만, 그새 잘 있었나? (우레, 190) ○ 이거 오랜간만이구만, 그간 편안했소? (우레, 189) ○ 오랜간만일세, 그래 바쁘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발을 끊는 법이야 어디 있나, 짬이 있는 대로 놀러 오게, 아이들이 여간 기다리지 않네... (우생, 194) ○ 참 오랜간만입니다. (우레, 189) ○ 오랜간만입니다. 출장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우레, 143) ○ [학생이 교원에게] 선생님, 오랜간만입니다. 어디 가셨됐습니까? (언생, 256)	(3) 높여야 할 대상에게도 ‘오래간만입니다.’를 씀.
	(4) ○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애 아버진 탈없이 지내나? (언생, 296) ○ 별일 없이 지내나? (언생, 296) ○ 그새 잘 있었습니까? (언생, 230) ○ 이게 얼마만이요, 그새 잘 있었소? (우레, 189) ○ 잘 있었느냐? (우레, 138) ○ 오냐, 잘 있었냐? 꺾 컸구나. (언생, 297) ○ 잘 있(었)니? (우레, 138) ○ 순희, 잘 있니? 잘 지내니? (우레, 138)	(4) 북한 규범서에서는 ‘탈없이 지내다’, ‘잘 있다’를 사용한 인사말도 나타남.
	(5) ○ 어텔 이렇게 바빠 가오? 그동안 무고했소? (언생, 262)	(5) ‘무고합니까?’가 안부 인사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 어머니 다 무고하신지요. 여전히 정정하시겠지요? (연생, 213)</li> <li>○ 사돈님, 집안이 다 무고하십니까? (연생, 297)</li> </ul>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아버지, 그간 편안하셨어요?(건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우레, 138)</li> <li>○ 사돈님, 그간 편안했습니까? (연생, 297)</li> <li>○ 편안하십니까? (우레, 138)</li> <li>○ 오빠, 어쩔 이렇게 가세요?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형님이랑 아이들도 잘 있고요? (연생, 261)</li> </ul>	<p>(6)</p> <p>‘편안했습니까?’와 같은 표현이 인사말로 자주 사용됨.</p>
	<p>만났을 때</p>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하십니까? (우레, 138)</li> <li>○ 안녕하세요? (우레, 138)</li> <li>○ 안녕하시오? (우레, 138)</li> <li>○ 안녕한가? (우레, 138)</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하십니다. (우생, 196)</li> <li>○ 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십니다. (우생, 196)</li> <li>○ [당비서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직원을 찾아와서] 수고합니다. 여기 리문철 동무가 있습니까? (영상, 길을 비켜라)</li> </ul>	<p>(1)</p> <p>‘안녕?’은 북한 규범서에서 언급이 없음.</p> <p>(2)</p> <p>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경우 ‘수고합니다.’를 인사말로 씀.</p>
<p>사회에서 44)</p>	<p>헤어질 때 (이웃 사람에게, 직장에서)</p>	<p>(1) 보내는 사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히 가십시오. (우레, 145)<sup>45)</sup></li> <li>○ 편히(편안히) 가십시오. (우레, 145)</li> <li>○ 살펴 가십시오. 선생님! (우레, 206)</li> <li>○ 잘 가오(세요). (우레, 145)</li> <li>○ 잘 가게. (우레, 145)</li> <li>○ 잘 가시오! (우레, 190)</li> <li>○ 잘 가(라). (우레, 145)</li> <li>○ 잘 가라구. (우레, 145)</li> <li>○ 응, 잘가. (우레, 145)</li> </ul> <p>(2) 가는 사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45)</li> <li>○ 편히(편안히) 계십시오. (우레, 145)</li> <li>○ 잘 있소(어요). (우레, 145)</li> </ul>	<p>(1)</p> <p>‘잘 가시오.’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사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있게. (우례, 145)</li> <li>○ 잘 있으라(어). (우례, 145)</li> <li>○ 순회, 잘 있어. (우례, 145)</li>   <li>(3) 앞으로의 수고를 헤아리는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하십시오. (우례, 145)</li> <li>○ 그럼 수고해 주시오. (우례, 145)</li> <li>○ 수고하라구. (우례, 145)</li> </ul> </li>   <li>(4) 친한 사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히. (우생, 196)</li> <li>○ 평안히. (우생, 196)</li> </ul> </li>   <li>(5) 직장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퇴근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례, 190)</li> <li>○ 먼저 가겠어요. (언생, 211)</li> <li>○ 좀 더 있다 갈래요? 난 먼저 가요. (언생, 211)</li> <li>○ 가다가 들릴 데가 있어서 먼저 떠나요. 뒤따라 오세요. (언생, 211)</li> <li>○ 더 앉아 계시겠소? 먼저 실례합니다. (언생, 211)</li> <li>○ 가지 않을래요? 시간이 됐는데... (언생, 211)</li> <li>○ 래일 다시 만납시다. (언생, 211)</li> </ul> </li> </ul>	<p>(3) ‘수고하십시오.’를 인사말로 씀. 윗사람에게 이 말을 삼가도록 한 점은 남북이 동일.</p> <p>(4)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음.</p> <p>(5) &lt;표례&gt; 지양 표현인 ‘먼저 실례합니다.’가 나타남.</p>
식사 시간 전후에 만났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하셨습니까? (우례, 140)</li> <li>○ 아침 드셨소? (우례, 140)</li> </ul>	

- 43) <우례>에서는 ‘상대방의 안부를 넘려하는 형식의 보통 상면인사말로 《건강하십니까?》나 《편안하십니까?》, 《잘 있(었)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단어 사용의 측면에서 《안녕하다》가 보통 상면인사로 기본적으로 쓰인다면 《건강하다》, 《편안하다》, 《잘 있다》는 문안인사로 많이 쓰인다.’고 제시하였다.(우례, 138) 또한 ‘문안인사는 대체로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게 된다.(우례, 142)’고 하여 이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에 포함시켰다.
- 44) <표례>에서는 사회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에서 ‘이웃 사람에게’, ‘직장에서’를 분리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이러한 상황 구별 없이 헤어질 때 인사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상황의 인사를 하나의 표에서 다루되 상황 구별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장에서’와 같이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 45) <우례>에서는 ‘작별 인사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말차림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윗사람에게는 《안녕히 가(계)십시오》, 《편히(편안히) 가(계)십시오》, 아래사람에게는 《잘 가(오)세요》, 《잘 있(소)어요》, 동년배인 경우에는 《잘 가(라)》, 《잘 있으라(어)》, 《잘 가라구》, 《잘 있게》 하는 식으로 인사한다.’고 기술하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은 남북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남북 인사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례>의 대표형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와 같이 과거형 표현만이 제시된 것과 달리 북한 규범서에는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이 지내나?’와 같은 현재형 표현도 제시되어 있다.

북한 규범서는 상대의 건강을 묻는 말, 편안했는지를 묻는 말 등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로 제시하였다. <표례>에는 이러한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생활에서는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간만입니다.’의 경우 <표례>에서는 평교간이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이러한 규범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높여야 할 사람에게도 이 인사말을 쓰는 경우가 나타나 상대와의 상하 관계는 크게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학생이 교원에게]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언생, 256)
- [이쪽 사돈의 아들딸들이 상대측 사돈에게] 사돈 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우례, 60)

북한 규범서에서는 <표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잘 있(었)습니까?’가 자주 나타났다. 북한 영상, 소설에서도 이 인사말이 발견되었는데 남한에서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 [큰어머니에게 젊은 여성이] 잘 있었나요? (영상, 복 받은 대지에서)
- [중학생인 남동생이 성인인 형에게] 잘 있었나? (영상, 엄마를 깨우지 말아)
- 탄관 당비서는 나를 탄광 시절의 옛 직위로 부르며 반갑게 맞아 준다.  
“그래 그새 잘 있었소?”  
“잘 있었습니다.” (소설, 그의 소원)
- 정희! 그동안 잘 있었소? (소설, 언제)

<표례>에 제시된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그동안 별고 없었는가?’는 북한 규범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무고하십니까?’, ‘그동안 무고했소?’가 여러 번 발견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무고하십니까?’와 같은 인사말이 통용되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북한 영상 및 소설에서 빈도 높게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않지 않았습니까?’이다.

- [오빠가 여동생에게] 그새 **않진 않았니?** (영상, 존엄)
- [누나의 시어머니에게] 사돈어머니, 요새 **않지 않았습니까?** (영상, 한 녀학생의 일기)
- 영남: 아니, 아바이, 현미 아바이!  
현미 아바이: 아니 이게 영남이가 아닌가!  
영남: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새 **않지 않았습니까?** (영상, 생활의 거울: 선미 어머니)

이 인사말은 남한에서 매우 생소한 표현으로서 남북 인사말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 [참고] 오랫동안 못 볼 사람에게 헤어짐의 인사말

- [군대가는 청년에게 마을 사람이] **않지 말라구.** (영상, 고향산천 1-2부)
-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않지 말아요.** 어머니를 부탁해요. (소설, 비결)
- [소학교 2학년생이 이사 가는 친구에게 작별인사하며]  
일국아, **않지 말라.** (영상, 2학년생들)

#### [참고] 문안 인사에 대한 답례 인사

문안 인사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답을 하여야 한다. 문안 인사에 덤덤히 응답이 없거나 다른 소리를 하면 문안을 한 사람에게 실례로 된다. 대답은 일반적으로 문안을 해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을 담아 하게 된다. (우레, 142)

- 몸이 좀 어떻습니까?  
꽤 나왔습니다. 넘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레, 142)
- 일이 잘 됩니까?  
예, 모두 잘 도와 주어서 잘 됩니다. (우레, 142)
- 집에서는 모두 건강하니?  
응, 모두 잘 있어. 너의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겠지?  
그럼! 이번에 전국 노래 경연에 나가신단다. (우레, 142)

이웃을 만났을 때 <표레>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으로 인사한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도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안녕?’은 예문으로 제시 되어 있지 않다<sup>46)</sup>.

<표레>에서는 집을 나서는 어른에게 ‘어디 가십니까?’로 인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도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는 말을 인사말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어텔 이렇게 바빠 가오? 그동안 무고했소? (언쟁, 262)
- 오래간만입니다. 부장 동지, 어테 가시는 길입니까? (언쟁, 261)
- 혁이 어머니군요. 어텔 이렇게 가십니까? (언쟁, 261)

북한 규범서에서는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 ‘수고합니다.’를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인사말은 윗사람에게 사용을 삼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정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상대방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보통 상면인사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고합니다.》를 들어볼 수 있다. 《수고합니다.》라는 인사말은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밑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성을 나타낸다. (우레, 138)

아래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경우 이 인사말을 삼가하여야 한다. 아래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래사람이 윗사람의 로고를 인정해준다는 식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딘가 불손한 감을 자아낸다. 그러므로 구태여 상대방의 수고를 헤아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아바이, 안녕하십니까? 일찍부터 수고가 많습니다.》하는 식으로 공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우레, 139)

<표레>에는 ‘수고합니다.’, ‘수고하십니까.’를 만났을 때의 인사말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인사말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규범서에서 이 인사말을 권장 표현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용 범위도 남한에 비해 넓은 것으로 보인다.

4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안녕?’을 흔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인 ‘안녕.’도 마찬가지다.

- [이웃집에 갔을 때 음식 준비하는 지인을 보고]  
가: 수고해요.  
나: 왔구만요. 어서 들어가요. (영상, 소원)
- [버스에 오르는 여자 승객이 안내양에게] 안녕하세요?  
[다른 승객이] 수고해요. (영상, 사랑의 거리)
- [사무실에 들어서며] 수고 하십니다. 아니, 직장장 아버지가 어떻게?  
(영상, 미결건은 없다)
- [여성이 나무를 찍고 있는 남성에게]  
가: 대장 동무, 수고하세요.  
나: 오셨습니까? (영상, 금진강)

<표례>에서는 직장에서 이미 한 번 인사를 했는데 또 마주친 경우에는 따로 인사말이 필요하지 않고 목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한편 <우생>에서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날 경우에도 적당한 인사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침에 만났던 사람을 점심 때 또 만날 수 있고 헤어졌다가는 저녁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 흔히 무뚝뚝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이때도 적당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좋다. (우생, 194)

남북한 규범서 모두 직장에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표례>에서는 ‘안녕하십니까?’나 ‘안녕하세요?’를 인사말로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 규범서는 ‘안녕하오.’, ‘마침 잘 왔습니다.’, ‘수고합니다.’ 등 다양한 인사말 예문을 제시하였다.

가령 자기가 불러서 오고 있는 아래사람을 먼저 보았을 때는 그의 인사를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먼저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정형을 알아보려고 내려갔을 경우에도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할 수도 있으며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아래사람을 보았을 때도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례, 66)

- 안녕하오. XX 동무, 나를 찾아오고 있소? (우례, 66)
- 안녕하오. XX 동무, 나 좀 봅시다. (우례, 66)
- 마침 잘 왔습니다. (우례, 66)
-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례, 66)
- 수고합니다. XX 동무, 뭘 좀 물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례, 66)



- 잘 만났소. 건강은 어떻소. (우레, 66)
- 참 오래간만이에요. (우레, 66)

**[참고] 윗사람의 수고를 헤아리는 위로 인사말**

- XX 동지, 그동안 참 힘들었겠습니다. (우레, 65)
- XX 동지,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레, 65)
- XX 동지, 그새 몸이 썩 추가셨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우레, 65)
- XX 동지,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우레, 65)

**[참고] 아랫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을 때의 응대 인사말**

- 팬찮소. 고생이야 동무들이 더 하지요. (우레, 65)
- 걱정해 주어 고맙소. (우레, 65)
- 일없소. 이제는 건강하오. (우레, 65)
- 일이 잘되니 걱정 마오. (우레, 65)

**[참고] 윗사람의 방을 찾아 갈 때의 예절**

아래사람이 상급의 호출을 받고 상급을 찾아 갔을 때에는 먼저 인사를 레절있게 하고 《XX 동지, 불러서 왔습니다.》, 《XX 동지,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등으로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레, 81)

미리 허락을 받지 못하고 들렸을 때에는 《말씀 중에 들어와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다시 들리겠습니다.》 등의 방법으로 인사하여야 한다. (우레, 183)

**[참고] 윗사람의 방에 손님이 있을 때의 예절**

방안에 윗사람이 혼자라면 별문제이지만 손님이 와 있을 경우라면 그에게도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때 인사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중에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또는 《말씀 중에 안됐습니다. 실장 동지를 뵙자고 왔습니다.》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면이 없는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다만 《실례합니다.》,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 간단히 레의를 표시할 수 있다. (우레, 183)

**[참고]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다운 인사말**

- 영희 선생, 학급 학생들의 실력이 꽤 나아졌습니다. (우레, 89)
- 희숙 선생, 선생이 많이 노력해서 우리 학급의 영어 수준이 퍼그나 올라갔습니다. (우레, 89)

**[참고]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인사말**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연생, 256)
- 선생님, 그사이 건강하셨습니까? (연생, 256)
- 선생님, 출장가셨다 언제 오셨습니까? (연생, 256)
- 선생님, 오후에 시간이 좀 있습니까? 개별 지도를 받을가 합니다. (연생, 256)
- 선생님이 제시해 준 참고문헌 가운데서 책 하나 빌려볼 수 없겠습니까? (연생, 256)

**[참고] 학생의 인사에 응대하는 교사의 인사말**

- 예, 숙제는 다 했어요? (우레, 92)
- 영희 학생은 옷차림이 정말 깨끗하구만요. (우레, 92)
- 영희 학생, 안녕하세요? (연생, 256)
- 철식 학생, 일찍 왔구만요. (연생, 256)
- 영호 동무, 요즘 공부를 잘 하오? (연생, 256)
- 옥순 동무, 어머니 앓는다더니 좀 어때요? (연생, 256)

**[참고]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 사이의 인사말**

빠스나 전차, 지하 전동차를 기다리는 데서 고상한 도덕 품성과 언어예절을 지켜야 한다. 오는 순서대로 질서 있게 줄을 서야 하며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합리적으로 보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일찍 나오셨구만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저도 그리로 갑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줄을 설 수도 있고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할 수 있다. (연생, 263)

**[참고] 열차나 차에서 내릴 때 함께한 사람들과의 인사말**

내릴 때에도 아무 말 없이 내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내리겠습니다. 먼 길에 잘 다녀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저는 나왔습니다.》, 《아, 내리시겠습니까? 출장길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내리고 내려워주는 미풍을 발휘해야 한다. (연생, 266)

헤어질 때 인사말은 남북의 인사말이 통용 가능한 것이 많다. 그러나 다만 ‘잘 가시오.’는 남한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하오체’의 사용이 일부 높은 연령층의 입말이나 편지와 같은 글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남성의 ‘하오체’ 사용이 활발한 북한에서는 ‘잘 가오.’가 젊은 남성의 입말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젊은 남성이 여성에게] 잘 가오. (영상, 내 고향의 바다)
- [젊은 남성이 여성에게] 잘 가오. 공부 잘하시오. (소설, 비결)

직장에서 헤어질 때 ‘수고하십시오.’를 인사말로 쓸 수 있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며 남북의 규범서 모두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어 남북이 이 인사말에 대해 동일한 규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인사말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동년배나 아래 직원에게는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처럼 ‘수고’를 쓸 수 있다. (표레, 172)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것은 윗사람더러 고생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삼가하여 써야 한다. (우레, 145)

그러나 <표레>에서 ‘수고하십시오.’를 직장에서 퇴근할 때 하는 인사말로만 제시한 것과 달리 북한 규범서에서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거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과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말로 사용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제시하였다.

헤어질 때 상대방의 앞으로의 수고를 헤아리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하는 인사말도 있다. 대표적인 인사말이 《수고하십시오.》이다. 《수고하십시오.》는 작별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작업 중이거나 혹은 일거리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쓰며 (후략)… (우레, 145)

- [국장이 출장 가기 전에 부국장에게]  
그럼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상, 1번수)

- [기관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가: 수골하십시오.  
나: 안녕히 계십시오. (영상, 살바를 잡아라)

<우생>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헤어질 때 인사말로 ‘안녕히’, ‘평안히’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였다. <우레>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교원들 사이에서 ‘안녕히’를 헤어질 때 인사말로 사용한 예가 있으며 소설에서도 ‘안녕히’의 사용이 나타났다.

서로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세.》, 《잘 가시오.》 또는 짝막하게 (친한 친구 사이에 한해서) 《안녕히》, 《평안히》 해도 좋다. (우생, 196)

- [학생들 사이에서] 안녕히. (우레, 108)
- [교원들 사이에서] 오늘 학과 경연에서 그 학급이 1등을 했는데 기쁘겠어요. 자, 그럼 안녕히. (우레, 89)
- 동무들, 결혼을 다시 한 번 축하해요. 행복하기를 바래요. 자, 안녕히! (소설, 빛나는 길)
- [직장에서 친한 동료 사이로 추정]  
“안녕히!”  
“잘 가—”  
“다시 만나기요—” (소설, 빛나는 길)

‘안녕히’와 ‘평안히’는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인사말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남한에서 흔히 사용하는 ‘안녕.’은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한 북한 규범서 및 소설, 영상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sup>47)</sup>

직장에서 퇴근할 때 하는 말은 남북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먼저 퇴근합니다.’, ‘먼저 가겠어요.’, ‘먼저 떠나요.’ 등 ‘먼저’라는 말이 들어간 표현이 자주 나타났다.

- [동료에게] 야, 퇴근 시간이야. 나 먼저 퇴근해. (영상, 1번수)

<표레>에서는 직장에서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를 쓰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47) 북한 이탈 주민 남녀 2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안녕히’, ‘평안히’를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녕.’은 20~30대 이하, 친한 친구 사이에서 흔히 쓴다고 한다.

북한 규범서에는 이 말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

- 더 앉아 계시겠소? 먼저 실례합니다. (언생, 211)
- 먼저 실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례, 190)

**[참고] 직장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출장을 갈 때의 인사말**

- 밖에 손님이 와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우례, 147)
- 영숙 선생님, 좀 나갔다고겠습니다. (언생, 236)
- 가: 실장동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 그럼 수고해 주시오. (우례, 145)
- 가: 소장 동지,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 먼 길에 수고 많겠소. 도착하면 전화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소.  
잘 갔다 오시오. (우례, 147)

식사 시간 전후에 사람을 만날 경우 남북한 모두 식사 했는지를 묻는 것을 인사말로 사용한다.

- 경심은 부엌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저녁은 먹었니?”  
“예, 풋강냉이를 삶아 먹었어요. 이모 잡술래요?” (소설, 푸르른 대지)

### 3. 전화 예절

#### 1) 전화를 받을 때의 말

##### (1)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표 81. <남한>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집	여보세요.
직장	네, ○○○○[회사/부서/받는 사람]입니다.

표 82. <북한>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예문	비고
집	(1) ○ 여보시오. (우례, 171) ○ 여보세요. (우례, 171)  (2) ○ 전화 받습니다. (영상, 생활의 거울 : 병은 네가 걸렸어) ○ 네, 전화 받습니다. (영상, 사랑의 샘 제1부) ○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영상, 우리의 집)	(1) 남성은 주로 ‘여보시오’, 여성은 ‘여보세요.’라고 함.  (2) ‘전화 받습니다.’가 집에서 전화 받을 때의 인사말로 쓰임.
직장	(1) ○ 여보시오. (우례, 171) ○ 여보세요. (우례, 171)  (2) ○○○○[(기관)/(부서)/(직함)/(받는 사람)]전화받습니다. ○ 아, 지배인 동지, 안녕하십니까? 생산과 부원 리영희 전화 받습니다. (우례, 172) ○ 실장 XXXX 전화 받습니다. (우례, 172) ○ 자재과 김철호 전화 받습니다. (언생, 249 ) ○ 고무공장 기술준비실입니다. 김영수 전화 받습니다. (언생, 249)  (3) ○○○○[(기관)/(부서)/(직함)/(받는 사람)]입니다. ○ 인민위원회 교육과 부원입니다. (언생, 249 ) ○ 예, 자재과장입니다. (영상, 버릇탓인가) ○ 예, 제48 윤철권입니다. (영상, 길을 비켜라)	(1) ‘여보세요’를 직장에서도 사용함.  (2) ‘전화 받습니다.’가 직장에서 전화 받을 때의 인사말로 쓰임.  (3) 자신을 밝히는 말에서 자신의 직함이나 이름만을 밝히는 경우가 많음.

48) 북한에서는 주어를 ‘제’로 받는다.

- 삼촌, 안녕하세요. 제 영수입니다. (우례, 172)
- 여보시오. 제 소장입니다. 실장동무요? (우례, 172)

남한에서는 ‘여보세요.’의 사용에 남녀 구분이 없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여성이 주로 ‘여보세요.’라고 하고, 남성은 주로 ‘여보시오.’라고 한다. 이는 북한에서 ‘하오체’는 주로 남성이 쓰고 ‘해오체’는 주로 여성이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찾는 말은 《여보시오.》, 《여보세요》이다. 전화를 받는 측이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말 역시 《여보시오.》, 《여보세요》이다. 《여보세요》는 흔히 여자들이 쓰는 말이다. (우레, 171)

- [남성, 버스 안에서] 여보시오, 어~ 너 박정갑이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영상, 철이 아버지였군요)
- [여성, 길에서]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영상, 철이 아버지였군요)

<표례>에서는 ‘여보세요.’를 집에서 전화 받는 말로, ‘네, 0000[회사/부서/받는 사람]입니다.’를 직장에서 전화 받는 말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보세요.’의 사용이 전화 받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성, 집에서] 여보세요. (영상, 따뜻한 우리집)
- [여성, 기관에서] 여보세요, 연구합니다. (영상, 버릇탓인가)
- [남성, 기관에서] 여보시오. 아, 소장 동무요? (영상, 세대의 임무)

북한 특유의 인사말인 ‘전화 받습니다.’도 북한 영상 분석 결과 집과 직장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에서는 이 말 앞에 자신의 신분을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직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 등으로 신분을 밝힌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여성, 집에서] 네, 전화 받습니다. (영상, 사랑의 샘 제1부)
- [남성, 집에서] 전화 받습니다. (영상, 생활의 거울 : 병은 네가 걸렸어)
- [여성, 기관에서] 박옥화 전화 받습니다. (영상, 내 고향의 바다)
- [남성, 기관에서] 예, 실장 안정근 전화 받습니다. (영상, 말만 하다가)

또한 ‘여보세요.’와 ‘전화 받습니다.’를 함께 사용하는 예도 발견됐다.

- [여성, 집에서]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영상, 우리의 집)
- [여성, 버스 안에서]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지금 버스 안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내려서 전화하겠습니다. (영상, 철이 아버지였군요)

직장에서 전화를 받는 말로 ‘OOOO[(기관)/(부서)/(직함)/(받는 사람)]입니다.’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 공통이다. 또한 남북 모두 공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북한에서는 자신의 이름이나 직위만으로 간단히 신분을 밝히는 예문이 많이 나타났다.

- 인민위원회 교육과 부원입니다. (연생, 249)
- [남자 관리 국장, 사무실에서] 개봉수입니다. (영상, 새 령마루에로)
- [남자 연구사, 사무실에서] 개철명 전화 받습니다. (영상, 새 령마루에로)
- [남자 직장장, 사무실에서] 직장장 전화 받습니다. (영상, 미결건은 없다)

또한 <표례>에서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말머리에 ‘네’를 앞세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네’의 사용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다. 미세해 보이지만 이런 차이로 인해 상호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언어 관습을 세심히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례>에서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 ‘네’ 대신 ‘고맙습니다.’를 쓰는 것이 친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나 소설, 영상 등의 자료에서는 ‘고맙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표례>에서 ‘네’라고만 하며 전화 받는 것은 간결하기는 하나 불친절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는 ‘네’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전화를 받을 때 자신을 밝히는 말을 반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북한 영상에서 ‘네’만으로 전화를 받는 예가 나타나기는 하였다.

- [여자 지배인, 회사에서] 예. (영상, 사랑의 샘 제1부)
- [여자, 기관에서] 예. [잠시 뒤] 우리 작업반에 새 반장이 온다구요? (영상, 행복은 어디에 제1부)

**[참고 회의 중에 전화가 걸려 왔을 때**

회의 중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인데 좀 있다가 걸어주십시오.》와 같이 말해야 한다. (연생, 249)



**[참고]윗사람에게 전화로 호출받을 경우**

상급이 전화로 아래사람을 호출할 경우에는 《예, 알았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또는 《예,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레절 있게 대답하고 지체하지 말고 가야 한다. 만일 상급의 호출을 받았을 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이어서 《그런데 지금 00일을 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는 《그런데 지금 00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00일을 하는 중인데 인차 끝내고 가도 되겠습니까?》라는 식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하여 상급이 아래사람의 사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말하여야 하며 반드시 상급의 의향과 결론을 듣고서 움직여야 한다. (우레, 80)

**(2)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표 83.** <남한>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하는 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표 84.** <북한>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하는 말

예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언생, 249)</li> <li>○ 잠깐 기다리십시오. 옆방에 가보겠습니다. (언생, 247)</li> <li>○ 잠깐 기다려 주세요. 찾아봅시다. (우레, 173)</li> <li>○ 예, 알았습니다. (언생, 249)</li> </ul>	‘잠깐(만)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명령형 표현도 사용됨.

<표례>에서는 전화를 바꾸어 줄 때 집이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로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바꾸어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영상과 소설에서는 전화를 받을 사람에게 ‘바꾸다’를 사용하여 말하는 예가 나타났다. <표레>와 같이 전화 건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바꾸다’라는 표현을 북한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림이, 전화 바꾸라누만. (영상, 존엄)
- 공장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배인 동지를 바꾸어 달립니다. (소설, 비결)

또한 <표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를 대표형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북한 규범서에서는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직접 명령형의 인사말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 사람에게서는 강한 명령조의 말로 들릴 수 있다.

<표레>에서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의 말도 제시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전화를 바꿔 받을 사람에게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알려 주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누구시라고 말씀드릴까요?’라고 할 수 있다. 전화 건 사람이 자녀의 친구와 같은 손아래사람일 경우에는 ‘누구라고 전해줄까요?’, ‘누구라고 전해줄까?’로 말할 수 있다. (표레, 176)

다른 사람에게 온 전화를 받아 전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서 온 전화라는 것을 물어 가지고 전하는 것이 좋다. (우생, 75)

#### [참고] 전화를 바꾸어 달라는 사람에게 응대하는 말

어떤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달라거나 전화를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때에 부탁을 받은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전에 전화가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시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친절히 답변을 하고 찾는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에-마빠 죽겠는데.》, 《다른 방에 걸라요.》라고 하거나 송수화기를 탕 소리 나게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언생, 249)

**[참고] 바뀐 받을 사람을 찾으러 갈 때 전화 건 사람에게 응대하는 말**

전화 받을 대상을 찾으러 가야 한다면 반드시 찾아올 터이니 잠깐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수화기에서 떠나야 한다. 아무 말 없이 다른 방에 가서 찾아 돌아다니면 전화 건 사람은 갑갑할 수 있고 또 좀 시간이 길면 없는 줄 알고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우생, 76)

**(3)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표 85. <남한>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표 86. <북한>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예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기원 금회 동무는 송금 찾으러 체신소에 가고 없구만요. 한 30분 후에 다시 한 번 전화하십시오. (언생, 250)</li> <li>○ 여보세요, 영옥 동무는 금방 탁아소에 갔답니다. 혹시 제가 전달하면 안 될 일인지요? (언생, 250)</li> <li>○ 방에 계시지 않습니다. 잠깐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언생, 247)</li> </ul>	<p>‘다시 한 번 전화하십시오.’와 같은 명령형 표현이 사용됨.</p>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한 점은 남북이 동일하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도 소홀하게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표레, 177)

간혹 찾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예문 생략) 등으로 상대방의 안타까움을 덜어주기 위해 친절성을 보여야 한다. (언생, 250)

그러나 북한의 예문 중 ‘다시 한 번 전화하십시오.’는 남한에서는 강한 명령형 표현으로 인식되어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4)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표 87.** <남한>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표 88.** <북한>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예문
○ 잘못 걸렸습니다. (우레, 172)
○ 미안하지만 어딜 찾으셨습니까? [상대방의 응답 후] 아닙니다. (우레, 173)
○ 아닙니다. 장흥 농장입니다. (언생, 246)

전화가 잘못 걸려 왔을 때 ‘잘못 걸렸습니다.’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그러나 <표레>에서는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는 느낌이 들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데 반해 북한 규범서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북한 소설에서 ‘잘못 걸었습니다.’를 사용한 예가 발견되었는데 북한의 전화 예절 규범에 맞게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소설, 오후 5시)

남한에서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잘못 거셨습니다.’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의 북한 예문에서와 같이 높임의 어미 ‘-시-’를 쓰지 않는다면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2) 전화 걸 때의 말

### (1)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표 89. <남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집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찾는 사람] 씨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입니다. ○○○[찾는 사람] 씨 계십니까?
직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찾는 사람] 씨 좀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입니다. ○○○[찾는 사람] 씨 좀 바꾸어 주시 겠습니까? [교환일 때] 안녕하십니까? ○○[부서명]부서 좀 부탁드립니다.

표 90. <북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예문	비고
(1) ○ 여보시오. (우레, 171) ○ 여보세요. (우레, 171)	(1) '여보세요.'를 전화 받을 때와 걸 때의 인사말로 모두 제시함.
(2) ○ 농기계 작업소에서 전화합니다. 식료공장입니까? [상대 응답 후] 식료공장 박 기사 동무를 만나자고 전화했습니다. 좀 바꿔줄 수 없겠습니까? (연생, 247) ○ 안녕하십니까? 자료실 금일입니다. [상대 응답 후] 미안하지만 영수 동무를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 (우레, 173)	(2) '바꿔줄 수 없습니까?'와 같은 부정형 요청이 나타남.
(3) ○ 바쁘신데 미안합니다만...철수 동무를 좀 불러주십시오. (우생, 75) ○ 미안하지만 생산부에 있는 김철수 동무를 좀 불러주실 수 없을까요? (우생, 75) ○ ...철수 동무를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생, 75) ○ 철수 동무더러 생산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우생, 75)	(3) '불러주다', '찾아주다'는 남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임.
(4) ○ [교환일 때] 교환수 동무요? 나 국장이요. XX를 찾아주요. (우레, 173) ○ [전화번호 안내소에] 수고합니다. 언어학연구소가 몇 번입니까? (연생, 248)	

전화 거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권장한 점은 남북이 동일하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예절이다. (표레, 178)

기관에 전화를 걸 때는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의 기관이나 장소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기관을 확인하고 자기가 찾는 사람을 만나 정확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면서 자기가 어디의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의 확인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딘가 건방진 감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레, 172)

- XX 동지, 안녕하십니까. 00과 책임부원 XXX입니다. (우레, 77)
- 안녕하십니까. XX 동지. 000처 부원 XX입니다. (우레, 77)
- 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제 천한수입니다. (영상, 해빛 밝아라 2부)
- 여보시오? 로동과장 동무요? 어, 나 경리과장 주호평이요.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표레>에서는 ‘여보세요’를 전화 받을 때의 말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여보세요’를 전화 걸 때의 말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에서도 전화 건 사람이 ‘여보세요’를 흔히 쓰므로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찾는 말은 《여보시오》와 《여보세요》이다. (우레, 171)

전화를 걸거나 받았을 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하는 말은 상대방을 찾거나 전화 받는다는 의미로 하는 간단한 부름말 및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레, 174)

직장에 전화해서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때 하는 말로 <표레>에서는 ‘○○○○ 씨 좀 바꾸어 주시겠습니까?’를 제시한 반면 북한 규범서에서는 ‘○○○ 동무를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와 같은 부정형 요청 표현을 주로 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면 공격적이라 여겨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북한 규범서에 나타난 다음의 표현들은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회사에 담당자별로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전화를 바꿀 경우 내선 번호를 연결해서 통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화기가 담당자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를 찾아 전화를 바꿔주는 것이 일반

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불러주다’, ‘찾아주다’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미안하지만 생산부에 있는 김철수 동무를 좀 불러주실 수 없을까요? (우생, 75)
- 바쁘신데 미안합니다만...철수 동무를 좀 불러주십시오. (우생, 75)
- ...철수 동무를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생, 75)

**[참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구내전화를 이용할 때**

서로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구내전화를 리용할 때에는 《김화선 국장 동무니까?》, 《달수 동무요?》라고 간단히 물어볼 수 있다. (언생, 248)

**[참고]윗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래사람이 상급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할 때에는 상급의 신분을 확인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경우에는 문안인사와 자기의 부서와 직책, 이름을 말한 다음에 존경감을 담아 하여야 한다. 가령 《안녕하십니까. ○○과 부원 XXX입니다. 국장 동지십니까?》라고 말할 대신에 《국장 동지십니까? ○○ 부원 XX입니다. 안녕하십니까?》하는 식으로 상급의 신분을 확인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아래사람으로서 상급을 대하는례절이라고 할 수 없다. (우례, 77)

**[참고] 같은 사람과 여러 번 전화하는 경우**

전화를 리용하는 과정에는 같은 사람과 하루에 여러 번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매번 《안녕하십니까?》하고 틀에 박힌 인사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화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상면 인사말은 하루의 첫 접촉에 하는 말이다. 하루에 여러 번 만나는 경우에는 계기와 정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간단히 인사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우례, 175)

<표례>에서는 교환을 통해 전화를 걸 때 ‘안녕하십니까? ○○[부서명]부서 좀 부탁드립니다.’를 대표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북한 자료에서는 많은 예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찾아주요.’, ‘대 주세요.’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교환수 동무요? 나 국장이요. XX를 찾아주오. (우례, 173)
- 여보시오, 교환이요? 배산 버섯 지배인을 좀 찾으소.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안녕하세요? 담당 \*연방에 좀 대 주세요. 안 나와요? (영상, 미결건은 없다)

**(2) 직장에서 전화로 자기를 밝히는 말**

**표 91.** <남한> 직장에서 전화로 자기를 밝힐 때 하는 말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사장입니다. 총무부 ○ 부장입니다.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 ○ 부장입니다. 총무부장 ○○○입니다. 총무부 ○○○입니다.
다른 회사 사람에게	○○[회사명] 상무이사입니다. 총무부 ○ 부장입니다. 총무부장 ○○○입니다. 총무부 ○○○입니다.

**표 92.** <북한> 직장에서 전화로 자기를 밝힐 때 하는 말

대상	예문	비고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 여보시오. 제 소장입니다. 실장 동무요? (우례, 172) ○ 금옥 동무, 수고하누만. 조립직장장이요. (우례, 173)	[직함]으로 자신을 밝힘.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 안녕하십니까. ○○과 부원 XXX입니다. 국장 동지 십니까? (우례, 77) ○ XX 동지, 안녕하십니까. ○○과 책임부원 XXX 입니다. (우례, 77) ○ 안녕하십니까. XX 동지. ○○○처 부원 XX입니다. (우례, 77)	[부서/직함/이름] 으로 자신을 밝힘.
다른 회사 사람에게	○ 저는 시청년동맹 학생청년부 지도원 김용식입니다. 전화로 실례합니다. (우생, 75) ○ 박기사 동무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농기계 작업소 최철수입니다. (후략)… (연생, 247)	[기관명/부서/직함/ 이름]으로 자신을 밝힘.



**[참고] 공적인 업무의 전화를 할 때**

공적인 용무로 하는 전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서나 직명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우생, 75)

- 저는 이곳 농기계 공장 기사장입니다. (우생, 75)
- 기사장이 전화를 겁니다. (우생, 75)
- 선생님, 제 실험실장입니다. (영상, 존엄)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자신을 지칭할 경우 <표례>에서는 ‘직함’, ‘부서 + 직함’으로 자신을 밝힌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는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자신을 밝히는 경우 주로 직함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름만으로 자신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 기사장 동무요? 내 중석이요! 무슨 사고가 났소? (소설, 비결)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자신을 밝히는 경우에 <표례>에서는 ‘직함’, ‘부서 + 직함’, ‘직함 + 이름’, ‘부서 + 이름’으로 자신을 밝힌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의 예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북한 영상에서는 이름만으로 자신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부국장 동지십니까? 저 박대식입니다. (영상, 금요일에 있는 일)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힐 경우 회사명, 직함, 이름 등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은 남북한이 동일하다.

- 내 군당 교육부 부원 신한진이요. (소설, 교정의 룰리)

### (3)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표 93. <남한> 통화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죄송합니다만, OO[이름]한테서 전화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OO[이름]한테서 전화왔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표 94. <북한> 통화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예문	비고
○ 그렇습니다.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례, 173)	주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임.
○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걸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언생, 247)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표례>에서는 자신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 달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이러한 표현 대신 나중에 다시 걸겠다는 표현이 제시되었다.

### (4)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표 95. <남한>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하는 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표 96. <북한>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하는 말

예문	비고
○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걸었군요. (우례, 173)	
○ 실례했습니다. 운정 농장을 찾았는데요. 미안합니다. (언생, 246)	
○ 안됐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들렀군요. 실례했습니다. (우례, 161)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사과의 말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표레, 185)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놓아야 한다. (우레, 172)

### 3) 전화를 끊을 때의 말

표 97. <남한>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표 98. <북한>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예문	비고
○ 그럼 수화기를 놓겠습니다. (언생, 250)	‘전화를/수화기를 놓겠습니다.’가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임.
○ 그럼 전화를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75)	
○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레, 175)	

전화 끊을 때의 말로 <표레>에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외에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이 제시되었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전화를/수화기를 놓겠습니다.’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며, ‘이만 하겠습니다.’와 같은 인사말도 제시해 놓았다.

북한의 영상에서는 규범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말이 쓰였으며 특별한 인사말 없이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은 경우도 나타났다.

- 네. 그럼 전화 놓습니다. (영상, 우리의 집)
- 안녕히 계시우. (영상, 살바를 잡아라)
- 예, 알겠어요. 안녕히. (영상, 따뜻한 우리집)
- 그럼 수고하세요. (영상, 내 고향의 바다)
- 예, 그럼 안됐습니다. (영상, 철이 아버지였군요)
- 그럼 집행하오. (영상, 길을 비켜라)
- 알겠습니다. (영상, 길을 비켜라)

<표레>에서 ‘들어가요.’는 명령형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으나 ‘들어가요.’를 끊을 때의 인사말로 사용한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화를 끊을 때 윗사람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하는 점도 남북이 동일하다.

만약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전화를 끊어야 할 때도 자신을 밝히고 끊어야 하며, 어른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표레, 186)  
 수화기를 놓을 때 윗사람과 아래사람의 관계이라면 윗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놓은 다음에 아래사람이 놓아야 한다. 윗사람이 수화기를 놓기도 전에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전화를 놓으면 레의가 없는 행동이다. (우레, 176)

**[참고] 동등한 관계에서 전화를 끊는 순서**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보통 사이라면 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놓고 다음에 받은 쪽에서 놓는 것이 도덕이다. (우레, 176)

이야기가 전부 끝났을 때에는 동무들 사이라면 먼저 전화를 건 쪽에서 수화기를 놓은 다음에 이편에서 놓아야 하며 (하략)... (우생, 76)

**[참고] 전화를 끊을 때 주의할 점**

전화를 끊으면서 아무 인사말도 없이 전화를 놓거나 경우에 맞지 않게 아래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우레, 175-176)

전화를 끝낼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래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현상이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연생, 250~251)

**[참고] 전화로 이야기 나눌 때의 주의 사항**

- ① 높임법과 언어예절을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례, 175)
- ② 짧고 명백하게 말을 전해야 한다. (우생, 73)
- ③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여야 하며 정확한 전달을 위해 발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쓴다. 가령 《규학-규격이라는 <규>, 학교라는 <학>》, 《철회-황철이라는 <철>, <희망이 크다> 할 때의 <희>》 라고 한다. (우생, 73)
- ④ 중요한 사항은 반복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해 정도를 묻는다. (언생, 250)
- 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 (우생, 74)
- ⑥ 상대방의 말에 적절히 응답한다. (우생, 76)
- ⑦ 통화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부득이하게 잠시 다른 일을 보아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언생, 248)
- ⑧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언생, 250)

## 4. 소개할 때

### 1)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할 때

표 99. <남한> 자신을 소개하는 말

<p>[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p>	<p>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니다.</p>
<p>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p>	<p>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p>

표 100. <북한> 자신을 소개하는 말

	예문	비고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1) ○ 난 김영철이야. 동무를 알게 되어 참 기쁘구나. (우례, 108) ○ 이렇게 (서로) 알게 되어 기쁩니다.(반갑습니다.) (우례, 190) (2) ○ 저는 김영식이라고 부릅니다. 운수려객 사업소에서 운전수로 일합니다. 동무는요? (우례, 201) ○ 난 리경호야. 나도 역시 기뻐. 우리 친하자. (우례, 108) ○ 초면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례, 190) (3) [여관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기자입니다. (우례, 132) ○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송림에서 온 자재인수원입니다. (우례, 132) ○ 함께 지냈시다. 저는 평양에서 온 기자입니다. (언생, 267) ○ 반갑습니다. 저는 대안에서 온 자재과 부원입니다. (언생, 267) ○ 알고 지냈시다. 문천에서 온 인수원입니다. (언생, 267)	(2)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하자.’, ‘초면입니다.’가 사용됨. (3) 여관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제외한 직업, 거주지만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음.

<표례>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말과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 차이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규범서는 이 두 경우의 인사말 예절을 구별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 규범서에 나타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상대방을 처음 만나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인사말 중 ‘알게 되어 기쁘다/반갑다’가 있는데 이는 <표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는 말이므로 남북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소개할 때 ‘○○○

라고 부릅니다.’라고 하거나 자기소개 전이나 후의 인사말인 ‘우리 친하자.’, ‘초면입니다.’라는 인사말 등은 남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이 중 ‘친하자.’는 ‘친하게 지내자.’와 같은 의미의 말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형용사에는 결합 제약이 있는 어미 ‘-자’가 형용사 ‘친하다’에 붙어 쓰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조선말대사전>에 ‘친하다’가 동사처럼 쓰인다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일부 형용사의 경우 남한과 달리 동사적으로 쓰이는 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하자.’는 대체로 화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학교 여학생 둘이]
  - 옥경: 네 이름은 뭐니?
  - 서연: 서연이야, 서연.
  - 옥경: 어, 네가 새로 왔단 애가? 난 옥경이야, 우리 친하자. (영상, 저 하늘의 연)
- [소학교 남학생 둘이, 이미 아는 사이였으나 엄마들끼리도 아는 사이인 것이 밝혀진 후]
  - 철송: 명성아, 친하자.
  - 명성: 좋아, 친하자. (영상, 소원)

‘초면입니다.’는 아래와 같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말을 한 후에도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표레>에 제시된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어머니: 영남이의 누이입니다. 지금 의학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희야 인사해라.  
영남이 담임선생님이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희: 초면입니다. 대학에서 벌써 돌아왔구만요. (연생, 309)

북한 규범서에서는 여관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때 제시된 예문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신의 직업, 거주지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 예문은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서로 소개하는 상황으로 여관에서 소개하는 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 [버스 승객 여러 명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상황]

가: 선생, 우리 통성이나 합세다. 이 과장 동지하구 난 트락또르 부속품 공장에 있수다.

그리구 저 처녀 선생은 사곡에 있는 연구사구 앞에 앉은 분은 평양 손님 그리구...

나: 난 운곡 령감이웨다. 운곡에 와서 [박 령감 있소?] 하면 다 알아. 선생, 운곡엔 한 번 오시우. 내 좋은 술 대접하지.

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전 월사리 진료소 외과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설, 5시간 40분)

<표례>에서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라고 합니다.’, ‘○○○올시다.’, ‘○○○올습니다.’를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북한 규범서에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 제약을 두지 않았으며 특히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는 ‘○○○라고 합니다.’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실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인사법이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규범상 차이는 있으나 실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예. 동실 선생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대명지도국의 김명재라고 합니다.

(영상, 따뜻한 우리집)

○ 장은희라고 해요. (영상, 꿈을 속삭이는 소리)

가: 지도원 동지, 안녕하십니까?

나: 예. 동문 누구요?

가: 저 한필단이라고 합니다. (영상, 햇빛 밝아라)

○ “시병원 의사 선생입니까?”

“네, 리옥금이라고 합니다.” (소설, 이상한 목소리)

## 2)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표 101. <남한>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순서

<p>(1)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예)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함.</p> <p>(2) 손아래 사람을 순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예) 아래 직원을 상사에게 먼저 소개함.</p> <p>(3)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위의 상황이 섞여 있을 때에는 (1), (2), (3)의 순서로 적용한다.</p>
---



<포레>에서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친소 관계, 상하 관계, 성별을 기준으로 소개 순서를 제시하였다. 북한 규범서에서도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우선 아래사람을 윗사람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우레, 185)

- 기사장 동지, 피복 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는 저의 동무입니다. 토론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 공장 기사장 동지요. 인사하오. (우레, 185)
- 지배인 동지, 이 동무는 이번에 대학을 마치고 우리 공장으로 배치되어 온 김영철 동무입니다. (연생, 226)

그러나 그 외 친소 관계와 성별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아래의 두 예문은 친소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나중에 소개하고 있어 <포레>의 제시 순서와 차이를 보였다.

- 이렇게 와 주니 정말 반갑네, 그새 다 무사한가? 여보, 내가 일전에 말하던 고향 친구가 왔소. 인사하오. 이보게, 집사람이네. 알고 지내게. (우레, 47)
- “철옥아, 인사해라. 우리 공장의 전기기사 구병진 동무다. 지금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변압기를 제작하고 있단다.”그리고 병진을 보고 “우리 딸애요. 날 바래주러 나왔구만.”하고 말했다. (소설, 비결)

또한 <포레>에서는 소개할 때의 관계 상황이 섞여 있을 때 (1), (2), (3)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에는 (2) 이외 (1), (3)이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 (2), (3)의 여러 관계가 혼재할 때 일정한 소개 순서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레>에는 손님용무 성격에 따라 소개 순서를 달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있어 눈에 띈다. 즉 손님이 찾아온 목적이 공적인 용무라면 자기의 윗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사적인 용무라면 손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고 있다.

찾아온 손님이 사사용무로 왔을 때에는 그가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먼저 소개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용무로 왔을 때에는 손님이라는 개념에는 관계없이 그에게 자기의 윗사람을 먼저 소개하여야 한다. 《비서 동지, 저의 공장 직장장 동지입니다.》라고 소개한 다음 《직장장 동지, 구역청년동맹 비서 동지입니다. 토론할 문제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라고 자기 윗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우레, 185)

<표례>가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할 때의 인사말과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소개 순서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 규범서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이 인사말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사하세요.’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 인사하세요. 저의 대학 동창이에요. (연생, 286)
- 영남이의 누이입니다. 지금 의학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희야, 인사해라. 영남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연생, 309)
- 순남 동무, 인사하게. 설계 연구소에서 사업하는 김동철 동무네, 이 동무는 나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안순남 동무이고… (연생, 227)
- 아버지: 내 딸이오. 윤경아, 인사해라. 새로 온 경영위원장 아저씨다.  
딸: 안녕하십니까? (영상, 자기를 바치라)
- 아버지: [친구에게] 우리 딸일세. [딸에게] 애, 인사드려라.  
딸: 안녕하십니까? (영상, 사랑의 거리)
- “인사해라. 나와 같이 회사 판매부에서 일하는 젊은이다.” 하는 로인의 소개에 머리부터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처음…” 하던 딸의 입에서 “어머니!” 하는 놀란 소리가 튀어나왔고 룡산의 입에서는 “명미!” 하는 부르짖음이 울려나왔다. (소설, 마지막 배우수업)

‘인사하세요.’ 는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을 할 때도 자주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도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 [부하 직원들에게 새로 온 동무를 소개하는 상황] 인사들 하라우. 새로운 기사 동무요. (영상, 사랑의 샘)
- 자, 동무들, 인사들 하시오. 우리 경리과에 식구가 또 늘었소. 인수원으로 배치되어 온 홍보람 동무요!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 VI. 특정한 때의 남북 인사말 비교

우리는 연말연시, 생일, 축하하거나 위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문상할 때, 견배할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인사말과 표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때에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인사 문화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불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이 앞서 언급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인사말을 하는지, 인사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인사말이나 인사 문화에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살펴본다.

### 1. 연말연시

표 102. <남한> 연말연시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원 성취하게.

표 103. <북한> 연말연시 인사말

	예문	비고
연말연시	(1) ○ 새해 (신년)를 축하합니다! (우생, 198) ○ 아버지, 어머니,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례, 150) ○ 삼촌, 새해를 축하해요. (연생, 216) ○ 새해를 축하한다. (우례, 150)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례, 150)	(1) ‘새해를 축하합니다.’는 북한의 대표적인 새해 인사말임.
	(2) ○ 새해 안녕하십니까? (우생, 198)	(2)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사말임.

	예문	비고
	(3) ○ 새해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생, 198) ○ 새해 건투를 축원합니다. (우생, 198) ○ 형님, 새해에는 꼭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서 성공하세요. (연생, 216) ○ 아버지,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연생, 216)	(3) 사업성과, 건강 등을 축원하는 인사말이 사용됨.

〈표례〉에서는 송년 인사에 관해 다루면서 ‘감사하다’보다는 고유어인 ‘고맙다’를 쓰도록 권장했다. 〈우례〉에서도 생활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강조하면서 ‘고맙다’의 한자어 표현인 ‘감사하다’가 공식적이며 딱딱한 느낌을 준다고 하여 ‘고맙다’를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례하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이다. 《감사하다》는 《고맙다》의 한자어 표현이며 어딘가 공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고맙다》의 뜻은 자기에게 좋게 대해 주거나 잘해준 데 대해 마음 상으로 흐뭇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즉 덕분에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의미 속에 상대방의 관심과 은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에 기꺼이 보답하려는 마음까지 담고 있다. 《고맙다》는 말은 주위 사람들과의 뜨거운 사랑과 친절감의 열렬한 표시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언제 어디서나 자기와 집단을 돕고 관심해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친절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례, 168)

선달그믐에 웃어른을 찾아가 인사했던 ‘묵은세배’ 문화는 남이나 북이나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묵은세배’가 있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또는 특별히 나를 보살피 준 어른을 그믐께 찾아뵙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지금은 옛날과 같은 묵은세배를 그대로 고집하기는 어렵다. (표례, 197)

전날에는 작은 설(까치설)날도 웃어른을 찾아뵙고 《묵은세배》를 하였는데 이때의 인사말로는 《과세 안녕히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답인사로는 《설 잘 쇠다.》, 《과세 잘 하계.》라고 하였다. 오늘날은 《묵은세배》하러 따로 찾아가지는 않으나 선달그믐날 헤어질 때면 의례히 《설 잘 쇠계.》라고 한다. (우생, 198)

북한은 현재 양력설을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음력설은 휴식일로 보내고 있다<sup>49)</sup>. 남한에서는 연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새해 인사를 미리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대표적 새해 인사인 ‘새해를 축하합니다.’를 연말 인사말로 쓰지 않는다. 남한의 인사말은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형식이나 북한은 새해가 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형식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31일에 헤어지면서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 것이고 1월 1일이 펴 지난 이후에 만나서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해도 정확한 인사말로 되지 못한다. 새해를 앞두고 헤어질 때에는 《명절을 잘 쇠십시오.》, 《명절을 즐겁게 보내십시오.》와 같이 인사말을 먼저 한 다음에 대상에 따라 새해 명절과 관련한 다른 인사말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언생, 217)

남한은 신년 인사의 표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고 북한도 이러한 인사말을 사용하나 ‘새해를 축하합니다.’가 더 전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 할아버지, 새해를 축하합니다. 할머니, 새해 건강하십시오.  
오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레, 150)
- 가: 음력설을 축하합니다.  
나: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영상, 우리의 향기)

북한은 사업성이나 건강을 축원하는 말을 새해 인사로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덧붙여 축원의 말을 하기도 하므로 남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할아버지, 새해를 축하합니다. 할머니, 새해 건강하십시오.  
오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레, 150)
- 가: 음력설을 축하합니다.  
나: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영상, 우리의 향기)

북한 규범서에는 ‘새해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인사말도 제시되었으나 이는 ‘새해를 축하합니다.’와 같이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인사말이다.

49) 휴식일인 음력설은 그날 쉬는 대신 전이나 후 일요일에 보충 근무를 해야 한다.

[참고 가까운 동무들과의 설 인사말]

- 형철 동무, 새해를 축하합니다. (언생, 217)
- 인숙 동무, 금년에는 일을 좀 더 본때 있게 해 봅시다. (언생, 217)
- 인철 동무, 새해에는 우리 학급을 꼭 최우등생학급으로 만들자요. (언생, 217)

또한 가족, 친척, 친지에게 세배로 신년 인사를 하는 것은 남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집안에서 친척, 친지에 대한 신년 인사는 세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 (표례, 198)

우리 민속에서 큰 명절로 여기며 즐겁게 지내는 날은 설 명절이다. 곱게 설빔을 한 아이들과 깨끗이 차려 입은 청년 남녀들이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다니는 우리 인민의 풍속은 참으로 아름답다. (우생, 197)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도 새해 인사를 세배로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선생님과 부인님 앞에 굽석 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오, 우리 유춘이가 왔구나! 새해에 건강해서 공부 잘해라.” (소설, 교정의 룬리)
- [설날 아침,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 아들이]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그 후 손을 바닥에 대어 절함] (영상, 우리의 향기)

<표례>에서는 세배할 때 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하는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는 말이 명령조의 말로 불필요하고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하였다. 북한 영상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한에서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 아버지, 그럼 설 인사를 받으십시오. (영상, 우리의 향기)
- 설 인사를 받으십시오. (영상, 우리의 향기)

또한 <표례>에서는 세배할 때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말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북한 영상에서는 세배와 함께, 그

리고 세배 전후에 인사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 또한 실생활에서는 남북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다.

- [아들이, 절하기 전에]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영상, 우리의 향기)
- [며느리가, 절을 하며] 아버님,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영상, 우리의 향기)
- [옆집 아이들이 설 인사하러 와서 절을 하며] 할아버지,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영상, 우리의 향기)

<표레>에서 아랫사람의 세배 후에 어른이 덕담을 하는데 만약 덕담이 이어 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는 뒤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 윗사람에게 건강을 비는 인사를 하는 경우 듣는 이에게 ‘내가 벌써 건강을 걱정해야 할 만큼 늙었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듣는 사람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윗사람에 대한 새해 인사 자체를 덕담과 같은 기원의 말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윗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은 남한에 비해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버지,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언생, 216)
- 할아버지(할머니), 새해에는 더 젊어지십시오. (언생, 217)
- 할머니(할아버지), 새해에도 앓지 마시고 정정해 계십시오. (언생, 217)

#### [참고]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설 인사<sup>50)</sup>

우리 인민은 설 명절이 되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는 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고 있다. 흠모의 마음, 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인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우러러 나오는 우리의 인민들의 승엄한 사상 감정의 표시이다.  
(언생, 216)

50) 1월 1일 설날 아침의 특이한 풍경은 김일성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다. 설날 아침이면 김일성 동상이 있는 도시에서는 당과 행정 조직에서 아침에 김일성 동상에 꽃바구니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략)… 김일성 동상 아래 인사를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터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들과 정장을 차려 입은 남성들, 줄을 지어 대열을 맞춘 학생들, 가족들이 김일성 동상에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김승철, 2000:22~23).

[참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설 인사

설 인사는 새해에 들어와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눌 수 있다. 친척, 친구, 이웃들 사이는 물론이고 처음 만나 접촉하게 되는 사람이라도 설 인사를 나누는 것이례이다. 특히 설날에 명절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새해 인사를 하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품성이다. (우레, 151)

## 2. 생일 축하

표 104. <남한> 생일 축하 인사말

상황		인사말
돌 때	아기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라라.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의 생일에	당사자에게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환갑, 교회 등의 생일에	당사자에게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축하합니다.
	당사자의 자녀에게	축하하네. 수고했네.
환갑, 교회 등의 잔치에서 현수할 때의 말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표 105. &lt;북한&gt; 생일 축하 인사말

상황		예문	비고
돌, 백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가 참 실하구나. 장수감이다. (우레, 156)</li> <li>○ 애가 정말 령리해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레, 156)</li> <li>○ 돌생일을 축하합니다. 애가 참 귀엽게 번지누만요. (우레, 156)</li> </ul>	아기의 발육 상태나 장래와 관련한 내용으로 축하함.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의 생일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일을 축하하네. 서른 때면 한창 이름을 떨칠 나이지. 본때 있게 일해 보라구. (우레, 156)</li> <li>○ 옥이의 열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공부를 더 잘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우레, 156)</li> <li>○ 생일을 축하해. 점점 더 고와지는구나. (우레, 156)</li> </ul>	건강과 행복, 사업 성과 등을 바라는 내용으로 생일을 축하함.
윗사람의 생일에	당사자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레, 156)</li> <li>○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지 마시고 오래오래 앉아 계셔야 합니다. (우레, 156)</li> <li>○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좋은 세월에 오래 오래 장수하십시오. (우레, 155)</li> <li>○ 이 좋은 세상에 오래 오래 사십시오. (우생, 199)</li> </ul>	윗사람의 생신도 ‘생일’이라고 지칭함.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음.
	당사자의 자녀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님께서 몸 건강히 생일 60돛을 맞으시니 대단히 기쁘시겠습니다. (우생, 199)</li> </ul>	노인의 생일을 ‘60돛’과 같이 지칭한 점이 특이함.

남한에서는 순위 사람, 어른의 생일에 대해서는 ‘생신’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에게도 ‘생신’이 아닌 ‘생일’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생신’을 주로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생일 60돛을 축하합니다. (우생, 199)
- 이번 일요일이 할아버지 생일날인데… (영상, 우리의 향기)
- 아버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영상,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둘 축하 인사말로 <표례>에서는 아기의 부모에게는 ‘축하합니다.’를, 아기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라.’가 좋다고 하였다. 북한 자료에서는 ‘축하합니다.’ 외에도 아기를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말로 돌이나 백일을 축하하는 예가 있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말 중에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어감이 다른 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들의 돌이나 백날인 경우에는 발육 상태나 장래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이와 부모들을 축하해 준다. (우례, 156)

○ 돌생일을 축하합니다. 애가 참 귀엽게 번지누만요. (우례, 156)

<조선말대사전>에는 ‘번지다’의 뜻 중 ‘용모가 변해 가다’라는 뜻이 있어 위의 ‘귀엽게 번지누만요.’는 ‘귀여워지는군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번지다’에 북한과 같은 의미가 없으므로 칭찬의 말로 사용할 경우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는 남북 모두 ‘(생일) 축하한다.’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생일 축하의 말과 더불어 기원과 축원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축하 인사말인 것으로 여겨진다.

웃어른의 생신을 축하하는 경우에 남한에서는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데 <표례>에서는 이때 ‘축하합니다.’보다 ‘축하드립니다.’로 높임의 뜻의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남한에서는 웃어른의 생일에 ‘축하합니다.’보다는 ‘축하드립니다.’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할아버지’와 ‘선생님’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아닌 ‘축하합니다.’를 쓰는 등 ‘축하합니다.’를 남한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례, 156)

○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좋은 세월에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우례, 155)

또한 <우례>에서는 연세 드신 분의 생일에는 나이를 밝혀 축하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60살 이상의 늙은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경우에 나이를 밝혀서 《70돛 생일을 축하합니다.》와 같이 축하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한다. (우례, 155)

다른 규범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고 나이를 밝혀 축하하는 인사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때 웃어른의 생일을 ‘똥’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 생일 60똥을 축하합니다. (우생, 199)

<표레>에서는 ‘건강하십시오.’가 형용사인 ‘건강하다’를 명령형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어른에게는 명령형 인사말을 피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규범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고 ‘건강하십시오.’를 사용한 예문도 나타났다.

○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레, 156)

또한 <표레>에서는 ‘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가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며 ‘여생을 건강하게 사십시오.’, ‘백세까지 사십시오.’와 같은 말은 듣는 이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는 군더더기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오래 살라는 기원의 말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규범서만 놓고 보면 생일 축하 인사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남한에서도 여전히 ‘건강하십시오.’는 물론 장수를 기원하는 인사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남북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단, 북한에서 사용하는 장수 기원의 말 중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앉지 마지고 오래오래 앉아 계셔야 합니다. (우레, 156)

○ 할머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똥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언생, 221)

생일을 맞은 이의 자녀에게 하는 인사로 <표레>에서는 ‘축하하네.’, ‘축하합니다.’, ‘수고했네.’, ‘수고하셨습니다.’를 제시하였다. 북한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문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아이의 돌에 축하한다는 인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비슷한 인사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부부 간의 생일 축하 인사말**

생일날이 되면 부부사이에는 《오늘이 당신 생일이예요. 많이 드세요.》, 《생일날에 한잔 부어 드리지요. 건강하세요.》, 《당신 생일날에 기념품<sup>51)</sup>을 드리겠어요. 한번 써 보세요. 마음에 들겠는지?》 안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안해의 생일날에는 남편이 《이걸 받소. 당신 생일을 축하하여 가져 왔소.》,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과자요. 받소.》, 《천이 마음에 들길래 사왔소. 생일 기념으로 해 입소.》, 《당신 생일인데 오늘은 내가 좀 차리지.》라고 말하면 부부간의 화목과 정을 더욱 두터이 해주게 될 것이다. (언생, 287-288)

**[참고]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생일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축하인사**

-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일상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언생, 221)
-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도 기쁩니다. (언생, 221)
- 최상의 영광을 받아 안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언생, 221)
- 오래 사신 보람이 있습니다. 여한이 없겠습니다. (언생, 221)

51) 1990년 북한은 당 조직을 통해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특이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김일성 · 김정일 부자가 하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물’로 하라는 지시였다. 대신 주민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물’이라 하지 말고 ‘기념품’이라고 표현하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생일을 맞거나 평양 견학 갔다 온 후에 주고받는 경우에 보통 선물이라고 사용하여 왔었다. 그 후 당과 해당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공식장소에서는 기념품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김승철, 2000:292~293).

### 3. 축하, 위로

#### 1) 결혼

표 106. <남한> 결혼 축하 인사말

대상	인사말
본인에게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혼인을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결혼을 경축합니다. 혼인을 경축합니다.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표 107. <북한> 결혼 축하 인사말

대상	예문	비고
본인에게	○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우례, 154) ○ 너희들을 축복한다.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재미나게 살아라. (우례, 154) ○ 백년해로하기를 축원하오. (우생, 199) ○ 행복하세요. 우리 런옥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례, 154) ○ 기쁘겠네. (우생, 199)	
부모, 가족, 친척들에게	○ 어머니, 축하합니다. (우례, 155) ○ 매우 기쁘시겠습니다. (언생, 220) ○ 아버님, 새며느리를 맞아서 기쁘시겠습니다. (우례, 155) ○ 훌륭한 사위를 보셔서 기쁘시겠습니다. (우생, 198) ○ 며느리를 잘 보셨습니다. (우생, 198) ○ 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언생, 220) ○ 대사를 치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언생, 221)	

결혼을 축하하는 말은 본인에게 하는 말이나 부모에게 하는 말 모두 남북이 대체로 비슷하며 서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다만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는 말로 사용된 ‘꿀꿀하다’와 ‘알뜰하다’는 남과 북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 알뜰한<sup>52)</sup> 며느리를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언생, 220)
- 꿀꿀한<sup>53)</sup> 사위를 맞았으니 한시름 놓겠습니다. (언생, 220)

**[참고] 친척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하는 축하 인사**

- 우리 철호가 색시감을 잘 골랐구나. 축하한다! (언생, 220)
- 아들딸 낳고 잘 살아라. (언생, 220)
- 우리 현옥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언생, 220)

**[참고] 친구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하는 축하 인사**

- 축하하네 철호, 행복하게! (언생, 220)
- 축하해 현옥이! (언생, 220)
- 현옥이가 새서방감을 고르고 고르더니 이제야 잔치떡을 먹게 되었구나. 철호 동무, 우리 현옥이를 잘 도와주세요. (언생, 220)
- 철호 동무, 현옥인 이제 곧 학사가 돼요. 너무 부업에 붙잡아 놓지 말아요. (언생, 220)

52) ‘알뜰하다’의 사전 뜻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대사전>	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참되다. ② 일이나 생활이 허술한데나 빈 구석이 없이 착실하고 실속 있다. ③ 생김새가 나무랄데 없이 뻗히고 아릿답다.
<표준국어대사전>	① 일이나 살림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하여 빈틈이 없다. ②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참되고 지극하다.

53) ‘꿀꿀하다’의 사전 뜻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대사전>	(사람이) 몸이 튼튼하고 생김새가 미끈하며 활력에 넘쳐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참고] 결혼 축하 인사를 받을 때 응대 인사말**

-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례, 155)
-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례, 155)
-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생, 199)

**2) 출산**

**표 108. <남한> 출산 축하 인사말**

대상	인사말
산모, 남편, 이들의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순산하셨다니 축하합니다.

**표 109. <북한> 출산 축하 인사말**

대상	예문	비고
산모, 남편, 이들의 부모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 동무, 아들을 보았다지요. 축하합니다. 아주머니는 건강합니까? 애는요? (우례, 156)</li> <li>○ 생남을 축하합니다. 아들 부자 되셨습니다. 무서울 게 없겠는데요. (우례, 156)</li> <li>○ 광혁 동무! 아들을 보았다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옷을 받아요. 동무의 그 귀여운 &lt;도련님&gt;에게 맞겠는지...고르느라고 했는데... (우례, 208)</li> <li>○ 손자를 두셨다지요? 기쁘시겠어요. 아들 귀한 집에 참 경사입니다. (우례, 157)</li> </ul>	‘득남’ 대신 ‘생남’으로 표현함.

출산을 축하하는 말로 <표례>에서는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또는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순산하셨다니 축하합니다.’를 권장하였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표현들도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표례>에서는 아들을 낳았을 때나 딸을 낳았을 때 인사말을 달리하지 말

고 똑같이 축하하는 말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북한 예문에서는 ‘생남을 축하합니다. 아들 부자 되셨습니다. 무서울 게 없겠는데요.’, ‘손자를 두셨다지요? 기쁘시겠어요. 아들 귀한 집에 참 경사입니다.’와 같은 말이 나타나 성별에 따른 인사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다음 예문에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북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지인: 참 아주머니가 몸을 풀었다던데...
- 당사자: 예. 딸을 낳았습니다.
- 지인: 그래요. 축하합니다. 모두 깨끗합니까?
- 당사자: 예, 그런데 딸이어서...
- 지인: 왜요. 참 큰애도 딸이었지요. 잘됐습니다. 딸 형제가 아들 형제보다 낫다던데요.
- 당사자: 그럴가요. 고맙습니다. (우레, 157)

### 3) 문병

표 110. <남한> 문병할 때 하는 말

대상		인사말
환자에게	들어가서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불의의 사고일 때]불행 중 다행입니다.
	나올 때	조리 잘 하십시오. 조섭 잘 하십시오.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에게	들어가서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올 때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표 111. &lt;북한&gt; 문병할 때 하는 말

대상	예문	비고
환자에게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을 했다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생, 213)</li> <li>○ 입원했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병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우례, 194)</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 왔을 때보다 꼭 차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모두들 반가와할 것입니다... (우생, 196)</li> <li>○ 이자 여기로 오다가 대학 때 동창을 만났는데 그도 자네와 같은 병이었두만. 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래일은 퇴원한 다누만. 신심을 가지자구. (우례, 131)</li> <li>○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면 꼭 완쾌 될 거네. (우례, 194)</li> <li>○ 그새 꼭 좋아졌구만. 빨리 병을 털고 퇴원해서 또 뛰여 보아야지. 지금 새로 맡은 대상을 놓고 온 직장이 뛰는데 자네가 보이지 않으니 어쩐지 섭섭하더구만.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 자네 재간이면 병을 고치고 나와서도 얼마든지 짧은 기일에 해제낄 수 있어. 자, 힘을 내자구. (우례, 131)</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 (언생, 224)</li> <li>○ 몸조리를 잘 하세요. (언생, 224)</li> <li>○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동무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일은 걱정 마시고 몸조리를 잘 하십시오. (우생, 196)</li> <li>○ 병 치료를 잘 하십시오.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언생, 213)</li> <li>○ 학급 일은 걱정말고 치료를 잘 받아. 네가 꼭 나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선생님이랑 동무들이랑 정말 기뻐할거야. (언생, 224)</li> <li>○ 병 치료를 열성스레 해서 빨리 병을 고치고 나오라구. 설계랑 동무가 다 했는데 빨리 나와 시운전을 해 봐야지. (우례, 194)</li> </ul>	<p>(1)</p> <p>환자의 상태를 묻는 말을 함.</p> <p>(2)</p> <p>병 치료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함.</p> <p>(3)</p> <p>당부와 바람의 말을 함.</p>

문병할 때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남북의 규범서 모두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도록 강조하고 환자의 상태를 묻는 말과 위로, 걱정, 당부, 바람의 말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례>와 달리 북한 규범서에서는 들어가고 나올 때의 말, 환자와 보호자에게 하는 말을 구별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표례>에 제시된 표현 중 ‘조섭 잘 하십시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몇몇 표현은 북한 규범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사말의 표현 차이가 약간 발견되었을 뿐 문병 인사말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남한의 것과 유사하다.

**[참고] 병문안을 받은 사람의 응대 인사말**

- 별치 않은 병에 이렇게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언생, 215)
- 이제는 많이 나았습니다. (언생, 215)
- 고맙습니다. 여러 동무들이 넘려해 주고 방조해준 덕분에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언생, 215)

**[참고] 중병에 걸린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sup>54)</sup>**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알면 환자가 비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환자에게 《손님은 암에 걸렸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떠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증상은 있는데 치료를 받으시면 인차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고무적인 말을 하여야 한다. 뇌혈전이나 뇌출혈 등으로 하여 몸 움직임에 장애가 온 환자인 경우에도 《자, 약을 잡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한 달 정도 운동하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갑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환자가 분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례, 130)

54) 환자가 중병에 걸렸을 경우 의사는 병명과 병세를 밝히지 말고 곧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하도록 하였다. 남한에서도 환자의 병세가 안 좋은 경우 진단 결과의 전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하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게 곧 나올 것이라는 말을 하도록 권장하지는 않는다. 환자의 알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규범서의 이와 같은 기술은 물질 토대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북한 사회의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 4) 기타

표 112. <남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

<p>축하해야 할 일 (신축, 개업, 이전, 합격, 입학, 졸업, 취직, 승진, 영전, 정년 퇴임)</p>	<p>축하합니다. ○○을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을 경축합니다.</p>
<p>위로해야 할 일</p>	<p>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내어 그 점을 드러내 인사하는 정신이 중요하다.</p>

표 113. <북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

	예문	비고
<p>축하해야 할 일 (명절, 국가표창, 입대, 성과, 합격, 개업 등)</p>	<p>(1) ○ 건군절을 축하합니다. (우례, 150) ○ 명절을 축하합니다. (우생, 197)</p> <p>(2) ○ 아버이 장군님의 감사를 받았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언생, 219) ○ 국가표창 받은 걸 축하합니다. (우례, 152) ○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뵈고 기념 촬영까지 하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례, 152)</p> <p>(3) ○ 입대를 축하한다. (우례, 152) ○ 축하해요. 훌륭한 병사가 되길 바래요. (우례, 152) ○ 명수 동지, 입당을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 시겠습니까? (우례, 243)</p>	<p>(1) 국가 기념일과 명절에 축하인사를 함.</p> <p>(2)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감사의 말을 듣거나 국가 표창을 받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고 축하함.</p> <p>(3) 입대, 입당할 때 축하 의 말을 함.</p>

	예문	비고
	(4) ○ 무비루스감자 배양 시험에 성공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례, 153) ○ 학사학위를 받았는지요. 축하해요. 20대, 30대의 박사가 되세요. (우례, 153) ○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지요. 축하합니다. (우례, 153) ○ 식당 조업을 축하합니다. (우례, 153)	
위로해야 할 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뜻하지 않게 자연 재해나 사고를 당하여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걱정해 주고 위로하며 그들이 아픔과 괴로움을 하루빨리 가시도록 도와주는 자세와 립장에서 말하고 대해 주어야 한다. (우례, 159)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걱정과 위로의 말을 하도록 함.

남북 모두 여러 상황에서 축하나 위로의 말을 한다는 점은 같다.

- 대학생이 된 혜경 동무를 축하해. 공부를 잘해서 소망대로 훌륭한 여성 법률가가 되길 바란다. (우례, 153)
- 새 집에 이사해서 기쁘시겠습니다. 참 잘됐습니다. (우례, 153)
- 우리 학급에서 단위원장이 나오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단위원장으로 임명된 영철 학생을 박수로써 축하해 줍시다. (우례, 94)
- 박 동무, 기술 혁신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네. 이걸 우리 작업반의 자랑이며 긍지요. 동무의 기술 혁신 성과를 널리 일반화해 나가자구! (우례, 178)
- 우리 집단의 경사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생, 201)

그런데 북한에서는 설날 이외에도 기타 명절과 기념일을 축하해야 하는 날로 보고 이에 대해 축하하는 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경사라고 보기 때문이다(우례, 148).

- 명절을 축하해요 (우례, 149)
- 태양절을 축하합니다. (우례, 149)

- 2.16 명절을 축하합니다. (우레, 149)
- 건군절을 축하합니다. (우레, 150)
- 3.8 국제 부녀절을 축하합니다. (우레, 151)
- 청년절을 축하합니다. (우레, 151)
- 해군절을 축하합니다. (우레, 151)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로부터 상을 받거나 함께 기념 촬영하는 등의 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는 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을 받아 안은 실장 동지를) 축하합니다. 우리 집단의 경사입니다. (우레, 152)
- 아버이 장군님의 감사를 받았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언생, 219)
-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촬영도 하고 표창을 받는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언생, 219)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당원이 되는 것’과 ‘입대’ 등을 축하할 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남한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었을 때, 상급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조선인 민군대에 입대하였을 때, 경연이나 경기에서 입선되었거나 이겼을 때,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을 때를 비롯하여 성과를 축하하여야 할 계기들은 여러 가지로 있게 된다. 이러한 때 대상의 특성과 축하하는 내용에 맞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축하해 줄 수 있다. (우레, 152)

또한 <우레>에서는 아랫사람을 축하하는 상황에서 당부와 기대의 말을 덧붙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자칫 상대에게 지금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말이므로 남한에서는使用时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졸업을 축하하네. 자네 어른이나 나는 자네 나이 때 그 몫쓸 왜놈 등쌀에 학교 문전에도 못 가 봤었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러니 당의 은혜에 꼭 보답해야 하네. (우생, 202)
- 대학 입학을 축하하오. 학습과 민청 생활에서 꼭 진교의 모범이 되도록 하오. (우생, 202)

- 자 녀: 아버지, 나 이번에도 최우등했어요.  
아버지: 그래 축하한다. 계속 최우등을 해야 한다. (우례, 153)
- 이번 씨름 경기에서 2등을 했다면서. 첫 출전치고는 괜찮아. 축하한다. 더 이악하게 노력해서 꼭 1등을 해야 해. (우례, 153)
- 철수 동무, 축하합니다. 다음달 생산에서도 꼭 1등을 하길 바랍니다. (우례, 243)
- 축하하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바라네. (우례, 193)
- 우리 영식이가 표창을 받았다고? 야 기쁜 일이다. 래일부터는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우례, 56)

축하한다는 말 앞에 붙는 수식어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 자료에서는 ‘열렬히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남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 전승절에 즈음하여 전쟁로병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례, 150)
-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가족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영상, 해빛 밝아라)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 주신 초대장을 받아 안고 이 영광의 자리에 참석한 홍봉청년발전소 돌격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영상, 시대가 주는 이름)

또한 남한에서는 생일 축하 인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여야 할 대상에게 ‘축하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임의 뜻을 더 나타내기 위해 ‘축하드립니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 자료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를 두루 사용하고 있었다.

-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우례, 192)
-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기념 촬영도 하고 표창을 받는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연생, 219)
- [결혼식에서] 청년 동맹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례, 154)
- 선생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표창을 받아 안았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례, 207)
- [군인 자녀가 선창] 차렷, 영웅이 된 어머니를 축하합니다.  
[군인인 자녀 10명이 군복 입고 열을 맞춰 선 채로 경례하며] 어머니, 축하합니다.  
(영상, 저 하늘의 연)

**[참고] 축하에 대한 응대 인사말<sup>55)</sup>**

- 고마워, 열심히 노력하겠어. (우레, 153)
-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레, 153)
- 감사합니다. 당의 은혜에 꼭 보답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생, 201)
- 축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동지들이 잘 도와준 덕택입니다. (우레, 152)
-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입니다. (우레, 153)
- 고맙습니다. 당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성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방조와 지도가 있는 덕분입니다. (우생, 201)
- 제가 한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이 표창은 우리 집단에 준 당의 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생, 202)

남북 모두 주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내도록 돕는 말을 한다.

- 이번 수해 피해가 정말 컸구만요. (언생, 223)
- 해일 피해가 컸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언생, 223)
- 아들이가 상처를 입었다던데 좀 어떻습니까? 잘 치료해 주십시오. (언생, 223)
- 최 동무, 삼촌이 잘못되었다지요? 참 안됐구만요. 장의엔 가 보았는가요? (우레, 159)
-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일을 하느라 사고도 있을 수 있지요.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우레, 159)
- 이번 큰물에 손실이 컸다드군요? 너무 상심 마십시오. 힘을 내서 빨리 일어나야 해요. (우레, 159)
- 네가 주저앉다니? 나는 그걸 믿지 않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 않니? 함께 해보자. 동무들도 힘껏 도와줄 거야. (언생, 224)

55) <우레>에서는 인사를 받으면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해 갈 결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답례 인사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4. 문상

표 114. <남한> 문상 인사말

상황	문상객의 말	상주의 말
일반적으로 두루 쓸 수 있는 말	[말없이 인사만 한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뒤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상의 경우	[말없이 인사만 한다.]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	

표 115. <북한> 문상 인사말

상황	예문	비고
문상객의 말	(1) ○ 조의를 표합니다. (우례, 158) ○ 뜻밖입니다. 정말 애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례, 158) ○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례, 194) ○ 뜻밖의 일을 당하셔서 얼마나 가슴아프시겠습니까. (우례, 194)  (2) ○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우례, 158) ○ 힘을 내야 합니다. (우례, 158) ○ 정말 가까운 분을 잃었습니다. 손실이 큼니다. (우례, 158) ○ 오래 앉아 계셔야 할 걸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셨군요. (언생, 222) ○ 더 앉아 계실 줄로 알았는데...참 슬픈 일입니다. (우례, 158) ○ 고인의 뜻대로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우례, 158) ○ 우리가 뭐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우례, 158) ○ XX 동무는 참 좋은 동무였습니다. 능력 있고 대바르고 인정도 많은 동무였습니다. 우린 그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례, 158)	(1) 남한의 문상 인사말과 비슷한 형태임.  (2) 아무 말 않는 것보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무하는 인사말을 하도록 함.



	(3) ○ 참 안됐습니다. (우례, 158)	(3) 남한에서는 유가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임.
상주와 유가족의 말	○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례, 159) ○ 위로해 주어 고맙습니다. (우례, 159) ○ 제가 평시에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연생, 223) ○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하던 연구사업을 제가 마저 성공시키겠습니다. (연생, 223)	유가족도 문상객과 마찬가지로 인사의 말을 반드시 하도록 함.

남한에서는 문상 시 상주를 대할 때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포레>에서도 문상을 가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문상객이 상황에 맞는 말을 잘 준비하여 슬픔과 위로를 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남북의 문상 예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가집이나 제사집에서는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에 맞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하여야 한다. 상가집이나 제사집에 갈 때에는 고인의 사망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의 말을 경우에 맞게 잘 준비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우례, 157)

고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고인을 추억하고 그의 사망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말을 준비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다. (우례, 158)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무하는 데서는 주로 고인의 평시의 공적과 업적을 평가하는 말, 그의 품성을 치하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연생, 223)

북한에서 문상 인사말은 정형화된 것보다는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문상 인사말은 남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남한에서 사용하면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도 있었다.

아래 예문에서 사용된 ‘오래 앉아 계시다’, ‘더 앉아 계시다’는 생일 축하 인사말

에서 나타난 ‘오래오래 앉아 계셔야 합니다.’와 마찬가지로 ‘오래 살다’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어색하게 들린다.

- 오래 앉아 계셔야 할 걸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셨군요. (언생, 222)
- 더 앉아 계실 줄로 알았는데… 참 슬픈 일입니다. (우례, 158)

또한 아래 예문에서 나타난 ‘손실이 크다’라는 표현은 남한에서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말로는 매우 어색하다.

- 정말 아까운 분을 잃었습니다. 손실이 큼니다. (우례, 158)

아래에 제시된 표현은 국가를 대가정으로 보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 고인의 뜻대로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우례, 158)
- 우리가 뭐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우례, 158)

또한 <표례>에는 애도의 말을 한 뒤에 덧붙여서 말을 할 경우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뒤를 흐리는 것이 예의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길고 분명하게 인사말을 전하는 것은 남한의 문화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XX 동무는 참 좋은 동무였습니다. 능력 있고 대바르고 인정도 많은 동무였습니다. 우린 그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례, 158)

마지막으로 아래 예문에서 나타난 ‘안됐다’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유감을 나타내는 뜻으로 잘 사용되지만, 남한에서는 남을 동정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유가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애도가 아닌 동정을 나타내는 뜻이 되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 참 안됐습니다. (우례, 158)

이처럼 남북의 문상 인사 예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북한식의 문상 인사를 남한에서 하거나 남한식의 말없는 애도의 표현을 북한에서 한다면 무례해 보이거나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문상객이 상주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해 잘 돌아가셨다는 뜻을 비치는 것은 남북한 모두 실례가 된다.

문상을 가서 ‘호상(好喪)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혹 문상객끼리라면 몰라도, 상주에게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천수(天壽)를 다했더라도 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상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표례, 213)

인사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그 죽음이 응당하다는 뜻의 사소한 표현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이가 아주 많았거나 불치의 병을 오래 앓은 경우에도 절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내색을 하는 것은 경솔한 소행이며 실례로 되는 일이다. (언생, 222)

상주의 답례 인사법도 남북이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상주가 문상객과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답례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과 위문을 받으면 유가족측은 그에 대해 답례를 하는 것이 도덕이다. (우례, 159)  
방문과 위문을 받은 고인의 가족과 그가 속해 있던 집단의 성원들도 반드시 답례를 하여야 한다. (언생, 223)

## 5. 건배할 때

표 116. <남한> 건배할 때 하는 말

선창	화답
○○을 위하여!	위하여!
지화자!	좋다!
건배!	건배!
축배!	축배!

표 117. <북한> 건배할 때 하는 말

예문	
선창	화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들시다. (영상, 길을 비켜라)</li> <li>○ 자, 들자요. (영상, 미결건은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건강을 위해서. (영상, 미결건은 없다)</li> </ul>

북한 규범서는 건배할 때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설과 영상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창하는 말로 ‘들시다.’와 같은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배 제의에 화답하는 말로는 북한 영상에서 ‘건강을 위해서’가 발견되어 남북이 비슷한 표현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답하는 말의 경우 발견된 예문이 적어 빈도가 높은 표현에 대한 확인은 어려워 보인다.

- 자아, 우리가 만난 것을 축하해서 이 잔을 들시다. (소설, 나루가의 밤 이야기)
- [여자 유치원 선생들이 잔을 부딪치며] 자~ (영상, 꿈을 속삭이는 소리)
- 자, 기사장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영상, 가정)
- 선창: 다같이 깡뻐이.  
 화답: 깡뻐이. (영상, 우리의 향기)

마지막 예문은 외국 풍속만 좋은 것으로 여기는 집안에서 술을 마실 때 하는 말로 극의 흐름상 옳지 못한 언어 사용의 예로 나온 것이기는 하나 ‘깡뻐이’라는 말이 그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VII. 요약 및 제언

### 1. 남북 호칭·지칭

분단 이전의 전통적인 호칭·지칭을 남북한이 이념적인 필요에서 또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규범화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에 비해 친족 호칭·지칭은 남북이 아직까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편이었다. 남북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을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연구원(1995)은 평양에서는 ‘아빠’와 ‘누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와 소설, 영상에서 그 사용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어린 연령대에서도 ‘아버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누님’을 쓸 상황에서 ‘누이’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갓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동무’를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는 점, 중년이나 노년의 남편이 아내를 ‘로친네’라고 부르거나 이른다는 점, 남한에서는 부부 사이에만 쓰이는 ‘여보’가 사회생활에서 남자들끼리 부르는 호칭으로도 쓰인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사용되지 않는 북한 친족 호칭·지칭어로는 ‘세대주’, ‘가시아버지’, ‘가시아머니’, ‘오레미’, ‘적은이’, ‘삼촌어머니’, ‘고모어머니’, ‘이모어머니’, ‘이모아저씨’, ‘사돈님’ 등이 있으며, 봉건시대의 잔재라고 간주되는 ‘서방’(매부, 제부, 사위, 시누이 남편, 동서), ‘도련님’(시동생), ‘아가씨’, ‘아기씨’(손아래 시누이), ‘바깥 량반’(남편) 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규범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제수씨’, ‘새 언니(또는 언니)’, ‘형부’에 대해 북한에서는 ‘제수(또는 제수님)’, ‘형님’, ‘아저씨’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은 남북한 간에 이질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의도적인 ‘동무·동지’ 사용 권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아래는 남한과 차이를 보이는 사회에서의 북한 호칭·지칭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동무·동지’의 정책적 사용 강조와 일상화를 들 수 있다. 북한 규범은 ‘동무·동지’가 붙은 호칭·지칭을 직장, 조직, 학교, 공공장소 등 북한 사회생활의 전 영

역에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과 영상에서도 가장 폭넓게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동무’는 지인들 사이, 초면에서도 사용될 만큼 일상적인 호칭·지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모든 인간관계를 혁명 동지의 관계로 간주하면서 ‘동무·동지’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해 온 결과이다.

둘째,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끼리 친족명만으로 부르거나 직무나 직위, 이름에 친족명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북한 규범은 사회생활, 특히 조직생활에서 친족 호칭·지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연장자에 대해서만 조직의 화합을 위해 ‘아바이’, ‘아주머니’ 등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선생(님)’을 붙인 호칭·지칭에서도 남북이 미묘한 용법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선생(님)’이 남을 높여 부르거나 이를 때 쓰는 일반적인 존대어로 사용된다. 북한의 ‘선생님’은 교육, 보건, 과학 연구기관 등 특정 직종 종사자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역이 남한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 ‘영숙 선생님’처럼 이름에 ‘선생님’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김 선생님’처럼 성을 붙인 형태가 더 자주 쓰이는 남한과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기자 선생님’, ‘교수 선생님’, ‘박사 선생님’, ‘실장 선생님’처럼 직함, 학위명에 ‘선생님’을 붙인 형태도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넷째, 남한 호칭·지칭에서 빈도 높게 사용하는 의존명사 ‘씨’와 접미사 ‘-님’이 북한에서는 남한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오현(2005)도 지적한 바 있다. 북한 규범서와 소설, 영상에서 ‘씨’를 사용한 호칭·지칭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남한에서는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씨’를 이름에 붙여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관계에서 북한에서는 ‘동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님’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일부 친족명을 제외하고는 주로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해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그 사용역이 극히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님’과 유사한 존대 기능을 북한에서는 ‘동지’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다. <조례>에서 존대 표현으로 제시된 ‘어른’은 다른 규범서와 소설,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지인과 초면의 사람들에게 친족 호칭을 사용하는 양상이 남북 간에 차이를 보인다.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 친구와 그 아내를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부르거나, 어머니보다 나이가 위인 어머니 친구를

‘큰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남한에서도 가족 이외의 지인을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엄마’는 친족에게만 사용하므로 차이가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에서는 초면의 사람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아주버니’와 같은 친족 호칭·지칭을 쓰는 것이 확인된다.

여섯째, 북한 규범은 식당, 상점, 여관, 공원, 유원지 등의 공공장소 직원(접대원, 판매원, 관리원 등)을 부를 때에는 ‘직중’에 ‘동무’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직원이 손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김철 동무’처럼 ‘동무’를 붙여 부를 수 있다. 남한처럼 이름에 ‘-님’이나 ‘손님’을 붙여 부르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환자를 ‘손님’으로 부르는 것도 남한과 차이가 있다.

일곱째, 북한 규범은 학교에서의 언어생활도 다루고 있는데, 교사는 학생을 부를 때 이름에 ‘동무’나 ‘학생’을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끼리도 서로 이름에 ‘동무’를 붙여 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과 영상에서 비격식적 상황,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는 ‘동무’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여덟째, 사회생활 호칭·지칭으로 직위나 직무명에 성 또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 이름을 붙인 형태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북한에서만 나타나거나 대상·사용자층에 차이가 나는 것들로, 나이가 지긋한 노인에게 사용하는 ‘아바이’, 중년 이상의 친한 친구 사이의 호칭인 ‘동갑이’,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킬 때도 쓰이는 ‘처녀애’, 어린 연령대에서도 사용하는 ‘형님’이 있다.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 간에 호칭·지칭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다. 호칭·지칭어는 남한 안에서도 지역과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에서 규범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호칭·지칭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단 이전의 호칭·지칭을 남북한이 이념적인 필요에서 또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규범화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북한 규범서들은 사회생활(직장생활 및 조직생활)에서의 호칭·지칭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사적인 이웃, 친구 등 지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호칭·지칭 사용 양상도 불분명하다. 생애주기별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생활의 공적 관계가 부각되면서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치를 덜 둔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호칭·지칭이 해당 사회의 관계망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 영역에 대한 북한의 호칭·지칭 규범과 사용 양상이 더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칭어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여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북한 규범에서는 지칭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우레>의 기술에서는 거의 빠져 있으며 <우생>, <언생>에서만 일부 밝히고 있는데 그것도 지칭어를 쓰게 되는 대상이 아예 생략되거나 ‘남에게 이를 때’, ‘남의 어른에게’ 등으로 뭉뚱그려 기술되어 있다. <표레>의 대상별 지칭어와 일목요연한 비교 분석이 어려웠던 이유이다.

## 2. 남북 높임법

남북의 높임법은 전체 체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높임법과 관련된 요소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특징적인 차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남북 높임법의 차이를 문법적 차원과 어휘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법적 차원은 다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 높임법 체계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 중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첫째, 남한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시지요’를 사용하나 북한에서는 ‘-십시다’를 사용한다. 둘째,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반드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남한에서는 ‘하오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반면 북한에서는 성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하오체’가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넷째, 남한에서는 ‘해요체’의 사용이 성별에 따라 뚜렷한 제한이 없으나 북한에서는 ‘해요체’를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높임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사용되지 않는 ‘-라요’, ‘-시라요’, ‘-자요’ 등과 같이 명령형이나 청유형에 ‘요’가 붙은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체 높임법의 경우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의 주체를 높일 때 두루 사용되는 ‘께서’가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일 때 주로 사용된다. 북한에서의 ‘께서’ 사용역이 매우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가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남북이 다르지 않으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와 관련하여 ‘-시-’의 독특한 용법이 존재한다. 예컨대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그 문장의 술어에 ‘-시-’를 반드시 붙여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서술어가 합성용언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정도로 두 용언에 모두 ‘-시-’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객체 높임법의 경우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께’의 사용 양상이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기 위하여 ‘에게’ 대신 반드시 ‘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라면 ‘께’를 마땅히 쓸 대상에게 북한에서는 ‘께’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께’의 사용역이 좁아져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남한보다 북한에서 압존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더 강하다. 압존법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전통 언어예절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태도가 더 강함을 보여 준다.

어휘적 차원에서 남북의 높임법을 비교해 보면 높임법과 관련된 어휘를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높임 어휘이다. ‘시장하다’, ‘만나뵈다’, ‘잡수시다’, ‘분부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계시다’, ‘말씀’, ‘진지’, ‘병환’, ‘부인’, ‘댁’ 등과 같이 높임 어휘 중 대부분의 어휘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의 사용역이 제한된 어휘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잘 사용되지 않으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만 주로 사용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로는 ‘현지지도하다’, ‘교시하다’, ‘친솔하시다’, ‘심려하시다’, ‘보살피시다’, ‘배려하시다’, ‘선물하시다’, ‘심려’, ‘배려’, ‘선물’, ‘성함(존함)’, ‘안광’, ‘안색’, ‘신상’, ‘저택’, ‘몸소’, ‘친히’, ‘손수’, ‘가르치심’, ‘보살피심’, ‘부르심’, ‘그분’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셋째, 북한에서만 높임의 기능을 하는 어휘이다. 남한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하는 어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귀대명사 ‘자신’이다. ‘자신’은 북한에서는 높이는 대상에게만 사용하며 대등한 사람에게는 주로 ‘자기’를 쓴다. 넷째, 남한에서만 높임의 기능을 갖는 어휘이다. 남한에서는 높임의 기능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전혀 높임의 기능이 없는 어휘로서, 대표적인 것이 재귀대명사 ‘당신’이다. ‘당신’은 남한에서는 재귀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재귀대명사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용법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낮추는 어휘이다. 북한에서는 어휘를 통해 상대를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낮추는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의 높임법은 체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만약 남북의 높임법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남북한 사람들 간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높임법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높임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는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높임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남북의 높임법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표준 언어예절을 비교하였으나, 사실 남한 내에서도 지역과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예절이 존재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므로 지역과 세대에 따른 남북의 언어예절 비교 연구 또한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남북 인사말

일상생활의 남북 인사말에서 ‘아침, 저녁의 인사말’의 경우 아침 인사는 남북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서로 통용되는 표현이 많았다. 다만 북한 규범서에서는 <표례>에서 강조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인사말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먼저 가정에서는 <표례>에서 윗사람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한 ‘잘 주무셨습니까?’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잠자리나 방의 상태를 묻는 표현, 일찍 일어났다가 좀 더 쉬라는 말이 인사말로 제시되었다. 이웃에게는 ‘일 나가십니까?’와 같이 출근길과 관련된 인사말을, 직장에서는 ‘일찍 나오십니다.’와 같이 출근시간을 언급하는 인사말과 상대의 수고를 헤아리는 인사말을 아침 인사로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다. 저녁 인사는 윗사람에게 ‘주무시다’라는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북 차이가 없었다.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도 남북이 통용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북한 인사말이나 북한 규범서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먼저 가정에서 나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하는 인사말로 <표례>에서는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와 같은 표현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의 경우 북한 규범서는 집 밖에서 사람이 찾으면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사용하는 ‘다녀가세요.’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기관에서는 손님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와 같이 수고와 관계된 인사를 매우 활발하게 사용한다. 사회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은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잘 가가요.’, ‘안녕히.’, ‘평안히.’ 이외에는 남한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많았다. 다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 중 ‘오래간만입니다.’는 <표례>에서 평교간이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제시한 것과 달리 북한 규범서에서는 사용 대상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례>에서는 직장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를 쓰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

‘전화 예절’에서는 먼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의 사용자 성별과 사용 상황에서 남북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의 표현과 자신을 밝히는 말의 정보량, 자신을 밝히는 말 앞의 ‘네’ 사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전화를 바꾸어 줄 때나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한 번 전화하십시오.’와 같은 명령형 표현도 제시하고 있어 언어예절 차이가 보였다. 전화를 걸 때 역시 ‘여보세요’의 사용에 남북 차이가 있었고 통화할 대상을 찾는 말에서는 ‘바꿔줄 수 없습니까?’, ‘불러주십시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의 말이 특징적이었다. 전화를 끊을 때 남한은 ‘끊다’라는 표현을 북한은 ‘놓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소개할 때’에서는 몇몇 인사말에서 남북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북한 규범서에서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하자.’, ‘초면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고, <표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 ‘○○○라고 합니다.’, ‘○○○올시다.’, ‘○○○올습니다.’는 사용 제약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표례>에서는 친소 관계, 상하 관계, 성별을 기준으로 소개 순서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북한 규범서에서는 상하 관계, 손님의 용무 성격이 소개 순서

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특정한 때의 남북 인사말에서 ‘연말연시’ 인사의 경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정형화된 말로 쓰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를 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일 축하’ 인사말의 경우 ‘생신’의 사용에서 남북 차이가 나타났고 장수를 기원하는 말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보였다.

‘축하, 위로’ 인사말 표현은 남북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북한에서는 명절, 입대, 입당 등을 축하하는 말을 할 상황으로 보고 있어 남한과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문상’은 남북한의 인사말 예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남한은 말을 하지 않거나 아끼는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하는데 북한은 상황에 맞는 말을 잘 준비하여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애도를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배할 때’는 북한 규범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남북 규범의 비교는 어려우나 북한에서 ‘듭시다.’, ‘건강을 위해서’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사말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을 통해 서로에 대한 예의, 관심 등을 표할 수 있으므로 인사말을 잘 사용하였을 때 인간관계가 보다 부드럽고 원활하게 이어지게 된다. 인사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사말 표현이나 인사 방식은 물론 인사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이해가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인사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남한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방언이 존재하여 인사말 표현, 인사 예절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남북한도 이와 같은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 남북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인사말 규범의 차이를 갖는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규범서를 중심으로 남북 인사말을 비교하였다. 규범이란 실제 언어생활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앞으로 남북한 언중의 언어 규범에 대한 인식, 실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남북 인사말을 비교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북한 자료>

### 1) 교과서

국어 고등중학교 3(2002),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1(2008),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2(2009),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3(2009),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중학교 1(2004),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중학교 2(2003), 교육도서출판사.  
문학 고등중학교 6(2002), 교육도서출판사.  
문학 중학교 5(2003), 교육도서출판사.

### 2) 언어예절 규범서

김동수(1983), 『조선말례절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정용(2005), 『언어생활론』,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0), 『우리 생활과 언어』(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1), 『우리 말 례절법』(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 3) 학술지 및 잡지

고경순(2012),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체모에 맞는 언어 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데서 녀성들이 지켜야 할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3호(250).  
길영수(2011), 「부름말을 옳게 사용하려면」, 『문화어학습』, 2호(245).  
김광철(201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1호(248).  
김철(2012), 「학생들이 지켜야 할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4호(251).  
김철만(2011), 「존경어의 분류를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언어 례절 풍습」, 『문화어학습』, 2호(245).  
리옥경(2010), 「소학교 학생들이 언어례절을 바로 지키도록 하자면」, 『교원선전수첩』, 1호(388).  
리용남(2012), 「례절 관계 표현의 측면에서 본 우리말의 우수성」, 『문화어학습』, 1호(248).  
리정봉(2011), 「문안 인사말을 잘 하려면」, 『문화어학습』, 4호(247).

- 리현석(2011), 「조선어 부름말 표현 수단의 다양성과 풍부성」, 『문화어학습』, 1호(244).
- 본사기자(2012),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전화례절을 잘 지키자」, 『조선여성』, 650호.
- 본사기자(2013),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가정을 방문할 때의례절」, 『조선여성』, 656호.
- 송윤금(2011), 「식당에서 지켜야 할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4호(247).
- 송윤금(2011), 「언어생활 지도에서 교원의 역할」, 『문화어학습』, 2호(245).
- 안영철(2011), 「부부 사이의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1호(244).
- 엄정혜(2011), 「축하할 때와 위로할 때의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2호(245).
- 엄정혜(2011), 「사례의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어학습』, 4호(247).
- 저자정보없음(2010), 「[언어례절상식] 말을 주고받을 때 삼가해야 할 12가지」, 『인민교육』, 4호(641).
- 저자정보없음(2011), 「(상식) 부부사이의 언어례절」, 『조선문학』, 768호.
- 저자정보없음(2011),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존경과 친근감을 나타내는 부름말」, 『천리마』, 630호.
- 저자정보없음(2011), 「례절과 관련한 성구, 속담」, 『교원선전수첩』, 4호(395).
- 저자정보없음(2012), 「길거리에서의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1호(248).
- 저자정보없음(2012), 「각이한 상황에서의 부름말」, 『문화어학습』, 2호(249).
- 저자정보없음(2012), 「각이한 대상들과의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2호(249).
- 저자정보없음(2012),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전화례절을 바로 지키자」, 『천리마』, 639호.
- 저자정보없음(2012),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전화례절」, 『천리마』, 643호.
- 정광철(2012), 「인사말을 바로 하려면」, 『문화어학습』, 3호(250).
- 정태순(2010),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언어생활의 몇 가지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56-4(443).
- 허영무(2012), 「례의범절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문법적 수단」, 『문화어학습』, 4호(251).

### <남한 자료>

- 고영근(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2008),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지식의 응용화』, 한국문화사.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화법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11), 『표준언어예절』,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수(2004), 남북한 및 중국조선족 언어에 반영된 문화현상, 중국조선어문, 131, 김립성 민족사무위원회, pp.10-15.
- 김민수(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945-1990』, 녹진.

- 김승철(2000), 『북한 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 남성우, 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 문금현(2009), 「한국어 인사 표현의 유형과 특징」, 『세계한국어문학』, 1, 세계한국어문학회, pp.93~122.
- 서정수(1998), 「한국어, 일본어, 영어 및 중국어의 인사말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Greeting Expressions in Korean, Japanese, English, and Chinese」, 『비교한국학』, 4, 국제비교한국학회, pp.13~36.
- 서현석(2009), 「표준화법 개선을 위한 ‘인사말’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pp.129~152.
- 안태숙 외(2010),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은영(2002), 「남북의 언어예절 전망」,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이옥련(1997), 『남북한의 언어예절』, 박이정.
- 이창덕 외(2009), 『표준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화연(2004), 「문화어의 경어법 연구: 북한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 임채욱(1999), 「남북한의 언어예절」, 『극동문제』 239, 극동문제연구소.
- 임채욱(2004), 『북한 문화의 이해』, 자료원.
- 임철성(1996), 「방송극 대사의 계량언어학적 고찰」, 『국어교육』 91,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철성(1997), 「북한의 호칭·지칭 연구」, 『국어국문학』 119.
- 임철성(2009), 「남북 화법 표준화를 위한 한 모색 -호칭과 지칭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 장은하(1997), 「북한의 언어예절」,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 정재영(1991), 「북한의 경어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원.
- 조오현(2005), 『북한 언어문화의 이해』, 경진문화사.
- 황병순(1999), 「국어인사말 연구」, 『배달말』25(1), 배달말학회, pp.1~25.





## 〈참고 자료 1〉

○ 분석 소설 목록: 2000년 이후 발표된 소설 총 43편

번호	저자	발표연도	제목	발표지 또는 출판사
1	강귀미	2000	마지막 배우수업	조선문학
2	강선규	2000	교정의 룰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3	경석우	2004	아버지의 마치	금성청년출판사
4	권정웅	2000	동지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
5	김교섭	2000	누이의 목소리	조선문학
6	김길환	2000	빛나는 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7	김명길	2000	5시간 40분	조선문학
8	김정길	2000	그의 소원	조선문학
9	김창수	2000	차번호 “만-하나”	조선문학
10	김홍철	2000	꽃강냉이	조선문학
11	김홍익	2000	한생의 초여름에	조선문학
12	량호신	2000	그들이 택한 길	조선문학
13	량호신	2000	사랑과 증오	조선문학
14	류도희	2000	원 한 번째	조선문학
15	리경명	2000	첫 소대장	조선문학
16	리금철	2000	기준	조선문학
17	리라순	2001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
18	리명	2002	망부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	리성식	2000	아지랑이 피는 들	조선문학
20	리정옥	2003	뇌성나무	조선문학
21	리준식	2000	통일의 길	평양출판사
22	림병순	2000	꺼지지 않는 메아리	조선문학
23	림재성	2000	나루가의 밤 이야기	조선문학
24	림화원	2000	오후 5시	조선문학

번호	저자	발표연도	제목	발표지 또는 출판사
25	변월녀	2001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6	석남진	2002	비결	문학예술출판사
27	석유균	2001	별-하나	조선문학
28	송병준	2000	푸른 잎	조선문학
29	안금성	2000	요영구 풍경화	조선문학
30	약월	2000	학대받는 사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31	양의선	2000	푸른 사랑	조선문학
32	양해모	2000	결석대표	조선문학
33	오광철	2000	높은 요구	조선문학
34	유현	2000	복무	조선문학
35	윤경찬	2000	언제	조선문학
36	장기성	2000	자전거	조선문학
37	전인광	2000	평양의 눈보라	조선문학
38	조인영	2000	대오가 떠날 무렵	조선문학
39	차승철	2000	초석	조선문학
40	최성진	2000	지워지지 않는 글	조선문학
41	최양수	2000	이상한 목소리	조선문학
42	한정아	2001	여섯 번째 버드나무	조선문학
43	현승남	2000	미래에 살자	조선문학

## 〈참고 자료 2〉

○ 분석 동영상 목록: 2000년 이후 제작(일부는 방영연도 기준)된 총 66편

번호	제목	제작연도 (방영연도)	분류
1	소년 탐구자들	2013	텔레비죤극
2	꿈을 속삭이는 소리 1부	2012	텔레비죤극
3	자기를 바치라 1부	2012	텔레비죤극
4	철이 아버지였군요	미상(2012)	토막극
5	금요일에 있는 일	미상(2011)	예술영화
6	눈 속에 핀 꽃	2011	예술영화
7	다시 만납시다	2011	예술영화
8	미결건은 없다	2011	예술영화
9	분조의 주인	2011	예술영화
10	소원	2011	예술영화
11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	2011	청소년영화
12	인민이 너를 아는가	2011	예술영화
13	버릇 탓인가	미상(2011)	청소년영화
14	우리 여자 축구팀 1부	2011	텔레비죤극
15	설 풍경	2010	예술영화
16	성강의 파도	2010	예술영화
17	햇빛 밝아라 1-2부	2010	예술영화
18	행복의 수레바퀴	2010	예술영화
19	산올림	2010	경희극
20	말만 하다가	미상(2010)	청소년 영화
21	그 처녀의 이름	2010	텔레비죤극
22	백두의 봇나무	2009	예술영화
23	시대가 주는 이름	2009	예술영화
24	뽕꼭새가 노래하는 곳 1부	2009	텔레비죤극
25	사랑의 샘 1부	2009	텔레비죤연속극
26	아지미	2009	드라마
27	저 하늘의 연	2008	예술영화
28	불길 1부	2008	텔레비죤극
29	행복은 어디에 1부	미상(2009)	텔레비죤연속극

번호	제목	제작연도 (방영연도)	분류
30	어느 한 여성 직장에서	2008	조선예술영화
31	우리의 집	미상(2008)	텔레비죤토막극
32	축하합니다	미상(2009)	텔레비죤토막극
33	평양 날과람	2006	예술영화
34	생활의 거울 : 병은 네가 걸렸어	2006	텔레비죤토막극
35	손주며느리 오는 날	2006	텔레비죤토막극
36	수업은 계속된다 1부	2006	텔레비죤연속극
37	청년들을 자랑하라 1부	2003	예술영화
38	1번수 1부	2003	텔레비죤극
39	새 령마루예로	2005	예술영화
40	선미 어머니	2006	텔레비죤토막극
41	면산의 노을	2004	예술영화
42	새로 온 처녀 인수원 1부	2004	텔레비죤극
43	사랑의 거리	2003	예술영화
44	한 녀학생의 일기	2006	예술영화
45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2006	텔레비죤토막극
46	내 고향의 바다	2005	예술영화
47	충북	2005	예술영화
48	따뜻한 우리집 1부	2005	텔레비죤극
49	존엄	2004	예술영화
50	우리의 향기	2003	예술영화
51	구봉령일가	2002	예술영화
52	불빛	2002	예술영화
53	살마를 잡아라 1부	2002	텔레비죤극
54	고향산천 1-2부	2002	텔레비죤극
55	세대의 임무	2002	예술영화
56	길을 비켜라	2001	예술영화
57	복 받은 대지에서	2010	예술영화
58	2학년생들 1부	2002	텔레비죤소설극
59	엄마를 깨우지 말아 1부	2002	텔레비죤극
60	금진강 1부	2002	예술영화
61	가정 1부	2001	예술영화
62	소방대원들 1부	2003	텔레비죤연속극
63	침단선 1부	2002	텔레비죤극
64	높이 나는 새	미상(2003)	예술영화
65	고향의 편지	2002	예술영화
66	복무의 길	2001	예술영화

■ 담당 연구원

이 대 성

■ 공동 연구원

양수경, 강보선, 이수연

##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3년 12월 16일

발행일 2013년 12월 16일

인 쇄 (주)계문사 (02-725-2516)

---